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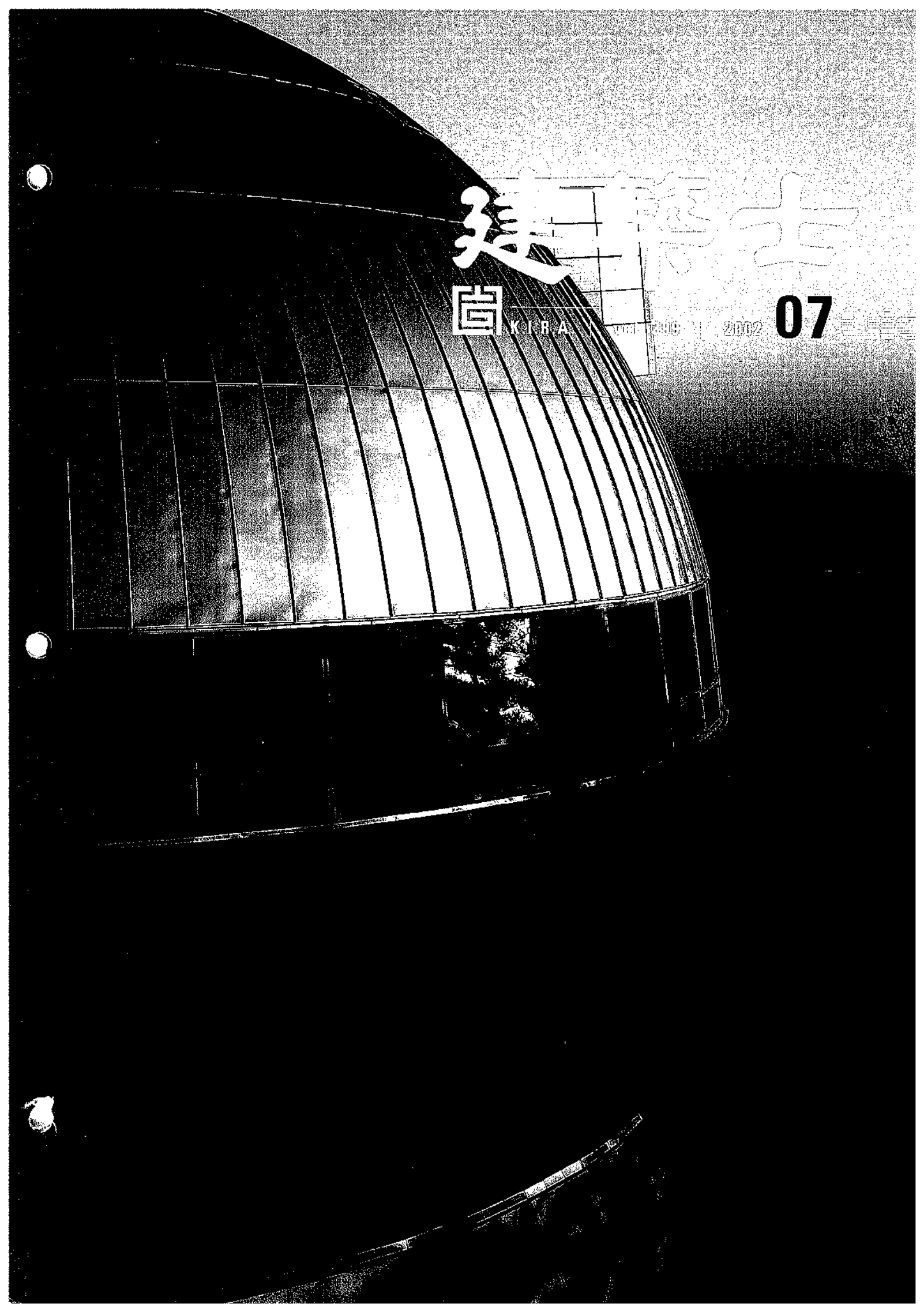
図

KIRIA

2002

2002

07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휘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과 에너지절약의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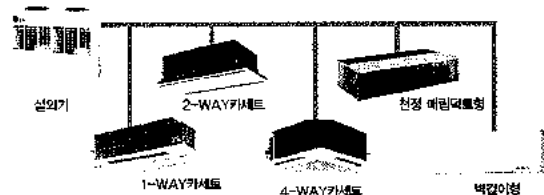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pm 0.5^{\circ}\text{C}$ 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운전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Free Joint 빌딩멀티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
적산전력 분배시스템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앙제어 컨트롤러>



전문가라면 큰 건물에서도
크게 남는 장사를 하셔야죠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강남 (02)2005-3578 김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6091 인천/부산/전남 (032)321-9161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67-0806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서울 (02)2005-5055~60 ※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란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난방문화의 혁신! 기름대비 70% 연료비 절감!

전용 온돌바닥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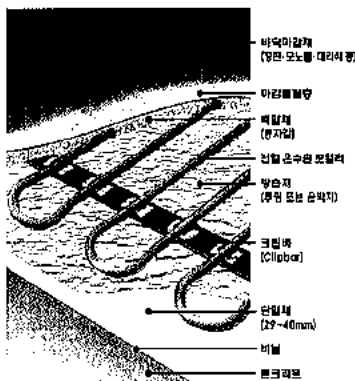
■ 제품 특징

- ◎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본 제품은 각방 개별 난방방법으로 난방 유지비가 저렴 (건축법 제59조 설비 21조 시공조건)
- ◎ 기존 바닥 온수배관 속에 수중 발열선과 열매수를 함께 삽입한 후 분배구를 밀폐, 방별 자동온도조절기로 개별 난방
- ◎ 밀폐시킨 공간에서의 가열은 예열시간이 짧고 발생한 온수와 증기로 순환 아닌 제자리에서 직접 방열하므로 열손실 Zero, 열효율 100%로 일반전력요금으로 간접가열 방식인 기름보일러보다 최고 70%의 연료비 절감
- ◎ 무소음, 무고장, 무공해로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난방
- ◎ 가구 이동없이 구 건물 바닥 배관을 뜯지 않고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재활용 가능
- ◎ 열매수를 사용하여 과열에 의한 전열선 단절 보완과 함께 전자파 차단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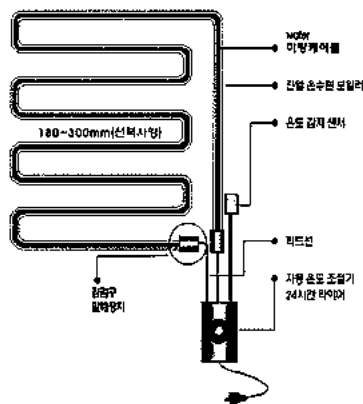
❖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6종 등록



❖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 온돌 보일러 제품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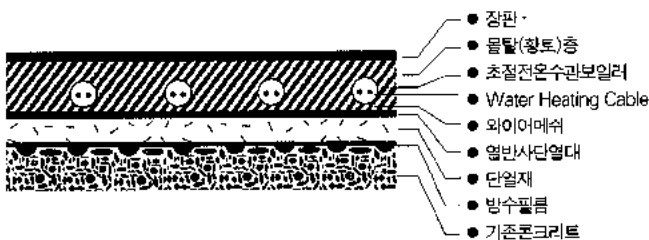


❖ 온돌 보일러 시공사양

시공선택사항 방열관 간격(mm)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h)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25	13	0.25
200	15	0.29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59조 규칙 단열시공건물 기준

❖ 측면 시공도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한도 유지, 지중난방 등

-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 정부 각 부, 처, 도, 시, 군, 구 우수발명품 우수구매 추천제품
-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당사 온수관 보일러 시공 시 반드시 본사에 계약내용을 통보해야 A/S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타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깔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출석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 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제17592호)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 바닥, 문, 창호 등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SEOHAN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남동공단 165B-6L)

TEL:032-815-1674~7 FAX:032-814-4155 E-mail:seohan@antamire.com seohandeco@seohandeco.co.kr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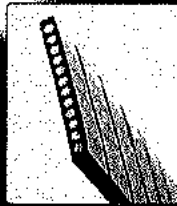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의 혁명, GeN2™

OTIS가 엘리베이터를 발명했을때도
GeN2만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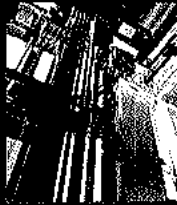
GeN2™의 외관미학

- 기계실이 사라지면서 만들어낸 멋진 스카이라인
- 최고급 소재로 마무리한 동격있는 공간
- GeN2만의 세련된 외관 연출



GeN2™의 안전기술

-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RBM(역회전 방지장치) 12배
- 플랫폼과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무게 3,600kg



GeN2™의 환경미학

- 감속기 없는 기어리스 방식
- 영구 밀봉 베어링 채택(무유류)
- 반 영구적 플랫폼

Generation2 **GeN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6-1 Glass Tower

- 대표전화 (02) 6007-3114
- 서비스 정보센터 (전국) 080-780-7000
- 고객상담실 (전국) 080-960-7700
- 지점문의 (02) 6007-3240, 3260, 3269, 3284



'2002
세계인류상품선정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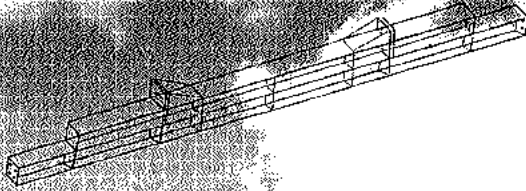


'2001
그린 디자인
수상



'99, '2000
고객만족도 1위 기업선정
-엘리베이터부문

버팀보 절약형 흙막이 공법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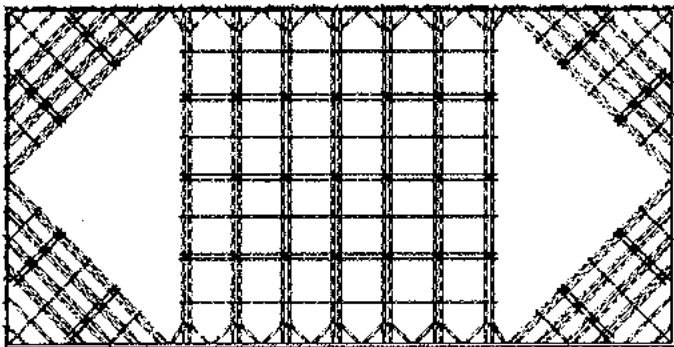


기존공법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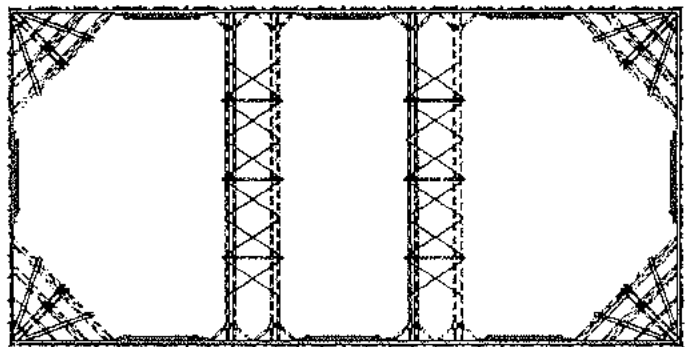
일반 흙막이 공사에 주로 이용되는
Strut 지지공법과 신공법인 PS 흙막이 공법의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주요 사용자재	· SS41 (H-300×300)	· SS41 (H-300×300)
시공성	· 시공설치가 많다. · 속현도가 높다. · 강재사용이 많아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 용접 및 BOLT조립으로 시공속도가 저하된다. · Strut, Post Pile의 간격이 좁아 토공작업시 능률이 떨어진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 겹피장 설치시 정밀시공을 요한다. · 강재 사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어 작업능률이 높다. · 시공속도가 빠르다. · STRUT 및 POST PILE의 간격이 훨씬 늘어나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확보로 인하여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정성	· 현장 시공시 일반 SCREW JACK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변지반의 변위가 많이 발생한다.	· CABLE을 이용하여 PRESTRESS를 가하기 때문에 주변지반의 변위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경제성	· 강재 사용량이 많아 비경제적이다. · STRUT 설치간격이 좁아서 시공속도가 느리다.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업시 시간이 지연된다. · 공기가 길다.	· 사용강재가 줄게되어 경제적이다. · STRUT 및 POST PILE, WALE이 줄어들어 시공속도가 빠르다. ·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굴착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공기가 짧다. · Earth Anchor 경우와 같이 인접지 동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모든면에서 OK!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피에스 건설 엔지니어링(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 534번지 유진B/D 2F

☎ TEL 02-478-4530~2

☎ FAX 02-474-3618

☎ 홈페이지 : www.pseng.co.kr

☎ e-mail : ps4530@kornet.net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창업자금 특별상당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스피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경력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삼성생명대출특선!!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02-545-8853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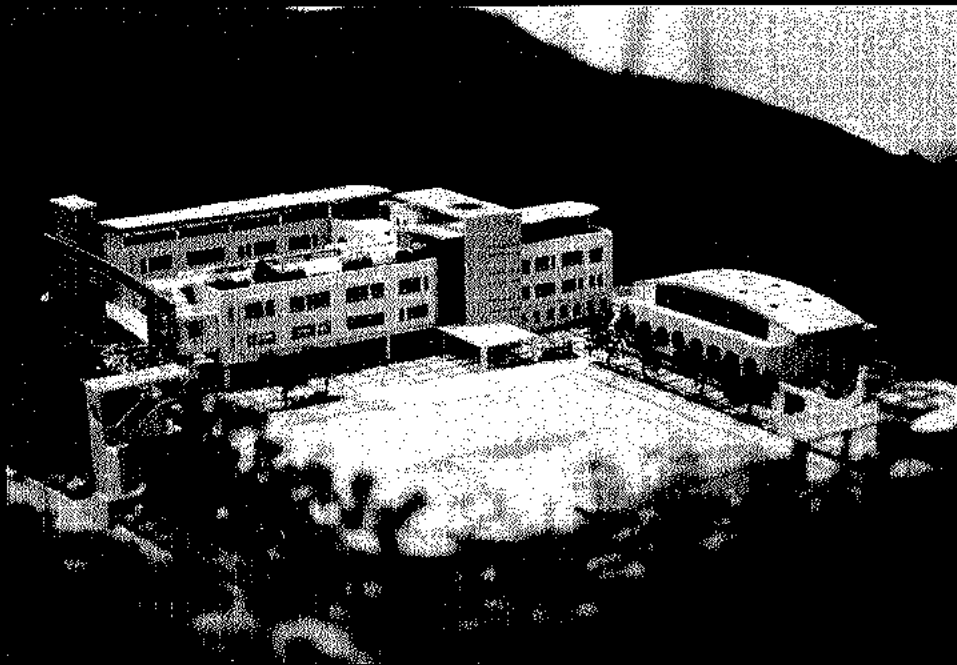
H-P 011-9738-0087

모형

그리고

사람

꿈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건축모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축모형

단위세대모형

아파트모형

현상모형

지역안내모형

플랜트모형

고건축모형

인테리어모형

기계작동모형

Model &
Project
MODEL

130-03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6-71 주상복합 303호

TEL 02)2217-5942~3 FAX 02)2217-5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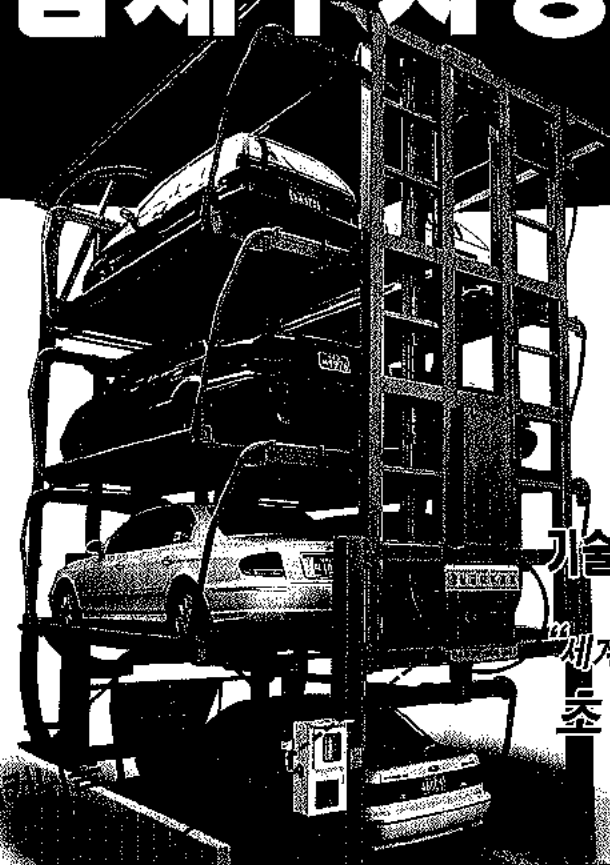
NEW
MODEL
ARCHITECTURE

세 · 계 · 최 · 초 · 의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안정번호 대구 제1-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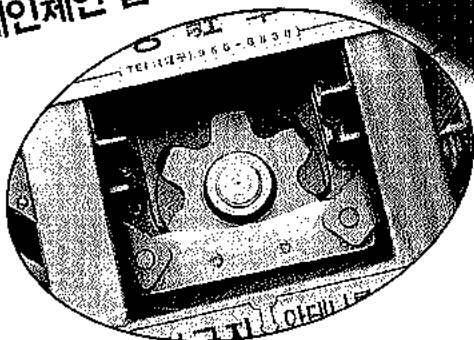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신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카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기존에 판매된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지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지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안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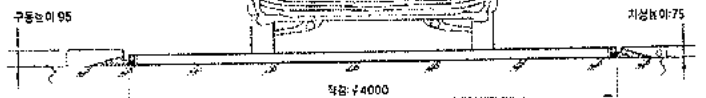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표	종	사	양
모	형	스카이파크턴테이블	
수용차종	중 소형 승용차		
구동방식	자동 CHAIN		
구	경	구동원리	0.2%×40
위	치	정확도	약 1RPM
원	리	FAC MOVING X 1.0MM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대)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서울A/S센터 : (02)3665-2723
- p.p : 011-507-8838
- E-mail : cgp210@kornet.net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떠나자~

AutoCAD 2002와 함께 제주도로!

웹드컴 양코르 감동 대축제

AutoCAD에 의해 디자인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공섬 경기장, 서태원, 오토데스크가 AutoCAD 2002를 제작하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세계 최대 웹드컴 경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을 또는 하와이 호텔스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오토데스크가 드려주는 감동 대축제, 이번 기회를 통해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AutoCAD 2002로 디자인된 모든 국제 월드컵 경기장은 오토데스크가 디자인 되었습니다.

○대상 : AutoCAD 2002 유료 구매 고객 (예금 구입시 아래의 보너스 중 1개 선택 가능)

○보너스 : 1. 제품 1copy 및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 (항공권 1장 제공)

2. 제품 3copy 구입시 하와이 호텔리 1박 또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 (항공권 3장 제공)

3. 제품 10copy 구입시 상품 프로그램 패키지 (프린터 70 + MS Office XP + Acrobat 5.0)

또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 (항공권 10장 제공)

*제품 구입 후, 고객 등록에 AutoCAD, AEC 관련 교육 및 기술 상담 서비스 제공

기간 : 2002년 3월 31일까지

주요 문의 : 웹드컴 사이트와 관련된 문의 자세한 사항은

http://www.autodesk.co.kr TEL : 02-3468-0695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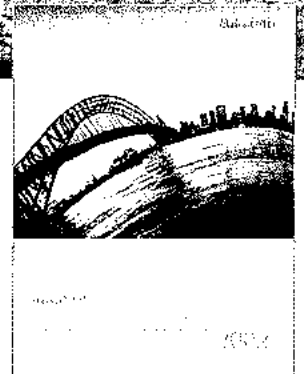
선착순
200copy
한정판매

인터넷 시대에 맞춘 디자인 솔루션 AutoCAD® 2002

AutoCAD 2002는 협업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툴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디자인 도구로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설계, 기계설계, 지리정보, 토지개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Autodesk 전 제품의 기반이 됩니다. 인터넷 시대 디자인 솔루션의 세계 표준, 이제 AutoCAD 2002로 귀하의 디자인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십시오.

주요기능

- CAD 표준관리 기능 · Layer 관리 기능 · 인터넷 관련 기능 · i drop 기능 · 연관 채수 기능
- 향상된 속성 관리 기능 · 향상된 text 편집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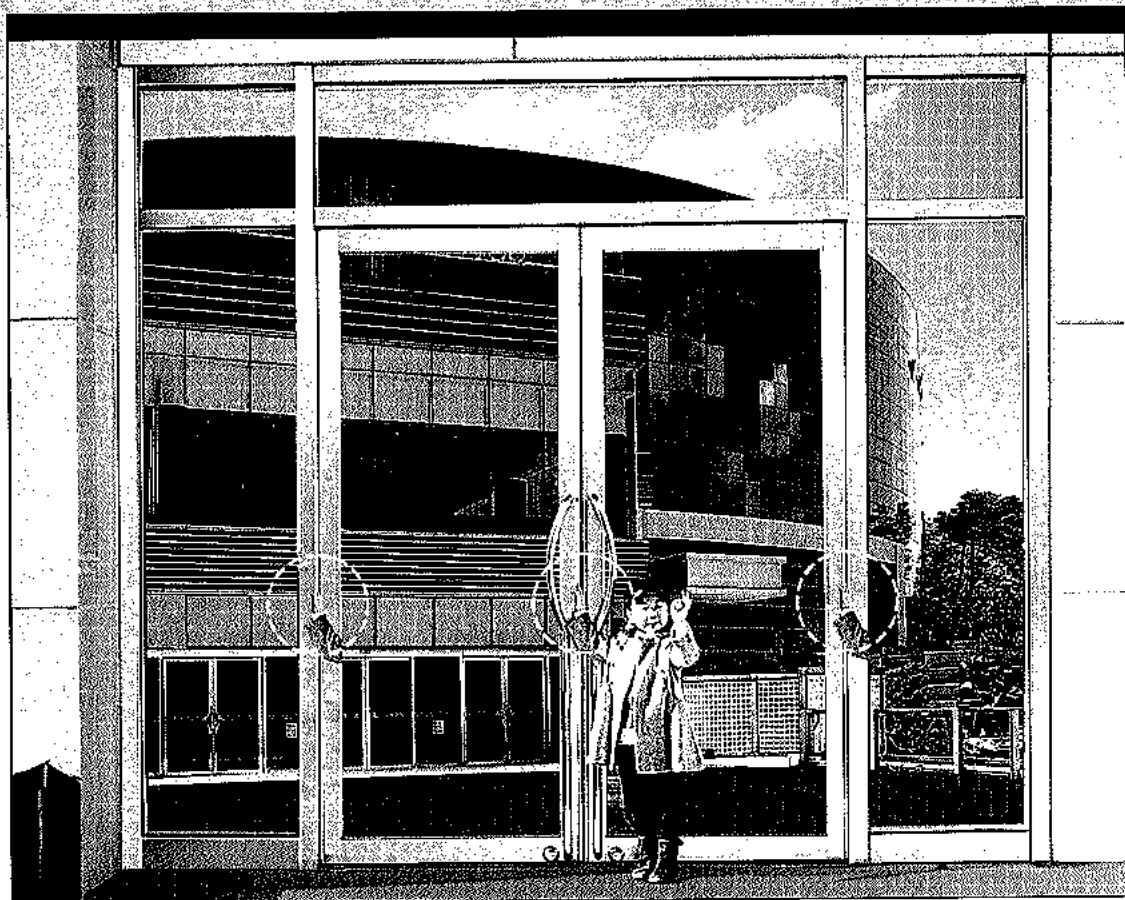
autodesk
authorized systems center

오토데스크의 디자인솔루션은 Autodesk Systems Center(ASC)에서 만나십시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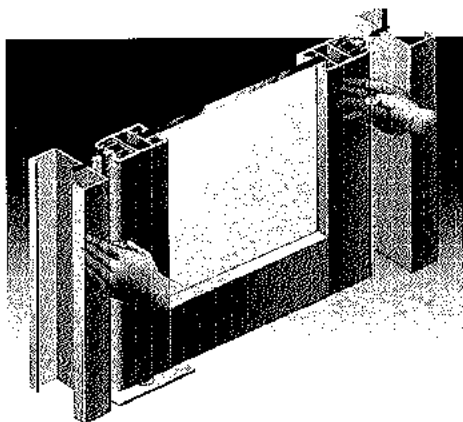
DAU (주) 다우데이터시스템 AutoCAD 상업용 ASC (주)다우데이터시스템 02-3468-0695

www.autodesk.co.kr

세이프강화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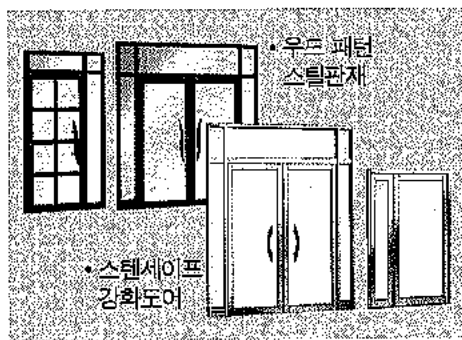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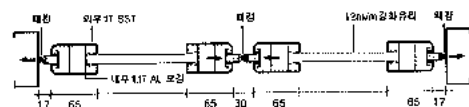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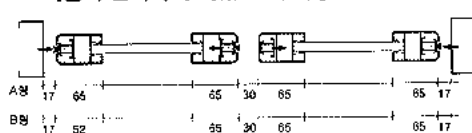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예식장 • 은행 • 아파트 현관
- 예식장 • 목욕탕 • 상가건물
- 백화점 • 병원 • 호텔 • 유치원

평면 상세도

사용 상태도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단가는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음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부산총판 대신종합상사 TEL. 051-248-7005

약도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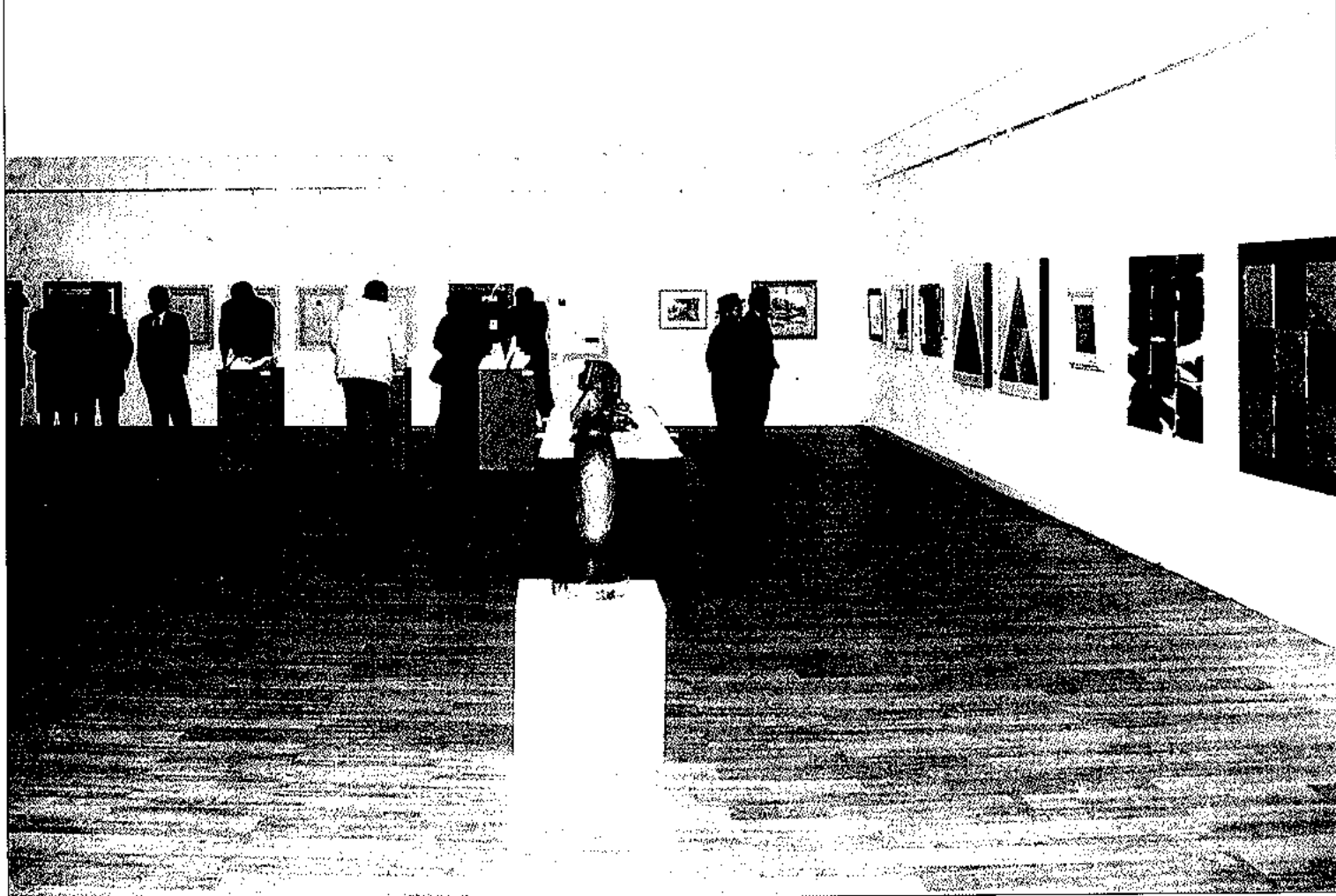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SAMHWA

삼화 페인트공업(주)

SAMHWA PAINTS IND. CO., LTD.

완벽한 방수는 물론 오래 지속되는 전문기업의 전문 방수페인트-
방수단, 무래탄 탄성방수제, 세리코트, 슈퍼 세리코트가 있습니다.

잠수하시겠습니까?

방수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서 한방울, 두방울~
지붕공사를 하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않죠?
이제 단 한번의 시공으로 5년이상 방수효과가 지속되는 국내 최고의
삼화방수페인트에 맡겨주세요!
튼튼한 우레탄이라 계절별 온도 차이에도 변화가 없고,
탁월한 접착력과 신축성으로 장마철이 거뜬해집니다.

방수페인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삼화페인트



제품문의

www.spi.co.kr / www.paintclub.co.kr

· 고객상담실 Tel: 080-311-2398 (수신자 부담)

· 서울영업소 Tel: (02)741-4133 Fax: (02)745-2445

· 수원영업소 Tel: (031)251-8474~6 Fax: (031)251-8478

· 대구영업소 Tel: (053)651-5396~8 Fax: (053)651-5399

· 스펙팀 Tel: (02)765-3641

· 인천영업소 Tel: (032)424-7515~7

· 부산영업소 Tel: (051)583-7001~4

· 원주영업소 Tel: (033)745-7717~8

Fax: (02)765-3601

Fax: (032)424-7518

Fax: (051)583-7005

Fax: (033)745-7719

· 건축용팀 Tel: (02)744-3895

· 대전영업소 Tel: (042)626-1101~2

· 광주영업소 Tel: (062)529-8877, 6600

· 전주영업소 Tel: (063)222-7408~9

Fax: (02)745-2445

Fax: (042)626-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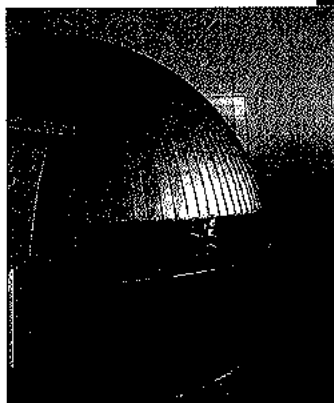
Fax: (062)526-5779

Fax: (063)222-7705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7월호, 통권399호

차례 2002 7 399호



김해천문대(이상림·강성인 作)

31



39



61



칼럼	한국 건축계의 세계화와 한국화	양상호	22
회원작품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서보광	24
	한국재활복지대학	이영희·정영균	34
	김해천문대	이상림·강성인	44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이관직	54
기고	건축사 업무발위와 대가기준	최찬환	62
	핵사론 영구배수공법	이창남	68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원)	김용승	73
건축민평		유원재	82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3
	현상설계		90
	계획작품		98
	해외집지동향		102
	세무안내		105

발행인: 우남웅
 홍보편찬위원회: 정정지, 박영식, 김수경, 옥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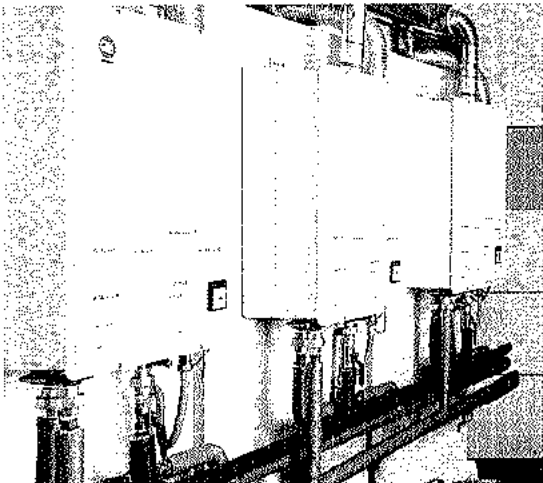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등 방만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갑니다

고장찾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자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콘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Column

Internation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Yang Sang-Ho	22
---	--------------	----

Works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Suh Bo-Kwang	24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34
Gimhae Astronomical Observatory	Lee Sang-Leem, Kang Sung-In	44
Gwacheon Information Science Library	Lee Kwan-Jick	54

Feature

Standards for Architectural Design Service and Its Fee	Choi Chan-Hwan	62
Water Distribution Methods of Hexa Tube Connector	Lee Chang-Nam	68

Serial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E)	Kim Yong-Seung	73
---	----------------	----

Cartoon	Yoo Won-Jai	82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83
Competition	90
Process works	98
Overseas Journal	102
Taxation Business	105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G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서울 역삼동 소재 R사 시공
- 연면적: 657평 ● 대지면적: 148.76평
- 설치보일러: 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 난방면적: 536.5평
- 월난방비: ₩1,682,090
- 사용기간: 2000년 1월



시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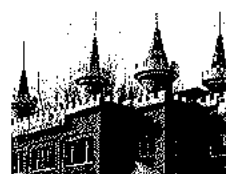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작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총별 난방 및 온수 수도작렬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총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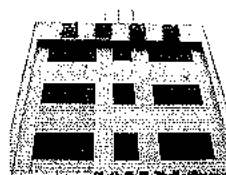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총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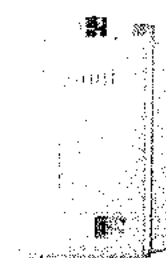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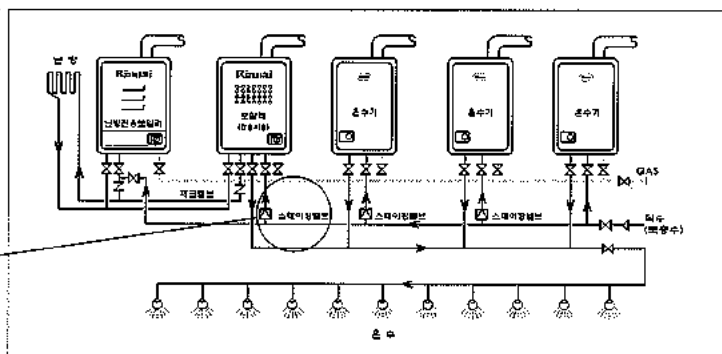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터,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작렬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린나이 코리아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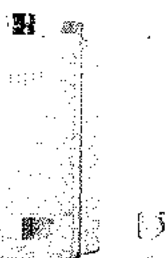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B-366SME/F

난방: 36,000kcal/h
사이즈: 600(H)×440(W)×285(D)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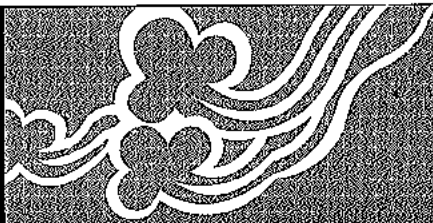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36,000kcal/h
온수: 36,000kcal/h
사이즈: 600(H)×440(W)×285(D)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600(H)×335(W)×160(D)mm
온수: 16ℓ/분(ΔT: 25℃)



2002 한국 건축 문화 대상

계획 건축물 부문 공모 주제

■ 주 제 :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

- 전통의 거리내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
- 각 지방도시의 특성에 맞는 실제 대지를 선정
- 지역 고유의 문화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위락시설 등을 임의 선택

■ 주제설명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나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회기간중 각국 선수단과 응원단, 관광객이 전국 각지를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심무대로 한걸음 다가섬은 물론, 도시건축 차원에 있어서도 월드컵경기장 등 관련시설의 개장으로 건축역사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지난 30여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건축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점차 침몰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은 거대자본의 논리와 정치·사회적 욕구충족의 기술수단으로 전락되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가치체계 확립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고유의 정서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도시환경내에서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시건축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능, 공간, 형태적 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건축 차원의 건축물로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도시건축의 도발적 와중에서도 전통적인 도시의 조직과 구조를 명백히 유지하고 우리 고유의 정서와 맥락을 역사 속에 재해석하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기능과 공간 그리고 형태적 방안을 실천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시대 건축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를 재현하여 오늘이라는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도시환경 내에서 변화의 역동성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도시문화를 고려한 건축물은 미래 우리건축의 문화유산으로서 좌표설정과 삶의 연속적 풍요로움에 기여할 것이다.

2002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 F10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참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2 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部 門 課 題

▶ 卷之四 中

- **음곡작품** : 3000만 원 이하 후 본공연 국내 각 극단
● **음곡저작** : 음곡작품의 설계자·전공자·연주부서 제출 및 저작권 등록(건축물 대장
건축주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

▶ 계획진출상부름

- 중요작품: 사시와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면허 종사자(건축사, 자치, 스킷자, 자, etc.)
 - 대학(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吟風嘯雨

▶ **준공권착공부토**

- 가. 쪽깢기명사, 건축물명사,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84 규격의 사진첩 2부
나. 건축물대장 1부
다. 건축허가서 1부
- 라.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원모양도가 평면설계 또는 구조를 결정할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인 명시하여 하며, 외주자 참여과정의 경우 관련자임을 밝히 기재하여야 함
 - 수장자가 공동출판할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게서 서명함
- 마. 도시계획 심사를 통과한 건축물에 3차 현장조사용 실시하여 2차 현장조사용 실시한 경우 2차 현장조사용 실시한 필드 정보
- 가) 계획건(이하 30%×서로 120cm) 1일 및 작업종결시(AM8시 15분) 1부 제출
- 도면(2회)×크기 75cm×90cm 5부=90cm×75cm, 높이 75cm) 1일 제출
 - 공동출판물 출판일전 3일 이하로 제출함
- 라) 작성주체: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
- ※주제별 및 설계 내용, 표현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타하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na.or.kr>) 참조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
· 충청권에서는 접수담당 직원에서 근무 (송문장은 없음)

■ 심사위원

김훤관변 보

- 수상리발표 및 시상 - 전지
- 추심작품 고 : 2002년 11월을 (위성자)에 헌정 기념 특별
 - 추심작품 전시회 : (월경 및 참수 추수공고)
 - 시상식 : (민치 및 추수 추수공고)

■ 작품분석 (지리교육연구원에 발원)

- 원사 및 경수: 2002. 10. 14(월) ~ 10. 15(화) 09:00 ~ 18:00
(단, 인선인선 수심작은 전사의 종료후 반출)
—지정된 반출된 채까지 잃은 조종은 주위 하에서 물의 매기쳐버려 더니 음의반사기 나뉘

■ 시장내용

▶ 공공기관별부담

	전축신	지공각	전축후	관자지침
대칭(正稱)	모르키 뒤쪽인척발발	모르키 뒤쪽인척발발	모르키 전축후부치음 發音	세계지도를 보았을 시작한지 20여년 전축후 지공각을 발발
반칭(反稱)	모르키 뒤쪽인척발발	모르키 뒤쪽인척발발	승리 전축후부치음 發音	세계지도를 보았을 시작한지 20여년 전축후 지공각을 발발
일치(一致)여부		갈려		세계지도를 보았을 시작한지 20여년 전축후 지공각을 발발
공통점		모르키		전축후 지공각을 발발

▶ 기획건축심의회

- 급상 (1점): 상급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상급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상급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상급 각 20만원 및 상장
- * 동상이상 수상자 중 대학재학생의 인선: 영어 영어능력시험을 거쳐 2인씩 선별,
 ASCASIA(3차)이전수시생의 인선: 학생경력리더의 파견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분역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지원팀 (Tel. 581-5711~14)
대외 : 서울경제, 문화경제 및 건설시류 등 자매인 사간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 문화경제, 건설시류 등 자매인 사간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 문화경제, 건설시류 등 자매인 사간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한국 건축계의 세계화와 한국화

Internation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Korean Architecture

양상호 / 탐라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by Yang Sang-Ho

2002한일월드컵에서 우리가 했던 응원문화는 가히 세계최고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축구만이 아니라 스포츠 응원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응원문화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는 “붉은 악마(Red Devil)” 클럽 초기 회원의 말이 인상적이다. 붉은 악마의 결성은 일본보다 뒤늦은 것이어서, 자칫하면 일본의 응원단인 “울트라 닛본(Ultra Nippon)”의 응원내용을 본의 아니게 흉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들이 하는 응원내용을 전부 싹뺐다는 것이다. 그리곤 붉은 악마들은 울트라 닛본이 하는 것은 무엇 하나 따라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유명한 붉은 악마의 응원이다.

이렇듯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세상에 알리고 그것이 다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이른바 “세계화(世界化)”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또 대부분은 앞서간 남들이 하는 내용을 따라 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고쳐가는, 이른바 “한국화(韓國化)”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해 간다.

한국사에서 “근대화”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흔히 비서구사회에서는 “근대화=서구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의 근대화는 서구의 사회현상을 규범으로 삼는 시기의 일로서, 그 모델은 항상 서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근대(Post Modern)하면서 탈서구(脫西歐)하려는 기운이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장으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나 일본에서 나왔던 “內發的 發展論”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 극복하려는 시도(姜尙中,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へ』, 1996)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축계의 경우는 과연 어떤가’라는 의구심을 매우 강하게 갖게 된다.

IMF금융위기 이후, 민간건축보다는 공공건축의 건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감이 있다. 또 이들 공공건축은 대부분 현상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현상설계에 의해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 본질적 고민의 흔적이 많은 개성이 강한 작품보다는 보편적인 형태의 작품이 선정되기가 쉽다. 실험적이거나 자극적인 작품보다는 누가 보아도 무난한 작품이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무난한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대담한 형태나 새로운 소재표현 등 의욕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미 했던 것을 응용한 듯한 느낌의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건축적 이상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기에 건축에 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21세기의 건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작품들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19세기 서구의 리바이벌리스트들이 추구했던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고민에 대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서구의 19세기는 “사회”의 존재와 “개인”의 존재가 대립하여 사회적 통념의 압력이 컸던 시대로서, 개인의 순수한 “사변적 객관성”보다는 “사회적 객관성”이 더 요구되는 시기였다. 사회적 객관성이 요구되면서, 19세기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다. 즉, 사회가 하나의 건축적 이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건축가는 자신의 이상을 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사회가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더욱이 Patron과 건축가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귀족계급인 Patron의 쇠퇴와 함께, Professional로서의 건축가와 공공사회와의 관계로 변해 간다. 이에 따라 재료의 진실, 디테일의 진실을 요구하게 된 시대가 19세기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J. Ruskin, A.W.N. Pugin, E. Viollet-le-Duc과 같은 리바이벌리스트들은 Gothic을 재해석하면서 각각 건축의 사회적 윤리성, 종교적 윤리성, 합리적(구조적) 해석을 강조하며 건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대의 변화와 건축적 변화의 당위성을 통찰한 건축가들의 노력이 힘차게 시도되며, 이것은 후일에 명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최근에도 위와 유사한 논의가 있음도 주목할 가치가 있어 소개하자. 1994년 11월에 일본의 나라(奈良)에서 열린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나라회의(文化遺産保存のための奈良會議)”에서 역사유산의 진실성에 대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이전까지 이루어진 바로는 건축의 진실성(Authenticity)은 “재료·디자인·기법·장소”가 그 내용이었으나, 나라회의에서는 진실성의 내용이 확대되어, 「형태와 디자인(form, design)」 「재료와 물질(material, substance)」 「용도와 기능(use, function)」 「전통과 기법(traditional, techniques)」 「장소와 배경(location, setting)」 「정신과 감정(spirit, feeling)」의 요소들이 제기되었다(鈴木博之, 『現代建築の見かた』, 1999 참조). 이것은 현대건축이 미미하나마 변화를 보이며 새로운 건축관을 나타내는 일로서 흥미롭다. 특히, 전통, 기법, 장소, 배경, 정신, 감정 등은 근대건축에서는 흔히 배제되었던 요소로서, 현대건축과 우리의 정신, 또 건축과 도시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결국 고유성을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논의들은 세계 각 지역에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야 할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이니 한국성이니 하며 우리의 것을 찾고 알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활발했었고, 명쾌한 결론은 아직이지만 논의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나마의 성과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앞서 예시한 전통, 기법, 장소, 배경, 정신, 감정 등 고유성의 재발견을 방향짓는 요소들은, 실제 거론의 여부를 떠나, 전통이나 한국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의 중심테마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의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축계에서 아카데미즘이 쇠락해진 최근 몇 년간은 외국에서 건축디자인을 수련한(?) 국내의 건축가들이 많은 미디어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 같아, 어째 그동안의 전통이나 한국성이나 하는 것은 괜한 소란이었나 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더욱이 건축의 진실성이 디자인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예시한 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지난해 건축대전에서 야기되었던 소란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외국에서 수련했다 하여 전통이나 한국성을 무시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건축에 관한 본질적 이해는 외국의 것에 가까워있지 않았는가 하는 편견에서 해보는 소리다.

또 얼마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건축사단체의 복수설립문제도 마찬가지로, 건축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건축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 문제로 파악된다. 건축의 본질적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복수의 학파나 유파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사단체의 문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기에 썩 보기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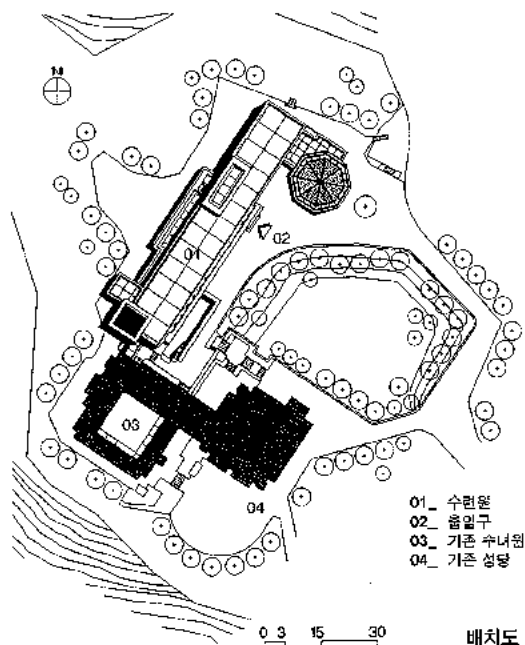
요즘 우리 건축계는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을 맞아 대비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학의 건축교육시스템까지 변하고 있다. 경제상황의 막강한 지배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다, 애국심이라는 울타리도 보호정책이라는 우산도 별 소용이 없는 “세계시장”의 망망한 공간 속에 우리 건축계가 놓이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계화된 우리의 건축”, 그리고 “한국화된 세계의 건축”을 하루빨리 정립시키는 일이 우리 건축계가 해야 할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싶다. 더불어, 건축가를 비롯한 특정소수를 위한 건축보다는 잠재적 건축주인 일반 시민을 위한 건축을 해야 하며, 건축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주장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함을 덧붙이며, 최초로 가졌던 필자의 외구심이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기대한다.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서보광 / (주)동성건축
Designed by Suh Bo-Kwang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729-1번지의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31,351.00㎡
건축면적	1,287.61㎡
바닥면적	2,854.74㎡
건폐율	10.80%
용적률	24.42%
주요용도	종교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적벽돌, 세라믹패널, 부식동판
시공	(주)호산건설
건축주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설계기간	1999년 5월 ~ 2000년 5월
시공기간	2000년 5월 ~ 2001년 9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대로를 벗어나 정릉골의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진입로를 따라 한참을 오르다 보면 언덕 위에 자리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본원과 마주하게 된다.

대지의 서쪽으로 멀리 국민대학이, 가까이는 초등학교와 주택들이 인접해 있어 주위가 시뭇 어수선했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수녀원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수녀원 뒤로 힘차게 솟아 있는 북한산의 연봉과 주변을 둘러싼 녹음의 푸르름은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본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건물들이 어우러져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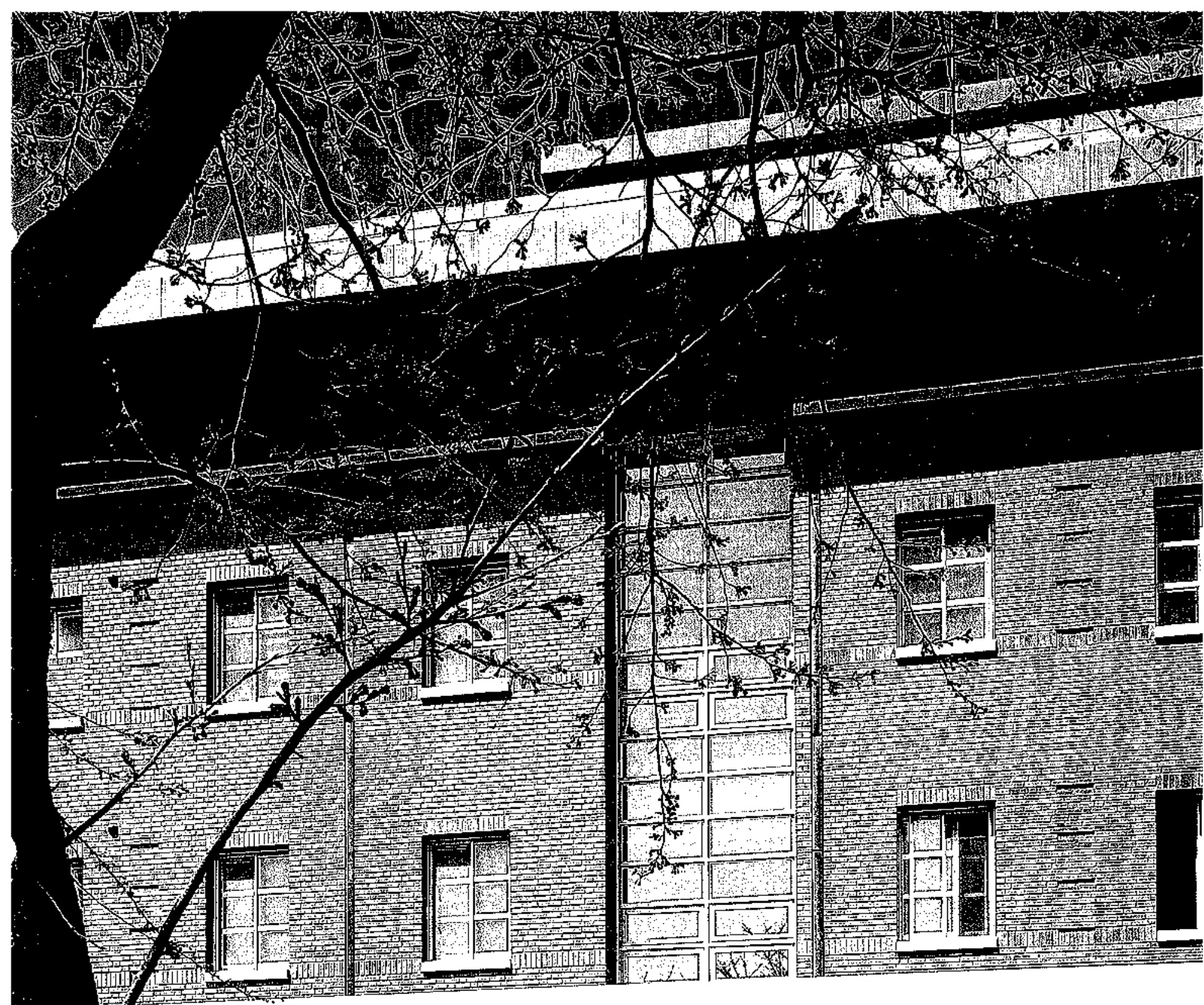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도시가 그렇듯이, 이곳 역시 건축의 시간적 간극으로 건물들간의 디자인 언어가 조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을 수녀님들과 함께 해 온 수련원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라, 그곳에 대한 '해착과 추억'은 새로운 공간에 투영되어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 형성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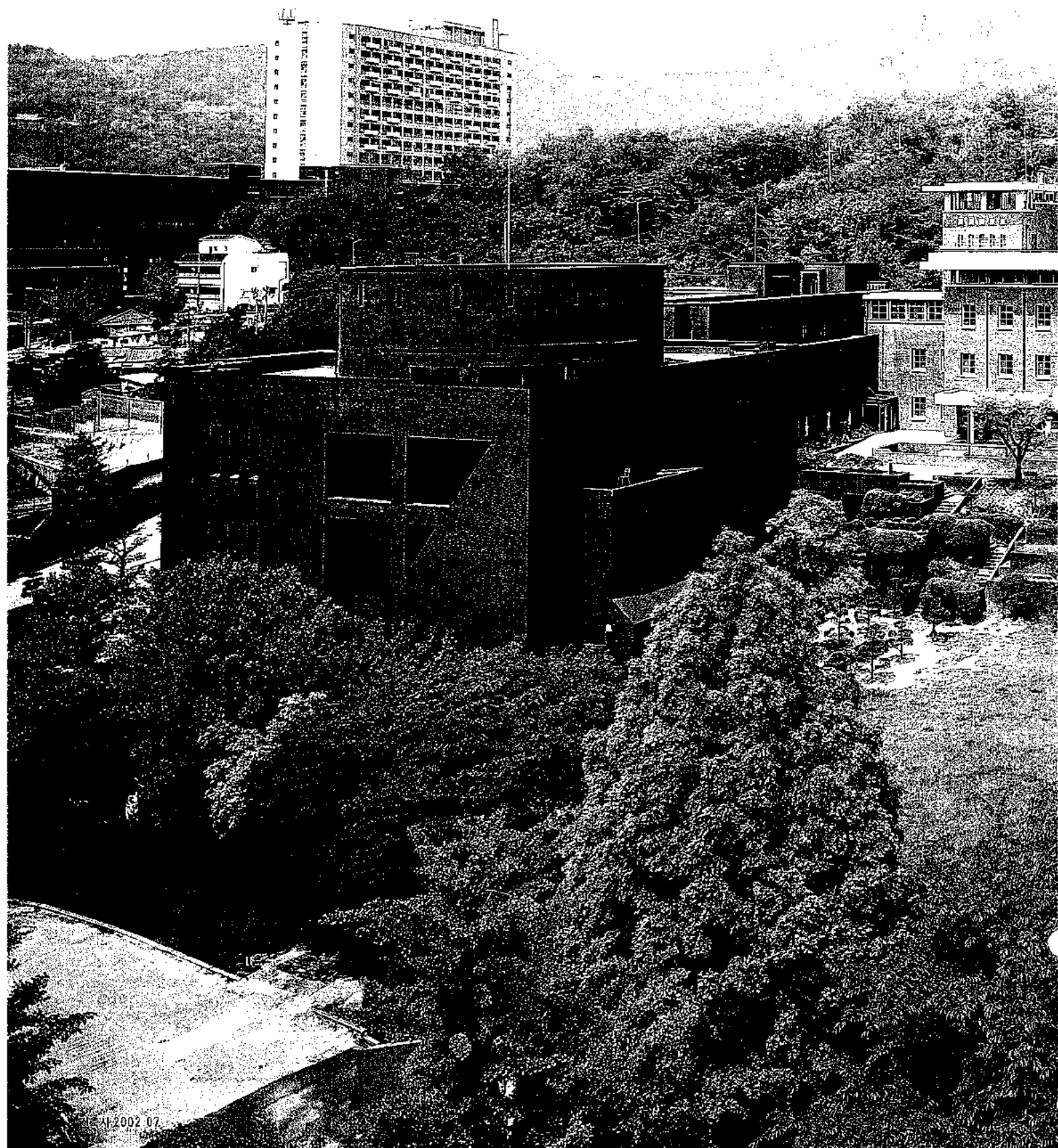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디자인 언어와 공간에 대한 기억

은 이 작업의 과제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다가왔으며, 이를 통해서 기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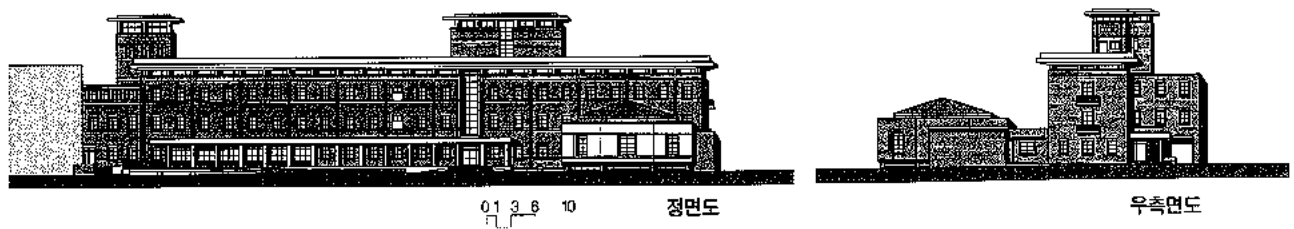
본 수련원은 지형의 고저차에 따른 기존의 배치를 수용하여 지금까지 형성된 동선을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른 동선을 도입하였다. 각 층의 평면은 3.0m X 3.6m의 모듈을 기본으로 계획했다. 지하층에는 세탁실과 재봉실 등을 배치하고, 좌우로 sunken을 두어 쾌적한 실내환경을 부여한다. 1층은 식당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public한 개념으로, 2·3층은 침방과 부속실 등의 private zone을 형성하여 기존 수녀원의 각층의 공간성격과 일치하도록 했다. 기존 수녀원과 본 수련원의 연결 통로는 '빛의 열리고 닫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단순한 공간적 전이를 넘어 심리적 전이를 이루게 하고, 정면의 회랑과 주 출입구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도록 고려하였다.

수련원의 mass와 입면계획은 기존 건물과 주변 경관의 skyline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mass는 수직적









인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난 기존 건물에 비해, 수평선을 강조한 수련원 부분과 팔각형의 도서관 부분으로 계획하여 균형을 맞추고, 정면의 흰색 회랑으로 수평적인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여, 건물에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밝은 톤의 적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해 건물의 중량감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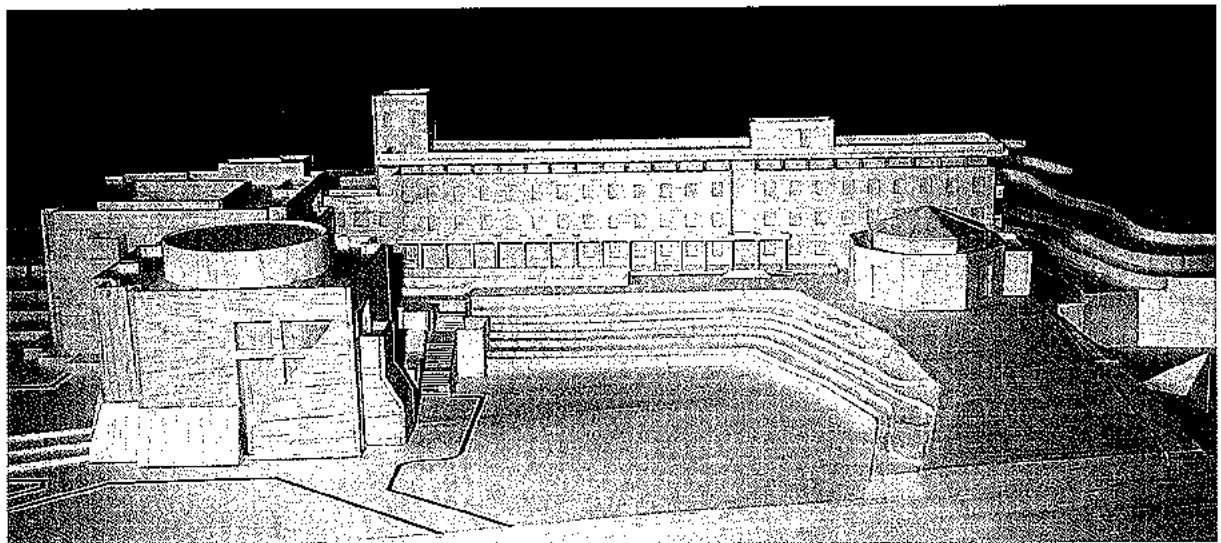
입면은 기능에 따른 공간과 mass감을 그대로 살려 소박하게 구성하고, 형상화 된 처마와 도서관 부분의 팔각지붕으로 한국적인 건축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한국 교회 수도회'의 맹아(萌芽)인 본 수련원의 정신을 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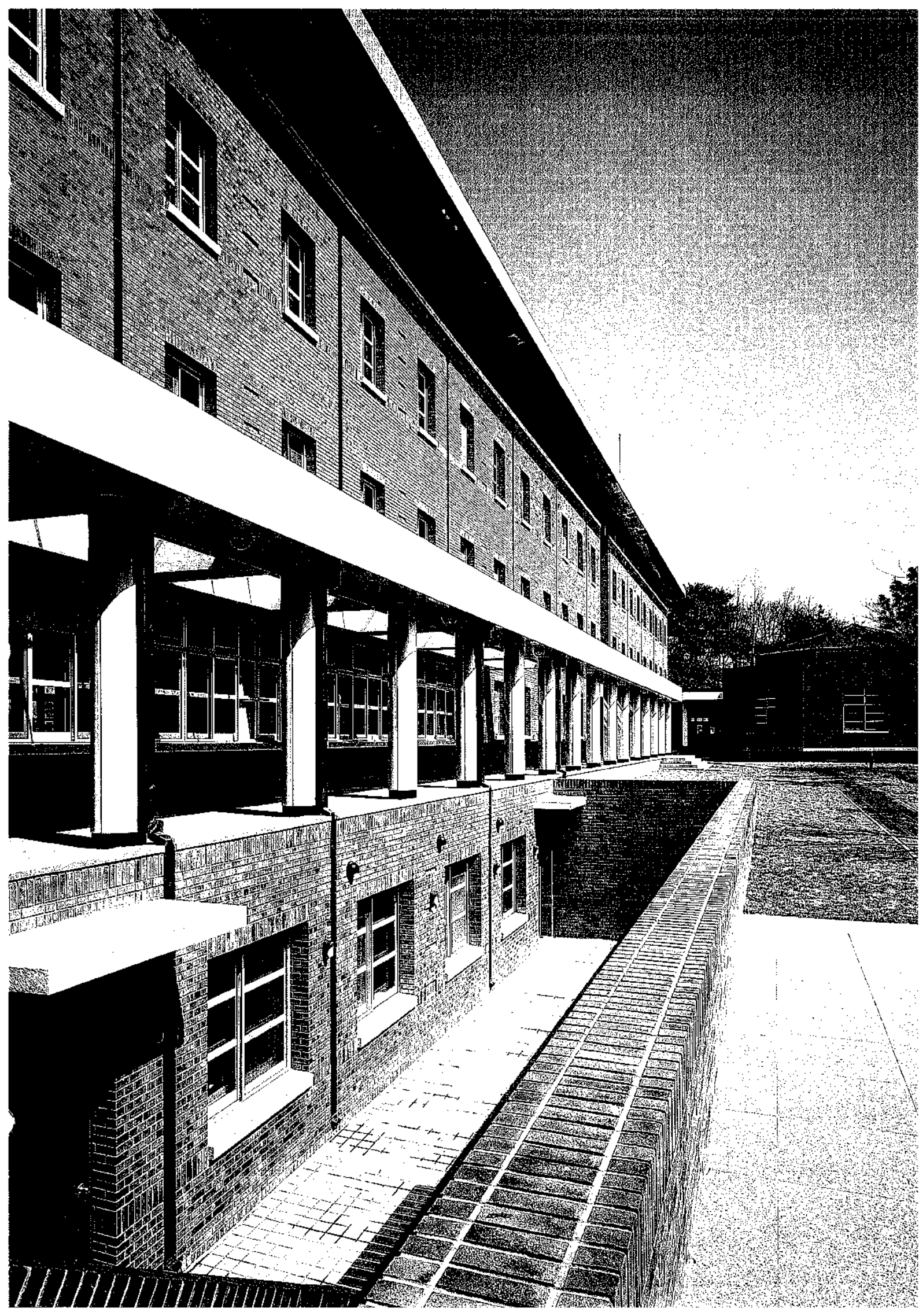
그러나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skyline에 많은 제약이 가져왔다. 진입로도 경사가 심하여 뒤로 펼쳐진 북한산의 능선이 가려지는 등, skyline에 대한 부분은 이 작업의 아쉬

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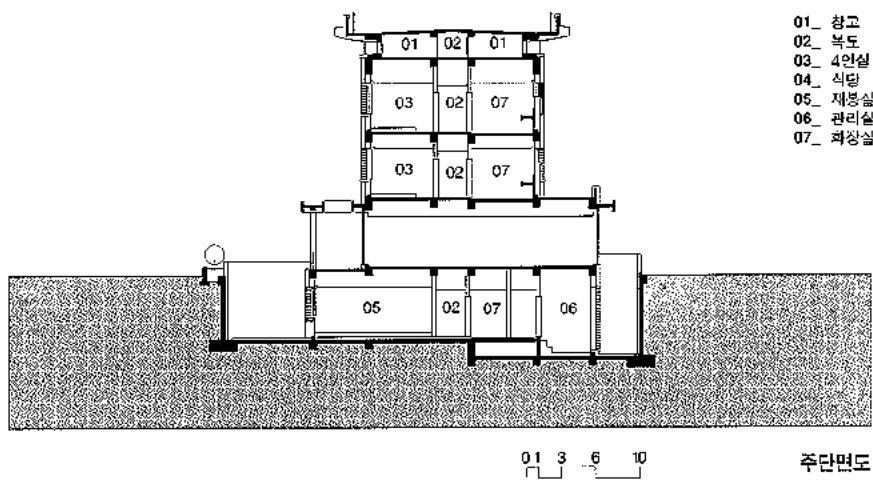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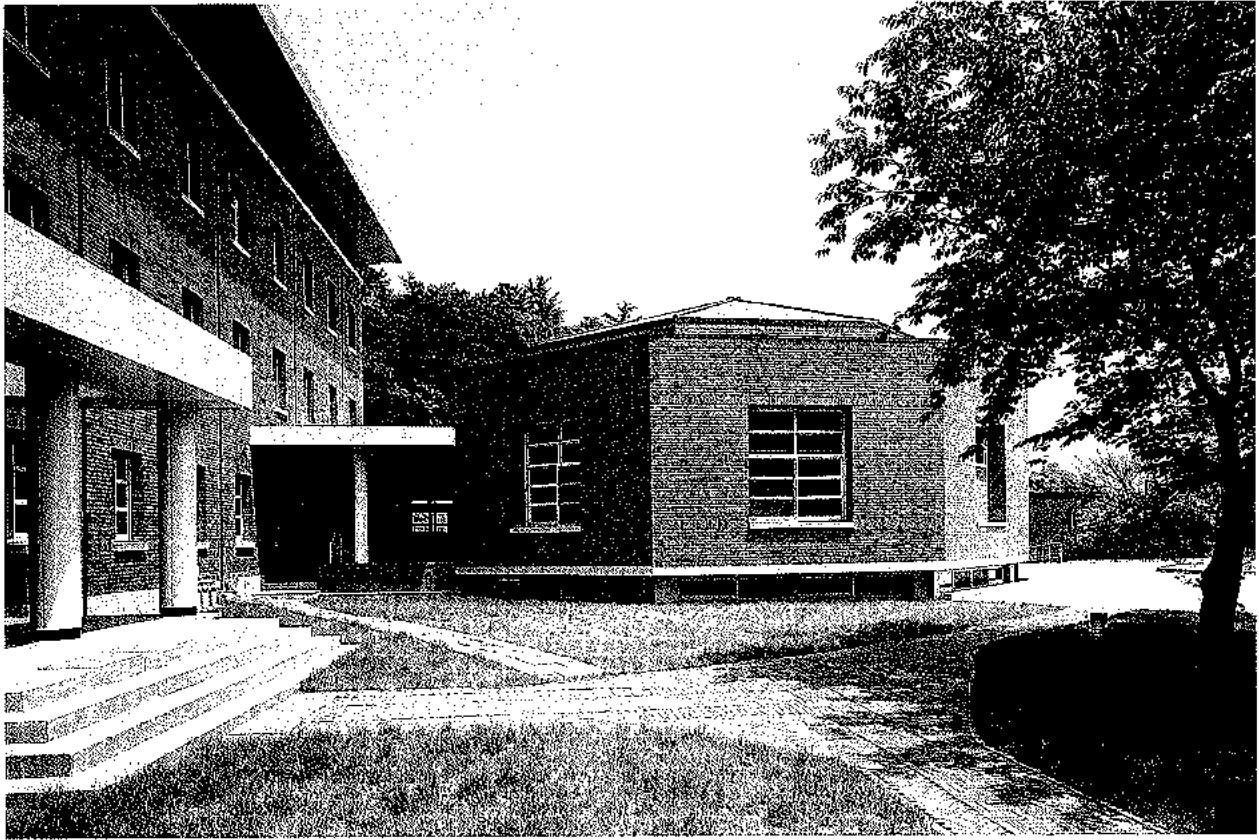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 건축물들의 '디자인과 기억'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으나, 시간의 흔적이 교차하는 곳에서의 건축에 임하는 건축가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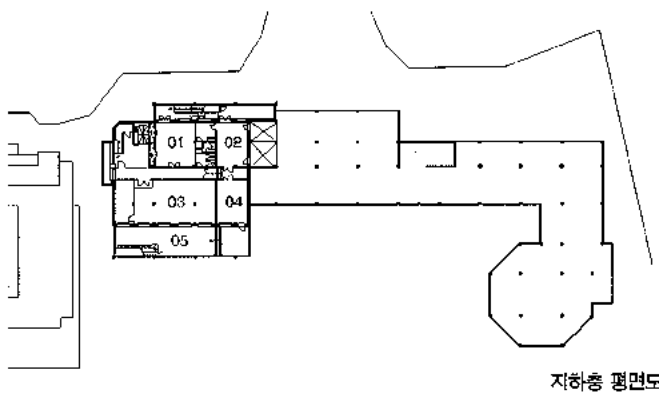
이렇게 건물이 무사히 완공되기까지는 정성어린 기도와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수녀님들과 성실한 시공과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러한 정성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하느님의 공간을 건축함에 미력하나마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온누리에 하느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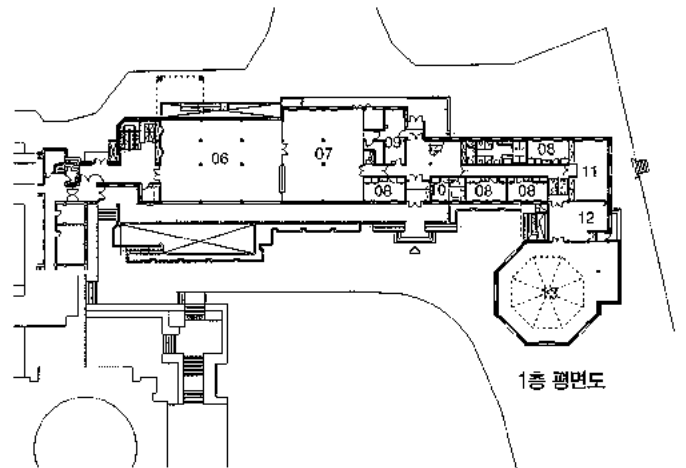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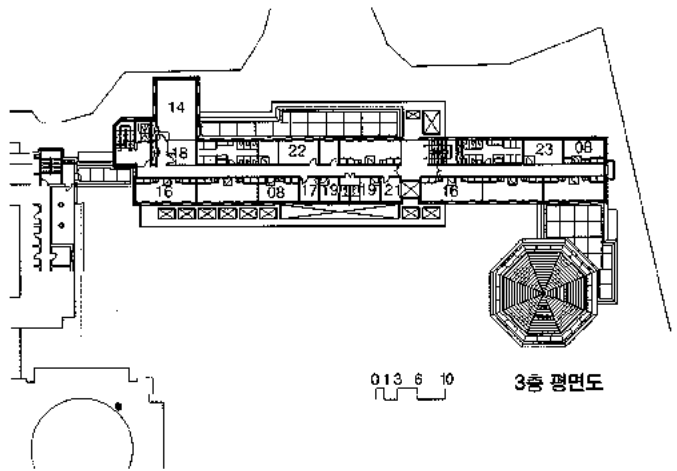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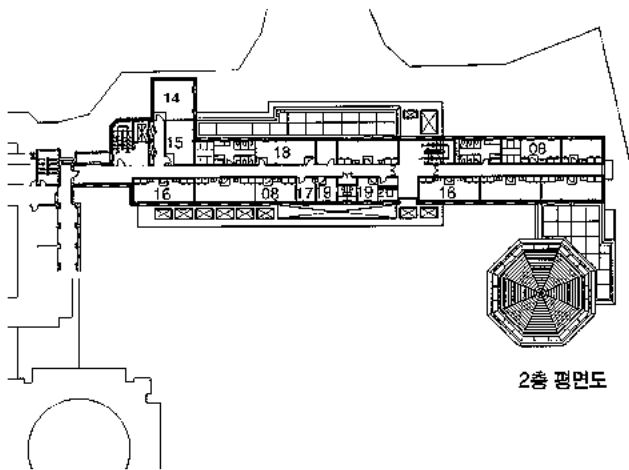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 01_ 세학실 | 09_ 손님식당 | 17_ 보좌수녀 사무실 |
| 02_ 기계실 | 10_ 객실 | 18_ 공동실(소) |
| 03_ 재봉실 | 11_ 교실 | 19_ 침실 |
| 04_ 전가실 | 12_ 사무실 & 목록 및 대출실 | 20_ 수련장수녀 사무실 |
| 05_ 산문 | 13_ 도서실 & 서고 | 21_ 정원장수녀 사무실 |
| 06_ 식당 | 14_ 공동실(대) | 22_ 지도자 회의실 |
| 07_ 주방 | 15_ 기도실 | 23_ 공동실(중) |
| 08_ 3인실 | 16_ 4인실 | |



한국재활복지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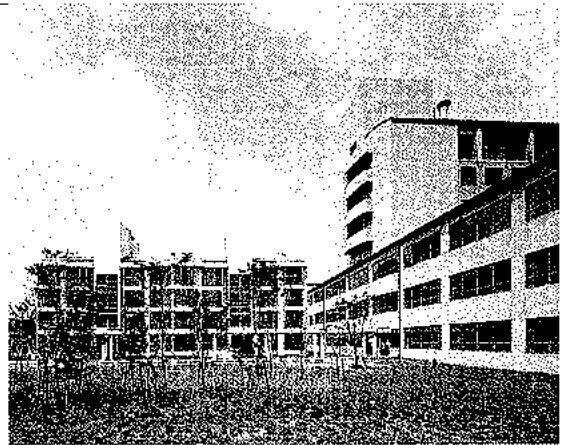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진균

Designed by Lee Young-Hee, Jeong Young-Kyoon + Kim Jin Ky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5-3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학교용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90,223㎡
건물규모	지하1층(기계실,전기실), 지상 7층
건축면적	6,895.52㎡
건폐율	7.64%
연면적	22,330.40㎡
용적률	23.75%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주차대수	육외 : 117대(장애자용 38대포함),
외장	법정대수 : 75대(300㎡당 1대)
재료	50mm 외벽 단열 시스템, 16mm 복층유리, 0.6mm 아연도 강판
설비	F.C.U + A.H.U (냉,난방 설비)
정화조	오수정화조(1309인용), 합병정화조(5인용)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김재경)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전문대학 설계이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의 설립배경과 그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시 재활복지대학의 설립취지와 주변과의 조화, 건축적 아름다움 및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그 중 설계 시 가장 중점을 두어 계획했던 부분은 대학본부와 전산소, 체육관, 강당, 학생회관 등의 지원시설, 기숙사, 강의/실습실, 도서관 등의 건물군이 각각 제기능을 발휘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사진 부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모든 건물이 동일 레벨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리한 동선을 위한 시설군의 배치로 대학본부 하부의 필로티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한 두 개의 중정이 생성되었다. 두 개의 중정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건물의 성격에 맞게 학생회관 앞마당이 되는 북쪽중정은 옥외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도서관 앞마당의 남쪽 중정은 조용한 분위기의 정적인 중정으로 계획하였다.

계획의 기본원칙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대학임을 고려하여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에 만족하면서 주변과의 조화, 건축적 아름다움 및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학사계획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 생활 및 생활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교지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보지를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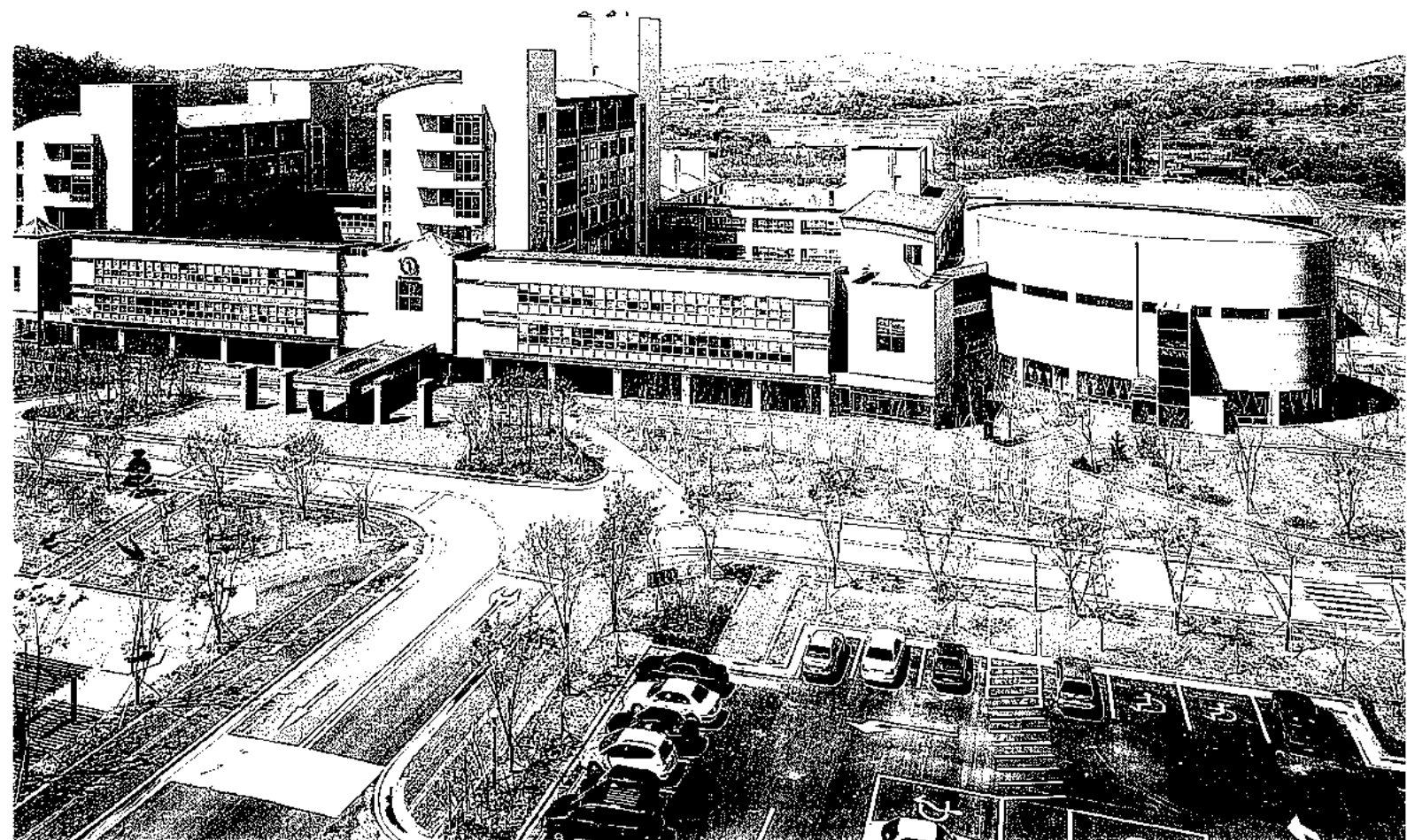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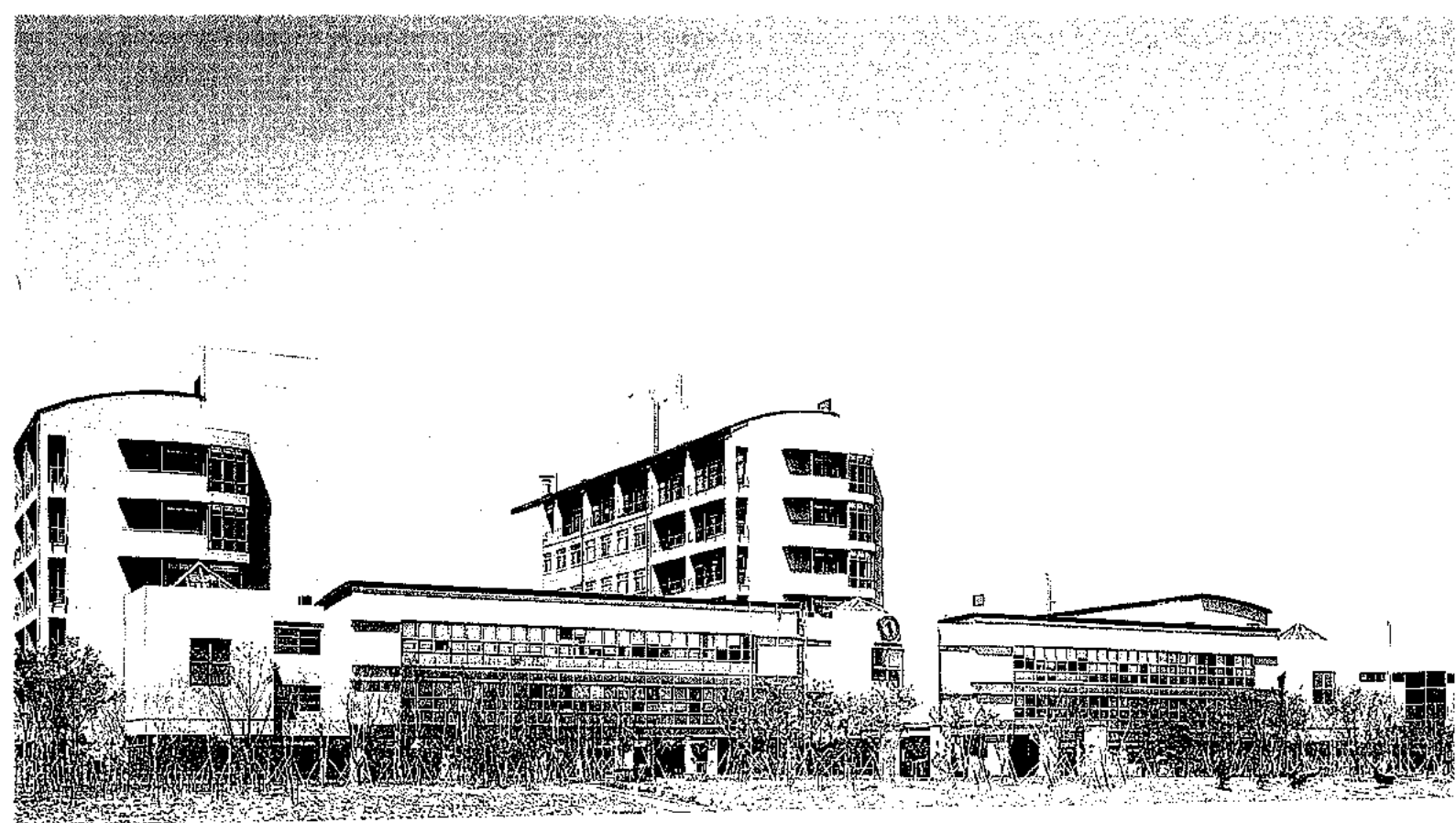
시설공간의 공동활용을 유도하여 활용율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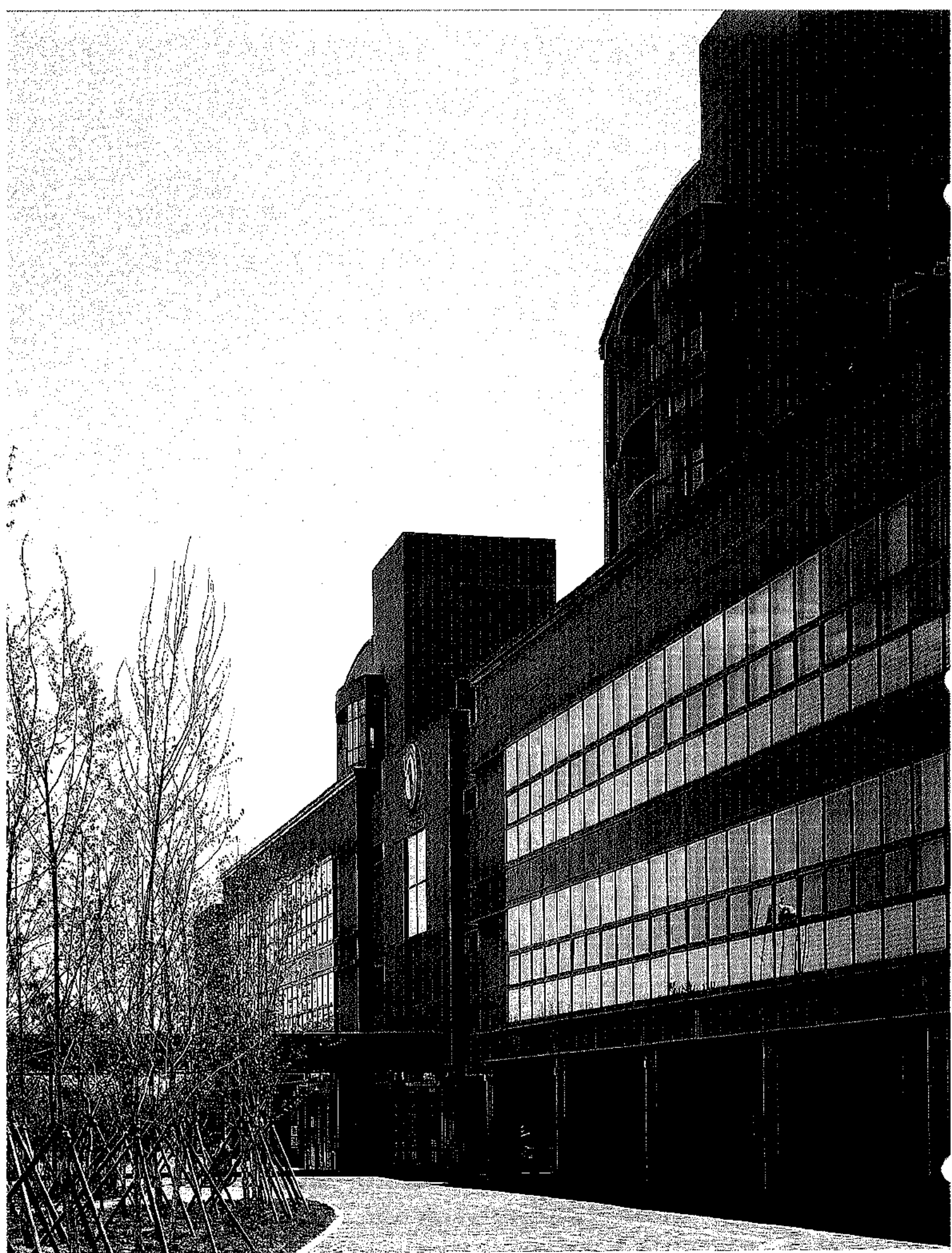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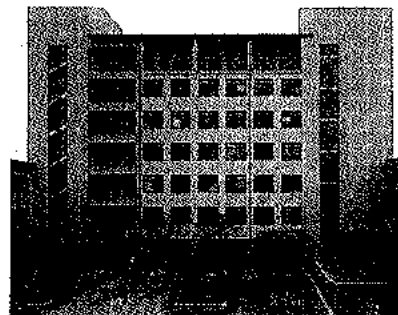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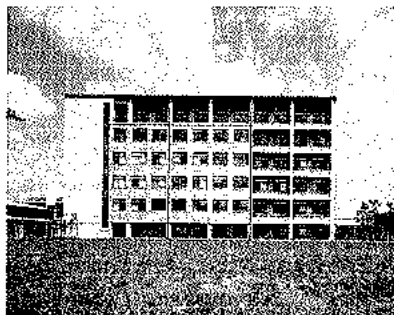
장애자 시설 특수 계획

한국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 학생들이 지닌 장애를 보상할 수 있는 특별 시설과 기자재가 설치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 시각 장애영역의 시설 : 교통안내시설, 점자도서출판실, 생활적응훈련실, 요철바닥, 점자블럭, 점자안내도, 조명시설, 핸드레일







· 청각장애영역의 시설 : CATV 시설, 음성분석실, 청능언어훈련실, 음향영상실, 청력검사실

· 지체 부자유영역의 시설 : 휠체어 책상, 경사로,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엘리베이터, 인공지능 감지실, 감각 운동기능 훈련실

· 공통 시설 : 시청각 교육실, 정보처리실, 방송시설, 보건관리시설, 재활과학센터,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상기와 같은 시설들을 충실히 갖추어서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입면 계획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기본구조가 철골구조로서, 입면의 구성은 조적조의 무겁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기본적인 외벽재료로는 외단열 시스템 패널, 금속제 패널, 커튼월을 채택하였다.

대학본부/전산소는 사무기능이 주요 기능이며, 상주공간이므로 실내 환경을 고려하여, 커튼월을 외장재료로 채택하였다.

강의/실습동은 외단열 시스템 패널을 주요 외장재로 선택하고, 일부 금속제 패널을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식당은 전면 유리커튼월을 채택하여, 실내를 밝게 계획하였으며, 강당의 외벽은 강당의 특성상 창을 적게 계획하고, 주로 외단열 시스템 패널을 주요 외벽재료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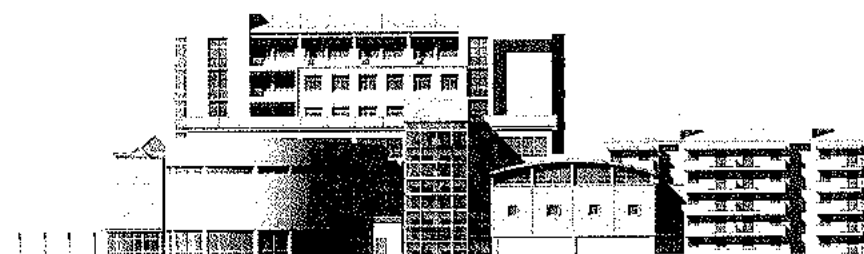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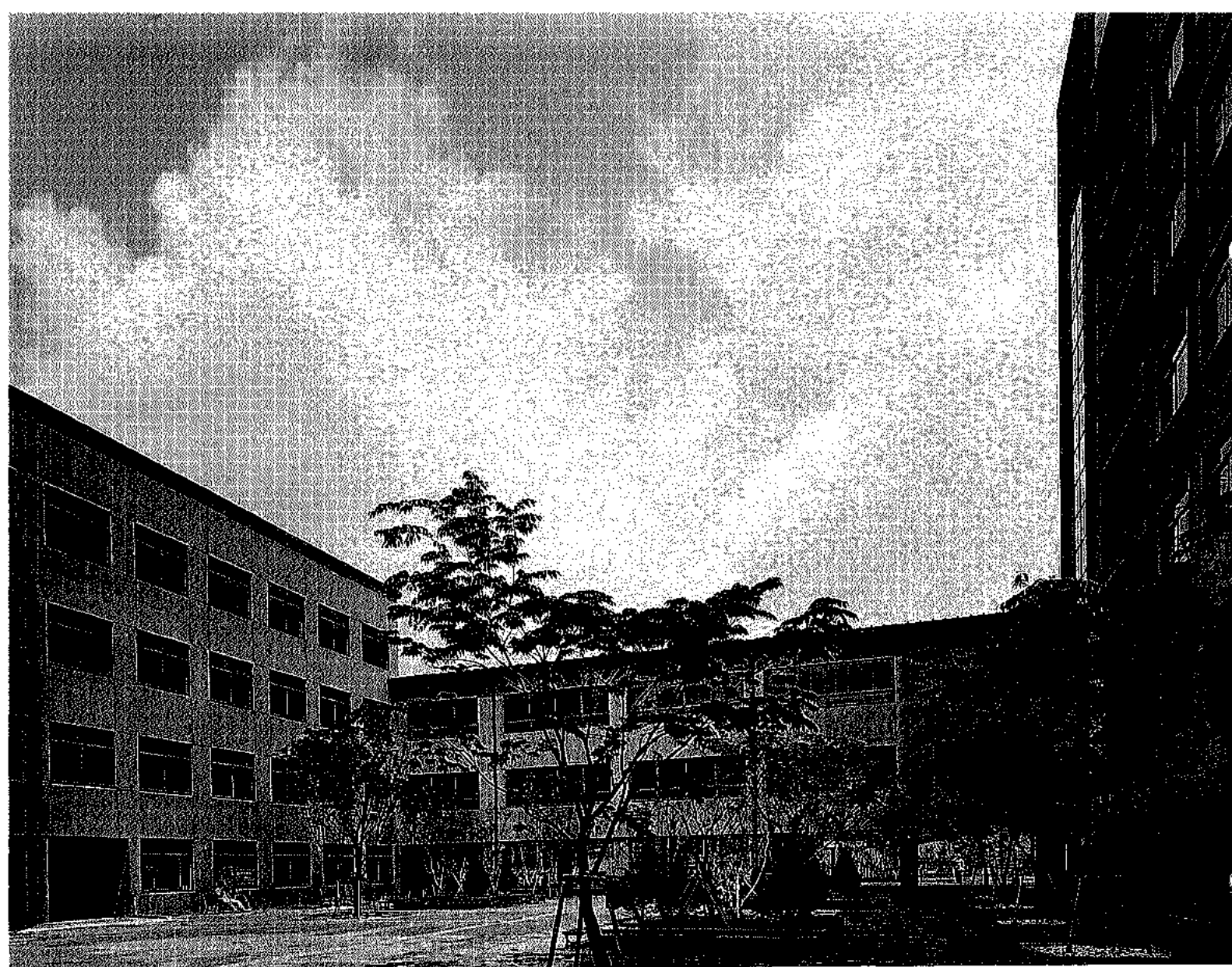
가숙사는 기본구조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외벽재는 콘크리트 마감위 페인트로 하여, 공사비의 절감을 기하였다. 아파트의 단조로운 입면을 발코니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변화를 유도하였다.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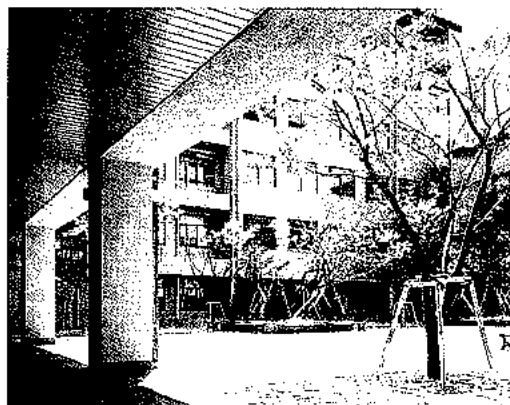
한국재활복지대학의 부지는 경사지이지만, 사용자의 대다수가 장애인을 고려하여, 인공적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모든 건물이 동일 레벨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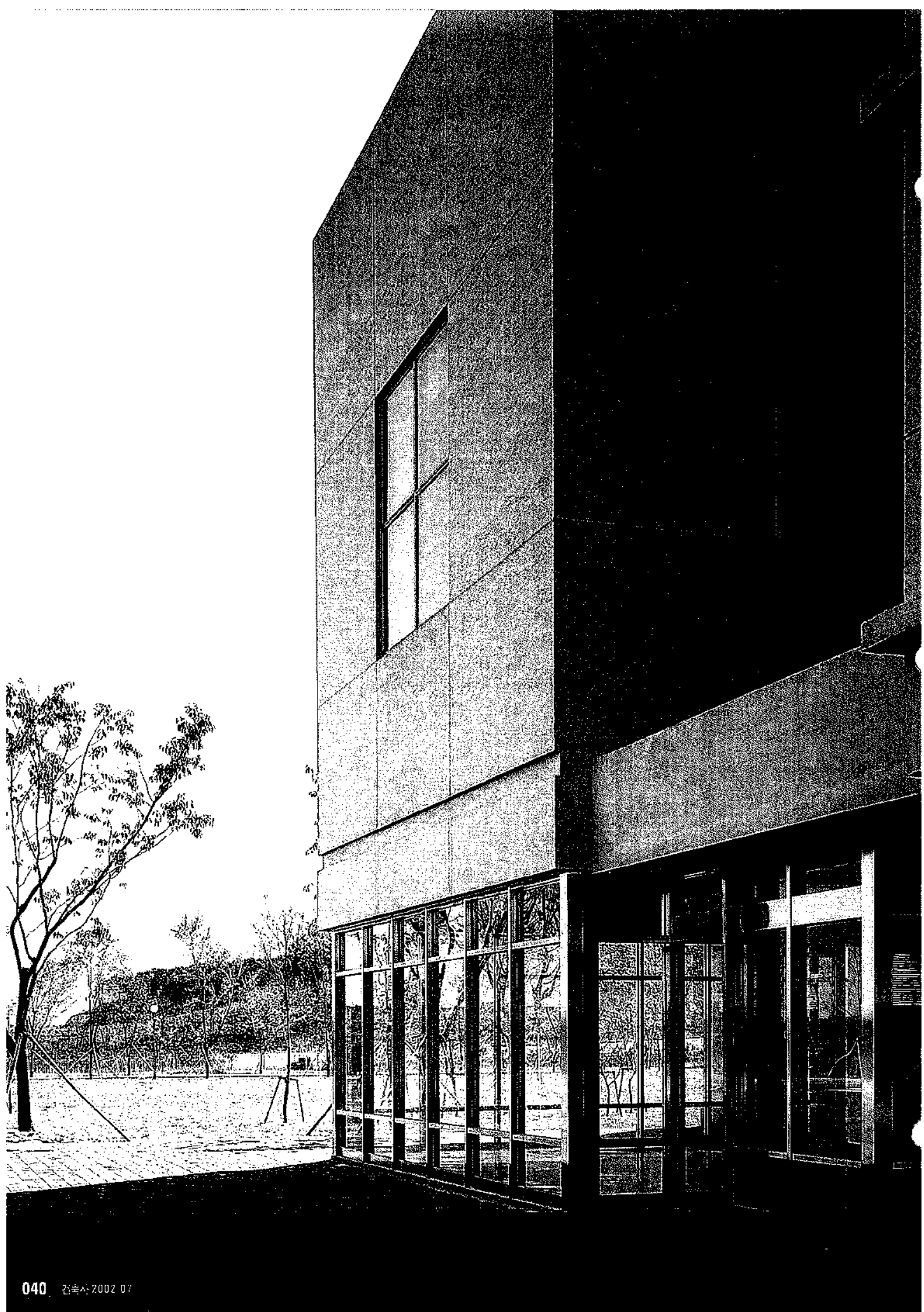
기준층고는 3.8m이며, 천장고는 2.8m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강당은 3층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였으며, 식당과의 사이인 2층에서 경사바닥을 처리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식당의 천장으로 계획하여, 대공간인 식당이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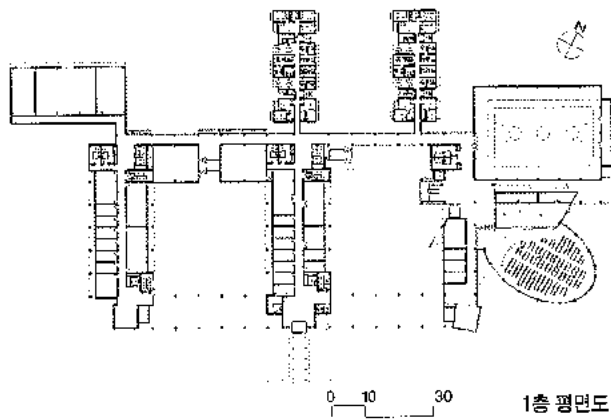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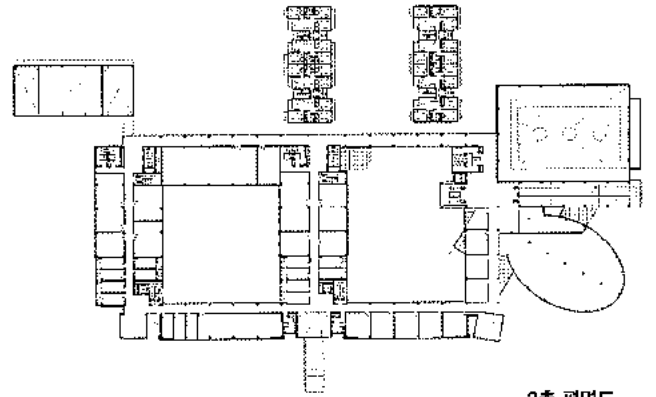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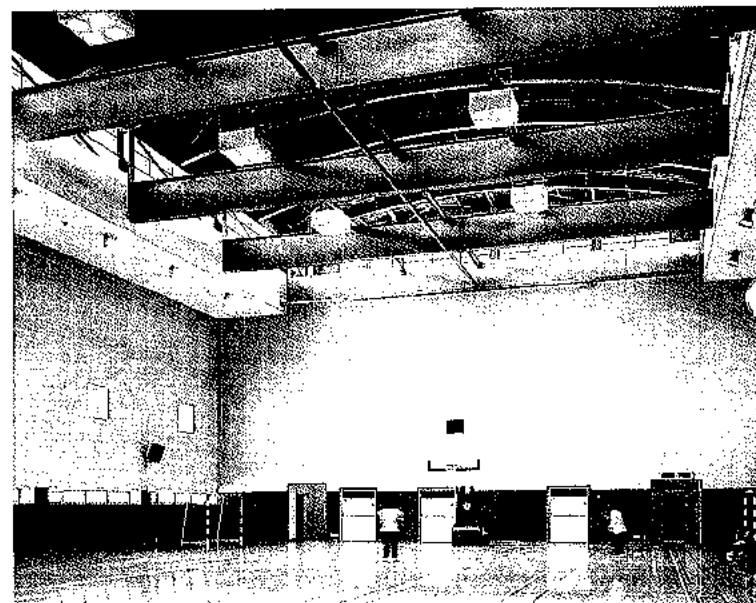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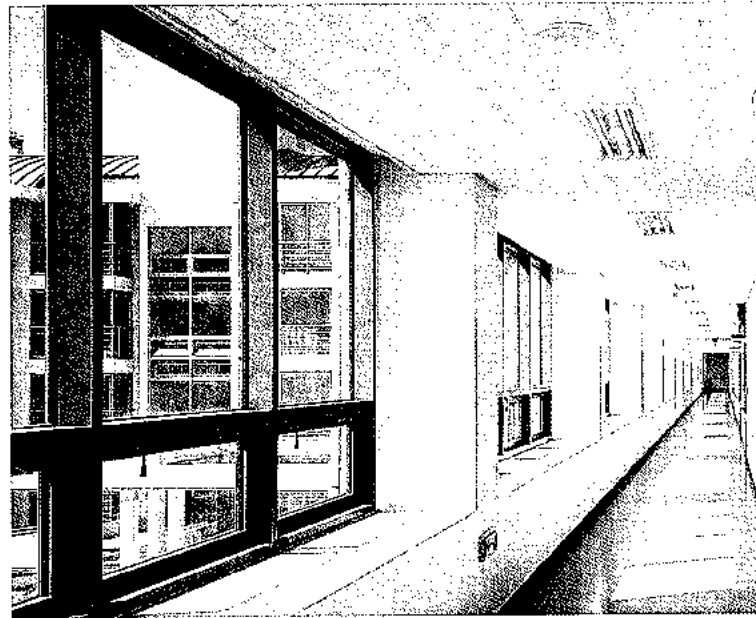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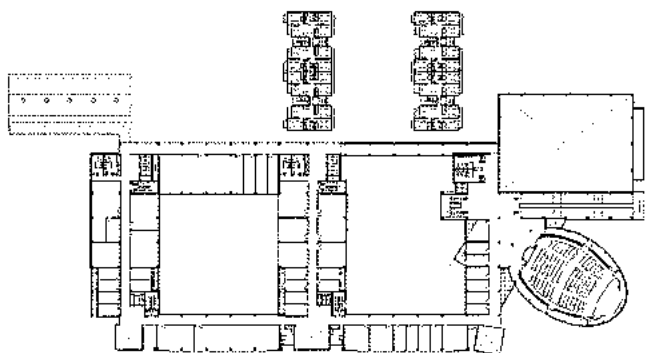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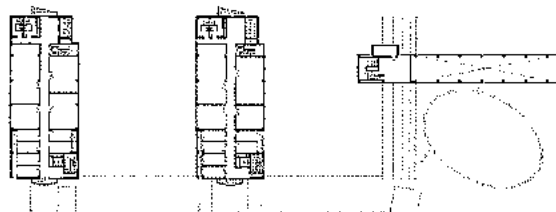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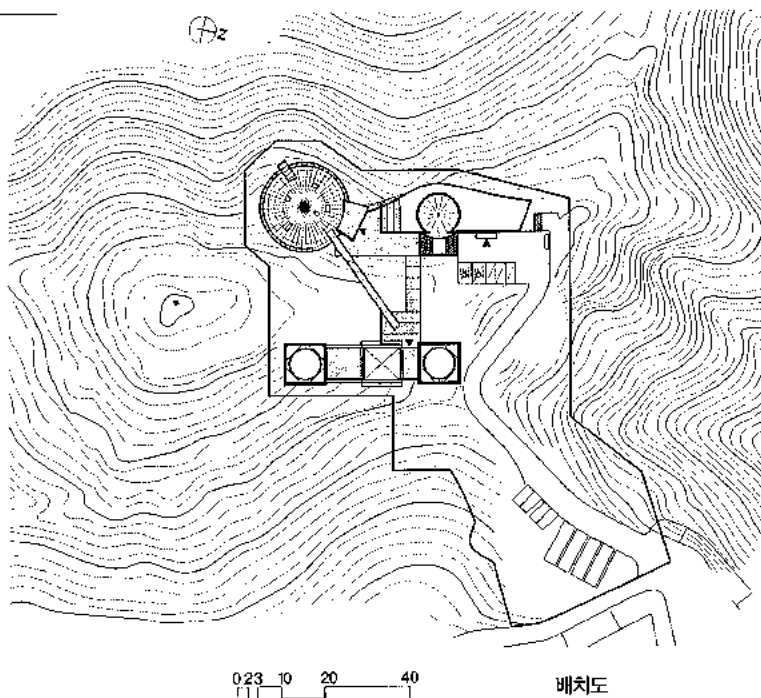
김해천문대

Gimhae Astronomical Observatory

이상림 · 강성인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Kang Sung-In

건축개요

위 치	경남 김해시 여방동 산2의 3번지 일원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 관측)
대지면적	6,042㎡
건축면적	1,083.76㎡
연 면 적	1,382.97㎡
건 폐 율	17.94%
용 적 륜	19.26%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THK18 컬러복층유리, 스테인레스쉬트점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마감
구조설계	원우구조
설 비	삼영MEC
전 기	공간ENG
시 공	대저토건
감 리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박윤석, 홍석중, 박상현, 김성현, 윤현아
설계기간	2000. 3 ~ 2001. 1
공사기간	2001. 1 ~ 2002. 1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문정식)



천문학(astronomy)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좀더 자세히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는 1년이 365일과 1/4임을 알았다고 한다. 정착생활을 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기후의 변화 및 강의 범람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해답을 천체의 움직임에서 찾았다고 한다. 또 페니키아인들은 방향 결정을 위해 하늘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바이킹들은 북극성을 따라 항해를 하였다고 한다. 옛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올 때도 별,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하였다고 한다.

시민천문대

김해시는 밀레니엄사업의 일환으로 천문대건립을 추진하였다. 3년간의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천문대가 탄생하였다. 국내 세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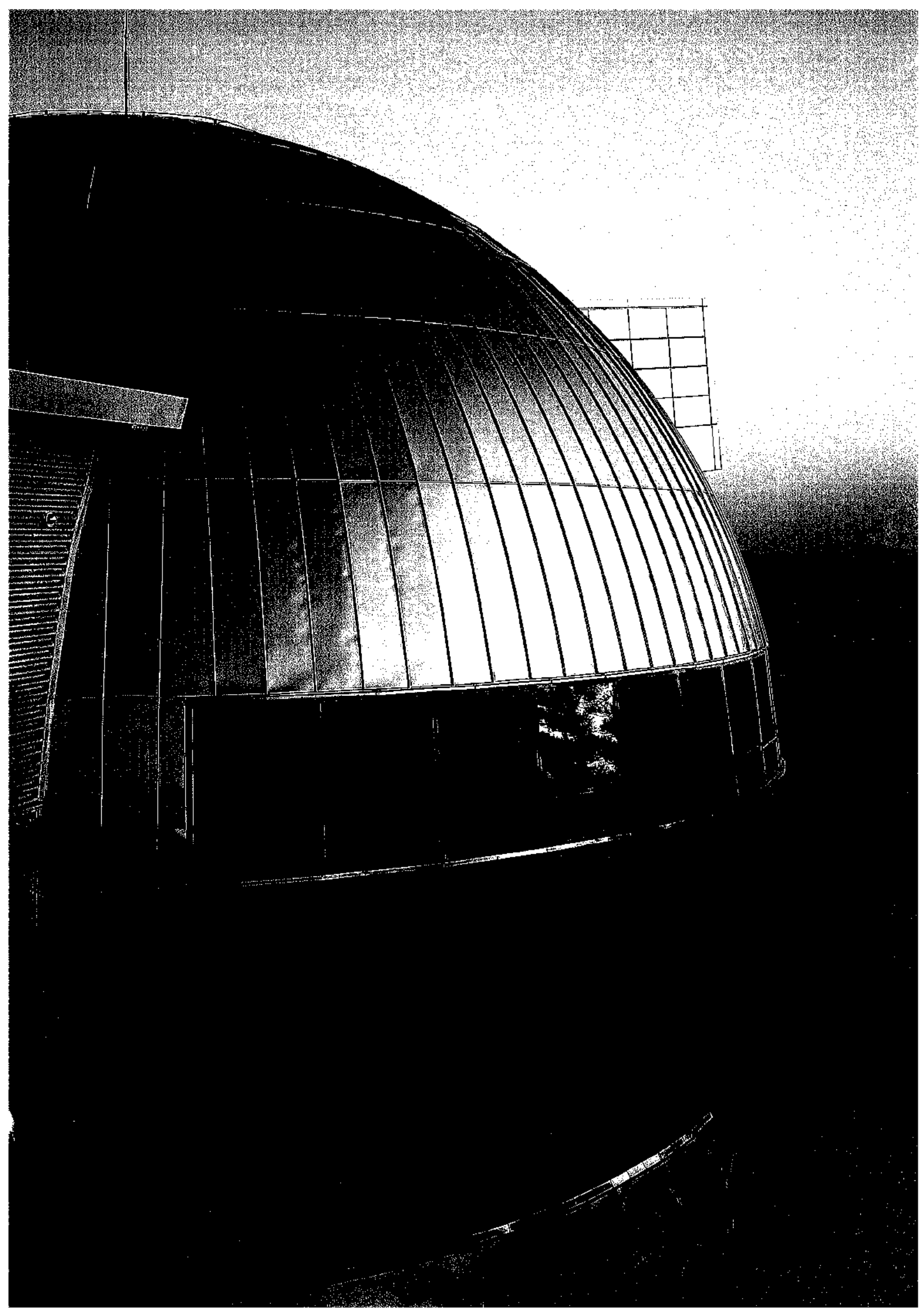
의 시민천문대이며, 영남지역에서는 최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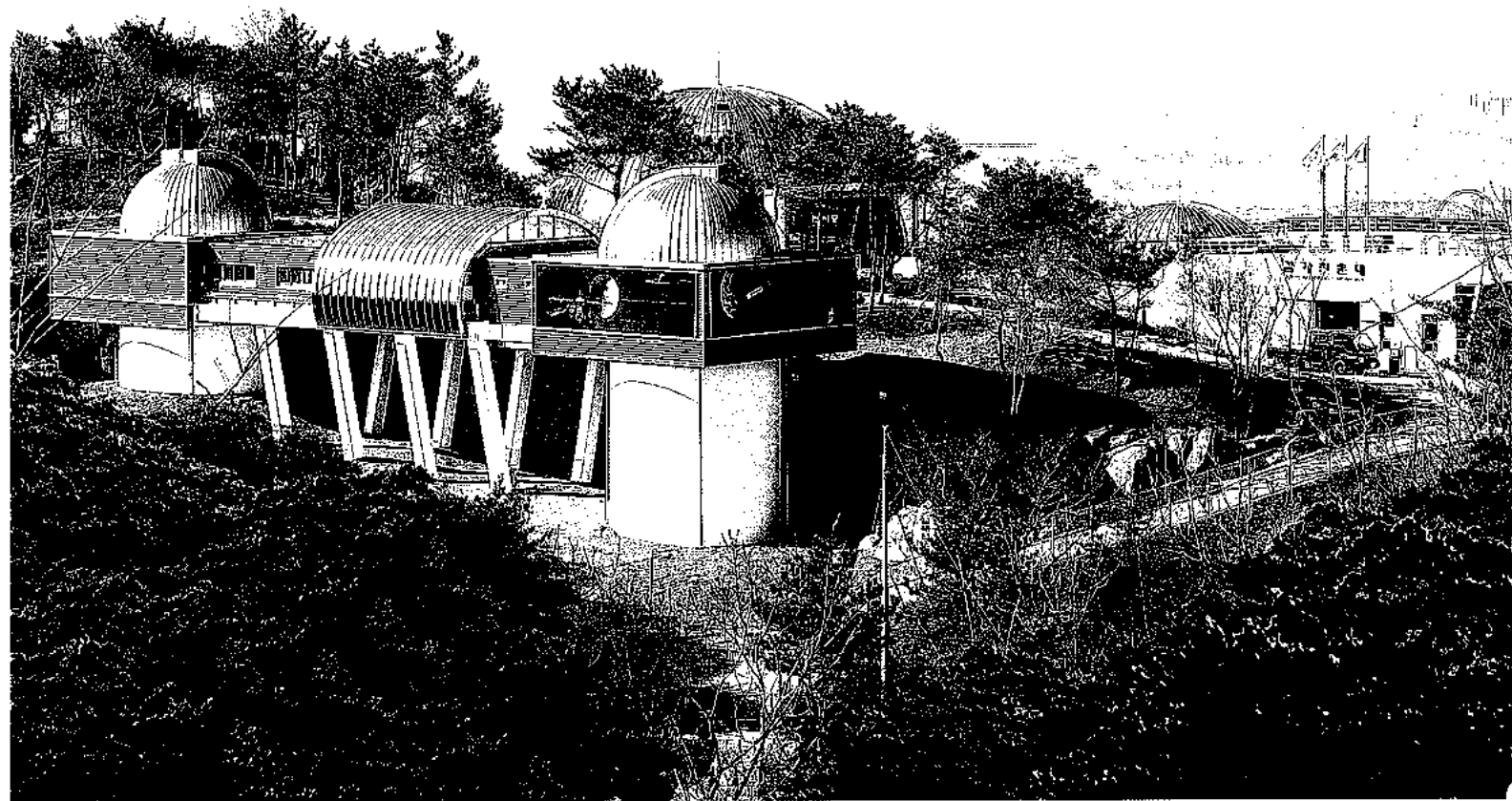
UFO(미확인비행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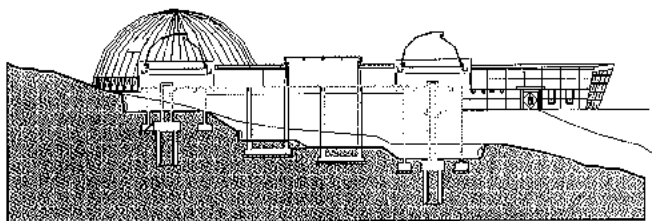
천문대는 분성산 정상에 위치한다. 김해 시내에서 누구나 산정상을 바라보면 은빛을 발산하는 구형체를 목격하게 된다. 마치 UFO가 내려앉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물체, 바로 이것이 별이다. 낮과 밤 하늘에 내려 앉은 별...UFO

축(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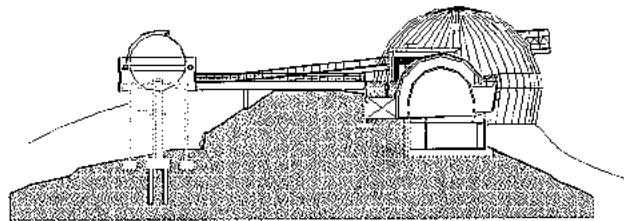
천문대가 가지는 지역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축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였다. 김해시에는 구지붕이라는 영명이 있다. 서남쪽으로 흘러내려 거북모양의 조그마한 동산으로 끝맺음한 해발 35M봉우리, 2000년간의 김해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구지붕, 구지붕과 김해시를 향하는 축을 천문대와 공유하고자 한다.







횡단면도



01 5 10
0.5 2 종단면도

MASS

두개의 볼륨을 가진다. 전시부분과 관측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있는 계획대지 위에 안착된 매스는 자연에 순응하는 인공체임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로 야간에 이용되는 관측동의 위치는 동쪽으로 배치하였다. 이것은 관측시설의 관측각 및 김해시내에서 발산되는 빛을 차단하여야 된다는 명제를 풀어가는데 명쾌한 해답이 되었다.

건축가는 천문관측이라는 기능적인 논제를 풀기위해서 최상의 관측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별따르기

제2주차장에서 천문대까지는 150M 정도의 산책로가 열려 있다. 우주로의 초대를 받은 이를 마치 빨아올리듯 강한 MASS의 형태가 관람자를 강력하게 유도한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전시동에서 시작된다. 해발 365M의 진입되는 전시동으로의 연결은 천문대의 시작과 동시에 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부로의 동선은 하나의 시퀀스를 가진다.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주출입구에서 시작된 동선의 시작은 다양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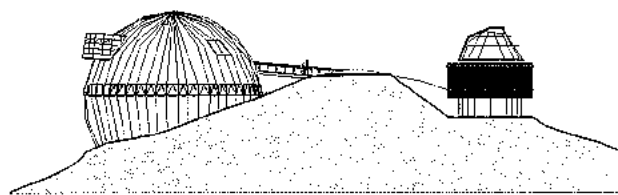
간의 체험으로 전달된다. 전시동의 공간들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을 가지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확장 수축하며 여행자에게 많은 공간적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우측전면에 펼쳐지는 커튼월의 칼라복층유리창은 또 다른 대화를 유도한다. 동선은 전시구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금속의 구체를 만난다.

구체공간속 가상공간에 발들을 투영된다. 플리네타리움(천체투영실)에서 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여행자는 좁게 돌아가는 전시동의 끝에 도달하게 되고 내려간 램프 위로 직경20M의 또 다른 천구를 접하게 된다. 바닥층에서 휴게실까지 램프로 연결되며 관람자는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끌어 올려진다. 마치 행성이 은하계의 행성을 여행하듯 원형의 궤도는 강한 자취를 남겨주기에 손색이 없다. 전시구에 설치된 다양한 학습체험들(별자리와 개기일식실험장치, 중력실험장치, 지구 자전의 증거)을 체험한 뒤 전망데크를 통해 외부공간으로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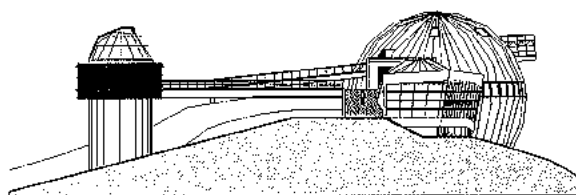
다시금 지구에 돌아 온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주와 별에 대한 허상에 대한 편향적인 체험이었다면, 관측동에서는 직접적인 조우(遭遇)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동선은 전망 테크에서 연결통로를 통해 관측동으로 쉽게 연결된다. 관측동에는 제1,2 관측실 그리고 보조 관측실이 있다. 제1 관측실에는



남측입면도



0.1 5 10
0.5 2 북측입면도

20cm 굴절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제2 관측실에는 60cm 반사 망원경이 보조 관측실에는 20대의 보조망원경이 설치되어 그간 천문 대가 가지는 특수한 패배성을 극복하였으며, 이것은 시민천문대가 나 아가야 할 미래상이 아닐까 한다. 그 어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는 천 문대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주라는 무한한 천구(天球)위에 펼쳐진 별들을 따라 여행을 하였다. 지금까지 시각적, 공간적 체험의 장이었다면 이제는 우주와 별 과의 감응에 의한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대화의 시작은 관측동데크에서 구지봉쪽으로 연결된 길게 뻗어있는 산형에서 발견하게 된다. 웜홀(worm holes)을 통한 차원의 이동을 건축적 공간의 이동으로 구현하였다. 여행자는 긴 통로를 통해 별과의 시간여행을 한다. 서서히 들어올려지는 여행자는 마치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의 여행을 떠올리며 길게 유도된다. 이제 별을 관측하고 새로운 공간, 외부와 다른 차원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천구(天球)속 공간을 체

험한 여행자는 다시금 빛을 발견하게 되고 이질려 나오게 된다. 전망램 프의 끝에 서서 김해시라는 지역적 모태(母胎)와 별과 우주, 미지의 생 명체와 조우하게 된다. 여행자에게 우주로의 길 안내자이며 매개체로 써의 천문대가 된 것이다.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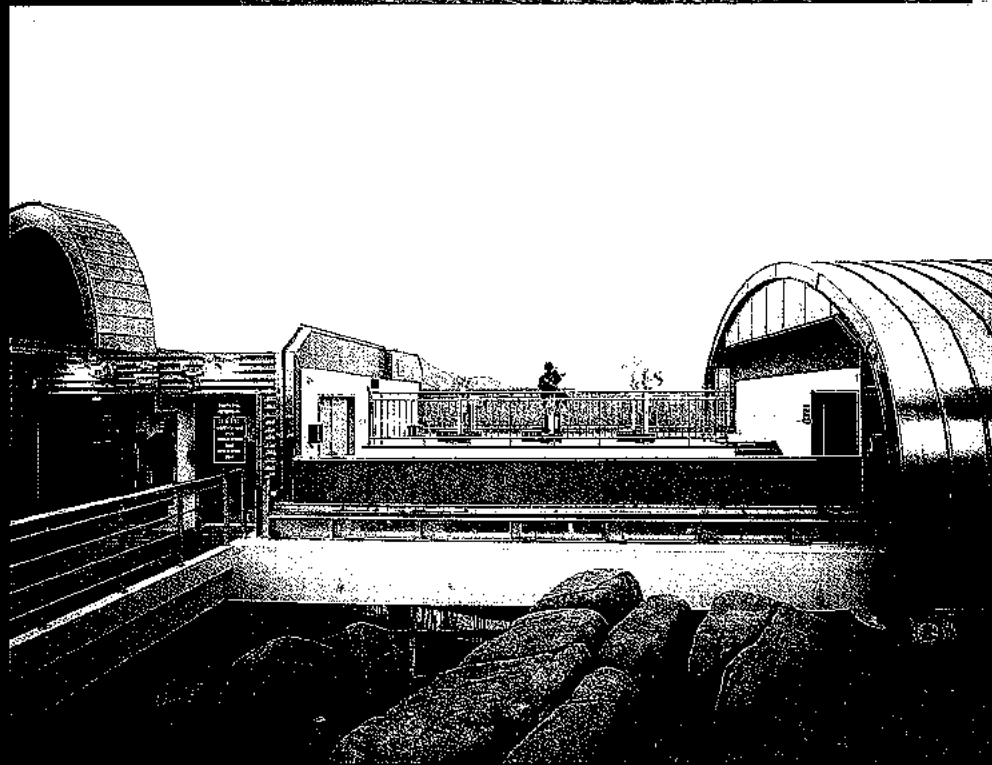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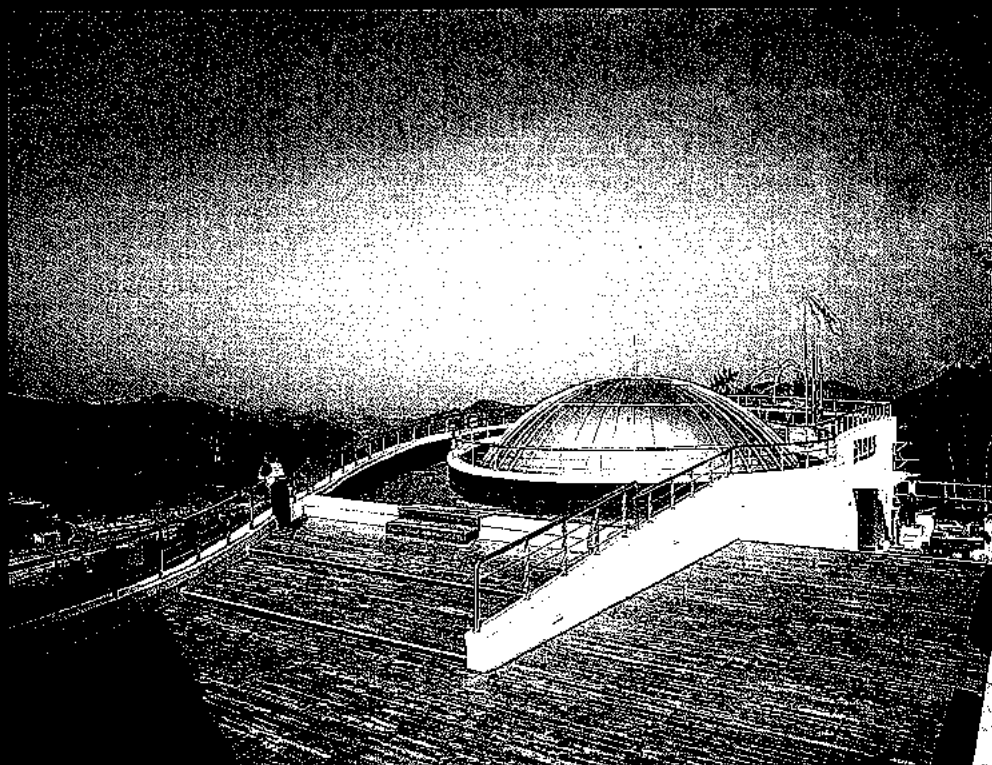
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 를 떠올리기도 한다.

무한한 우주공간에서 빛을 내는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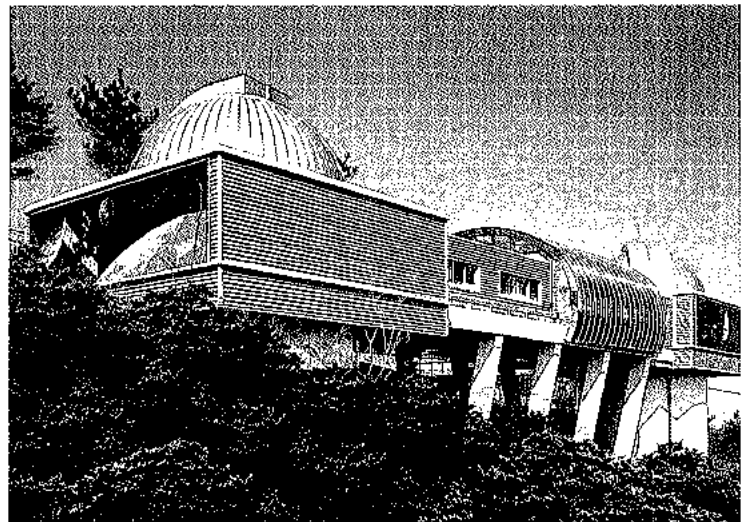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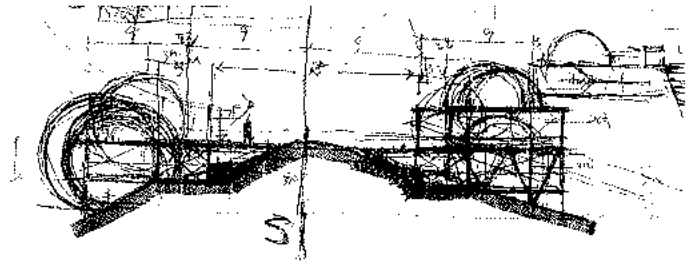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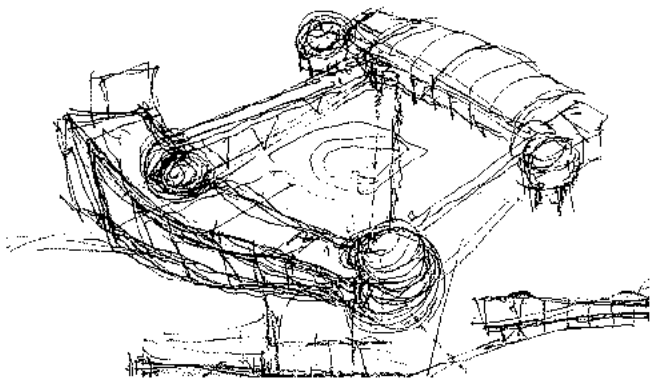
영화 '미지의 우주' '컨택트' 에서 보듯 외계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흥분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상에서 나를 찾 는 것을 꿈꾼다면 건축공간이 안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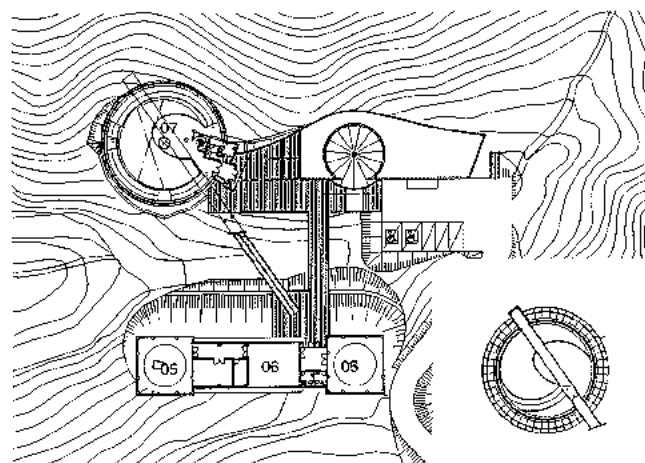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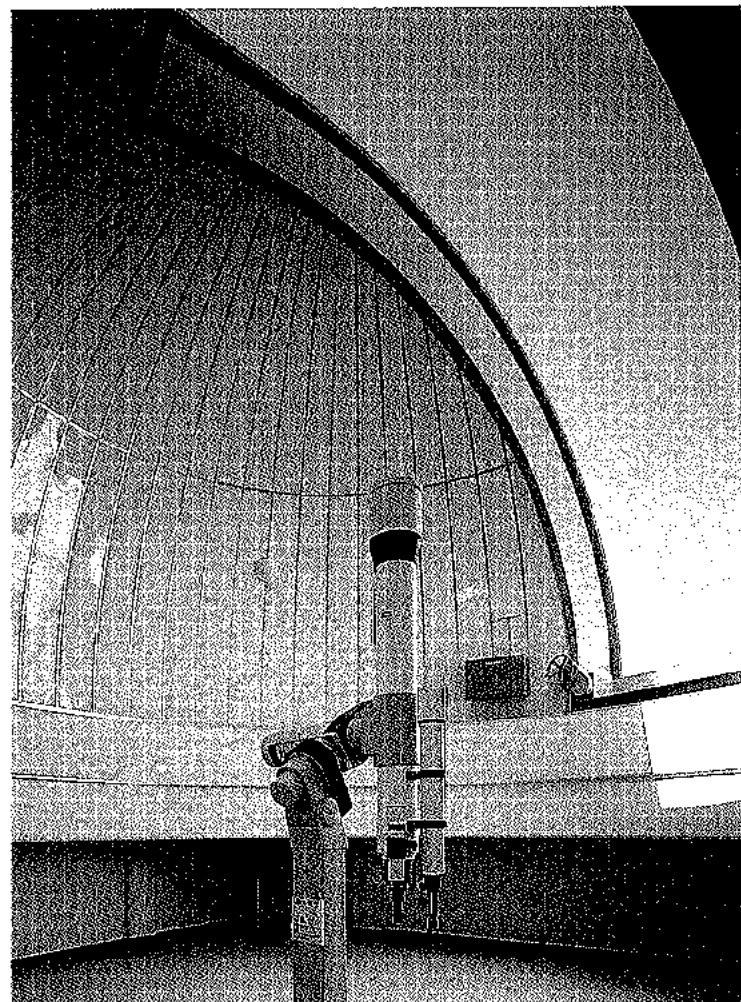
별을 따라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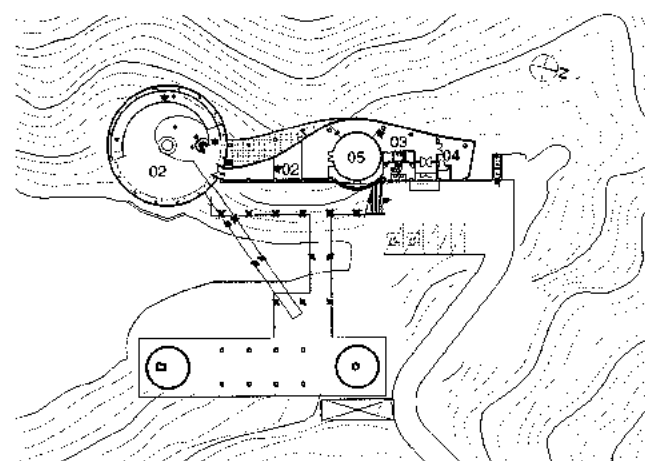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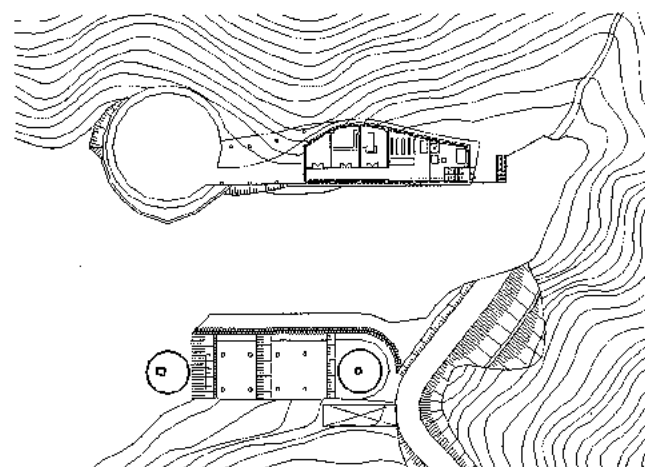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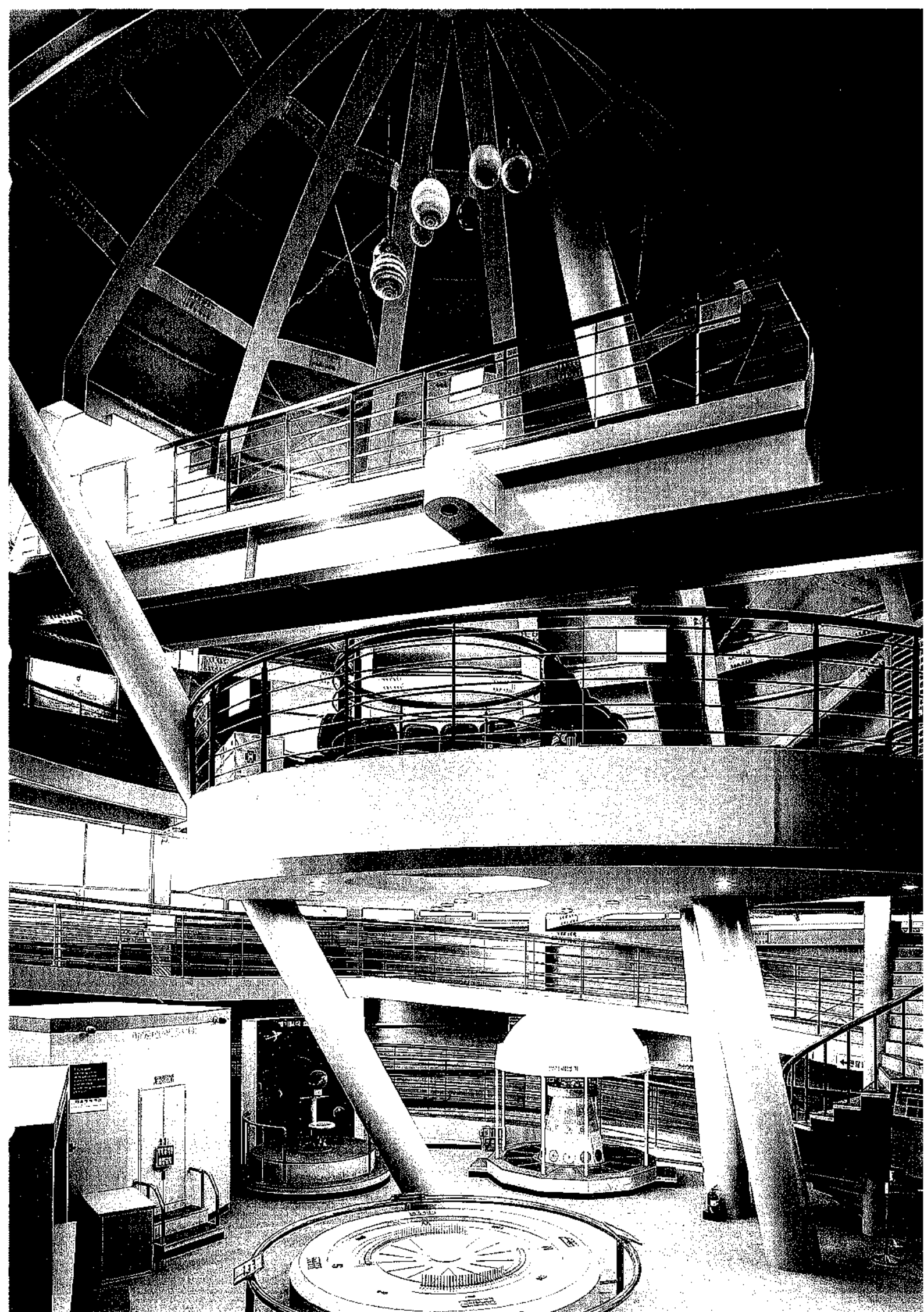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기계실
- 02_ 전사실
- 03_ 교비
- 04_ 사무실
- 05_ 천체투영실
- 06_ 관측실
- 07_ 보조관측실
- 08_ 휴게실



지하1층 평면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Standards for Architectural Design Service and Its Fee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의 필요성

경 위

건축사 업무에 따른 대가산정기준은 1963년 제정된 건축사법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고시되어 건축설계업무 등에서 활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법률 제5815호, 카르텔법)에 의해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련 조항인 건축사법 제26조(1999년 2월 5일)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2000년 5월 10일)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종의 가격협정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령을 개정하였다.

분제유발

이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따른 보수기준이 없어지게 되어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나아가서 건축설계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설계대가의 자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부실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의 질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계획수립이 어렵고 계약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보수기준의 폐지에 따른 문제는 민간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예산계획의 수립시 설계대가의 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 발주공사에 있어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여 근거자료로서 설계보수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설계사무소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하여 설계보수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대가기준을 제시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구를 따를 경우라도 개별 설계사무소별로 이를 작성해야 하는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시간, 경비의 낭비와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는 등 건축계 전반에 걸쳐 현안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율방식에 의한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건축물 용도와 종류 및 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설계업무의 보수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듯 건축사업무와 보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무소는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어 어떻게 설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

필요성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졸속하게 폐지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를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8월 14일 건축사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하여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다시 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원칙

종전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획일적이고 일반적 기준이라면 앞으로의 대가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전의 폐지된 기준은 카르텔법에 의해 사업자 단체에 의한 일종의 가격협정에 해당되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새롭게 마련되는 대가기준은 건축주나 건축사 모두에게 형평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이 포함되어 기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대가산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주와 협의함에 있어 객관화가 용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쉽게 이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설계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객관화 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건축사나 건축주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객관화 하여 건축설계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종전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획일적인 기준이었다면 앞으로의 기준은 소비자가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업무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option)할 수 있도록 대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설계는 전문가의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무형에서 유형의 가시적 물건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이 일정한 규격에 의한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독특한 독창성을 가진 건축물은 그만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과 창의성에 의한 건축물을 공산품과 같이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업무량에 따른 차등화의 필요성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 그리고 작업량 등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 설계작업의 내용이나 량, 완성도 등에 따라 대가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설계용역은 너무나 많은 다양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준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개괄적 기준을 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건축사는 건축설계비용을 높게 할수록 유리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된다. 따라서 이를 객관화 하고 투명성 있게 설계비가 산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상호간의 마찰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건축설계업무에 따른 적절한 대가는 설계를 주요업

무로 하는 건축사는 물론 설계비를 지불하는 소비자(건축주) 입장에서 그 기준이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되어야 상호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건축사의 업무범위

업무의 구분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는 건축 설계업무와 공사감리 업무 그리고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가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건축사의 고유한 업무는 설계와 감리업무가 되며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등은 건축사가 당해 프로젝트에 전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의 전문영역에 대해서 일부 참여하는 부차적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를 좀더 상세하게 구분해보면 우선 설계업무는 건축설계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설계가 종료된 후의 사후 관리업무 그리고 설계업무에 포함되는 모형제작, 3D모델링 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속하게 된다. 반면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기타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며 수행하는 감리업무와 책임 감리업무, 별도의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토 및 도시계획업무로서는 취락지구개발계획 등 국토계획 관련업무를 비롯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업무가 있으며 이들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건축사의 독자적 업무라기보다는 협동업무 등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건교부의 고시이후 건축사의 국토 및 도시계획업무가 법적으로 확보된 도시계획관련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 부당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업무가 있고 이는 지금까지 행하여지고 있는 업무를 명시한 것으로 업무영역의 침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공사의 준공도서를 작성 한다든지 건축공사 사업타당성분석 업무도 건축사가 참여하여 수행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관련분야와 유기적인 체계속에 연계되어져 있다.

기획업무

기획업무는 크게 보아 건축설계업무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며 건축주가..... 별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기획업무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주나 다른 전문분야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건축주 책임으로 외부전문분야의 용역발주나 협력작업 등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기획업무가 건축설계에 연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업무와 별도 분리하도록 하였다.

건축설계분야에서 가장 큰 애로점 또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중의 하나가 기획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다. 업무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건축사업무에서도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전의 상담, 사전조사, 법규 및 규모검토 등의 업무가 적절한 대가 없이 무료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의사의 진찰료는 질병유무나 처방유무에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며 변호사의 상담료는 업무의 수탁여부에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비용이다. 전문가가 특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적정비용을 받아야 하며 그 수혜당사자는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건축사의 기획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축설계의 사전업무로 인식하고 이를 건축설계대가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으며 설계계약을 위한 작업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기획업무와 함께 통칭 “가설계”, “개략설계”라고 불리우는 과정까지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은 차제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건축설계분야의 현실문제의 해결과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정의와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잘못, 왜곡된 부분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전의 일련의 작업이 무료로 수행될 경우 그 비용이 반드시 설계·계약에 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기획업무가 설계업무로 계속 진행된다면 기획업무대가가 설계업무대가에 포함될 경우는 지불방법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전체비용부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기획업무 자체로 끝날 경우 업무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통한 제3자의 건축설계업무에 그 대가 비용이 전가되는 극히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수익자 부담원칙,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지불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획업무의 대가를 별도업무로 보고 대가의 3~8%범위에서 협의 결정하여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건축설계

건축사의 주된 업무는 크게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건축설계업무는 매우 큰 비중을

갖는 고유업무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업무는 그 업무내용과 과정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설계과정은 각 단계별로 도서의 내용에 따라서 도서작성의 구분(도서의 양)에 의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을 보면 간단한 계획도면과 건축심의 도서의 작성 등이 포함되고,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이 되며,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설계업무 관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 하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건축설계는 3단계 설계과정으로 하여 각각의 선택적 도면 수량에 의해 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계업무에 부수되는 관련업무는 건축설계업무와 관련 없이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업무범위를 구분하였다.

건축공사감리

공사감리업무는 업무성격에 따라 건축법령에 의하는 경우와 기타 관련법령과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는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해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사가 행하는 감리업무중 건축법령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기본업무로 하며,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인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 기간동안 각각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상주감리업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수시 또는 필요한 감리업무와 구별되는 추가업무가 된다. 이밖에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사후 관리메뉴얼을 작성 한다든지 사후평가 업무를 위하여 건축공사 완공 후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등의 평가를 행하는 업무가 공사감리업무에 포함된다. 건축공사감리는 책임감리, 상주감리, 일반공사감리 그리고 소형건축물의 검측과 안전확인을 위한 법적감리 등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

가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건축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 포괄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공사감리대가를 정하고 있는 책임감리를 제외한 감리를 범위로 하였으나 상주감리 등 현장에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 별도약정에 따라 협의 계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업무에 따른 대가 산정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대가산정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건축설계, 건축공사감리와 별도업무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업무 내용에 적합한 대가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건축설계

가. 건축설계의 대가산정을 위한 검토

종전의 건축사 업무의 보수기준 산정 방식을 보면 인·월수 산식에서 기준 임금이 상승하면 설계업무에 투입하는 인·월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대가는 상승된다. 이 경우 인·월수와 대가산식에 상호모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의 설계사무실 현황을 살펴볼 때 종전 인·월수(투입인력)는 현재 건축설계업무의 투입인력과 유사한 인·월수량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서의 건축부분 요율은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 적용에서 설계 전단계에 의한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실시설계에서 구조·전기·기계설계 등에 대한 적용비율이 다소 낮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사감리의 경우 50억원 이하까지만 요율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의 경우에 건기법에 의한 대가산정이 적용되므로 건축공사감리대가 산정시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토목 관련 엔지니어링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설계 요율로 설계요율이 공사감리요율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설계업무의 특성상 투입되는 인력을 설계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의 대가산정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건축설계업무는 그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입인력(Man·Month)을 고려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설계사무소의 몇 개 실제 사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나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 그리고 개별성 등이 큰 차이가 나타나 이를 객관화, 적절화 또는 기준화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건축설계에서 적절한 투입인력의 규모를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종전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인·월수가 수십년간 널리 통용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인정할 수 있고 총괄적으로 조사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장 적합할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 기준이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전산화에 의한 건축설계과정에서 투입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건축설계의 특성상 계획과 중간설계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하므로 전산을 이용하여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투입인력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서 제시된 인·월수에 의한 산출대가를 공사비 비율로 환산한 결과를 대가기준으로 활용하되 설계도서의 수량에 의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나. 건축물 종별에 의한 적용기준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건축설계 과정에 상당한 난이도를 갖게 된다. 단순한 창고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와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냉동창고의 건축설계는 동일한 건축설계의 난이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 건축물의 경우를 보아도 건축공간의 복잡한 기능적 고려가 감안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단순건축물(1종), 복잡건축물(3종) 그리고 보통의 건축물(2종) 종류로 구분하여 건축물 유형을 나누어 건축설계 대가를 산정 할 때 적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종류별 설계의 업무량과 난이도는 매우 달라서 이를 상대비교하여 계량화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불합리 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건축물이라도 단순반복하는 경우와 수많은 개별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와는 업무량의 차이가 크다. 그러나 업무량이나 그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이를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하여 나누고 대가 적용을 10%씩 차등화 하였다. 이러한 종별 건축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대가적용도 달리 하는데 2종을 기준으로 하여 1종은 2종에서 10% 감산한 공사비 요율을 적용시키고, 반대로 3종은 10% 더한 값을 적용한다.

다. 건축설계의 단계별 도서의 양에 대한 적용기준

건축설계의 단계별 도서의 양은 건축물의 종별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건축설계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작업으로서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설계시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작업인력에 의하여 도서의 양이 결정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할 경우 합리적 구분이 된다. 따라서 각각의 종별에서 기본·중급·상급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

다. 도서의 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중급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서의 양에 따라 투입인력이 감소되거나 증가하므로 기본은 20%가 낮고, 상급은 20%가 높아지게 하여 투입인력에 따른 대가산정시 차등화를 적용하였다.

차등화를 어느정도 할것인지에 대한 것이 관련이 되겠으나 최종적으로 작성된 도서의 양이 하나의 척도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서의 양과 작업인력과의 관계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중급·기본의 3단계 등급화를 하더라도 설계의 절차와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고, 또 설계의 총실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 20%씩으로 단순화 결정하였다.

라. 건축설계와 대가산정 효율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건축설계 대가는 9종류의 대가 효율표가 공사비에 따라 결정되며, 도서의 양은 설계단계별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작성하면 된다.

마. 설계업무 중 건축설계 이외 업무의 대가 산정

설계업무 중 앞의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설계)업무 이외에 매우 다양한 업무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 이외에 관련된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이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 설계업무 중 기획업무의 대가산정은 기획 업무 내용에 따라 건축설계 대가의 3~8% 범위로 차등 적용 하도록 함

건축설계 대가효율 (단위%)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5.97	4.97	3.98	5.42	4.52	3.62	4.88	4.07	3.25
30억원	5.76	4.80	3.84	5.23	4.36	3.49	4.71	3.92	3.14
50억원	5.65	4.71	3.77	5.14	4.28	3.42	4.62	3.85	3.08
100억원	5.50	4.59	3.67	5.00	4.17	3.34	4.50	3.75	3.00
200억원	5.33	4.44	3.56	4.85	4.04	3.23	4.36	3.64	2.91
300억원	5.29	4.41	3.53	4.81	4.01	3.21	4.33	3.61	2.89
500억원	5.19	4.32	3.46	4.72	3.93	3.14	4.24	3.54	2.83
1000억원	5.10	4.25	3.40	4.63	3.86	3.09	4.17	3.47	2.78
2000억원	5.03	4.19	3.35	4.57	3.81	3.05	4.11	3.43	2.74
3000억원	4.95	4.13	3.30	4.50	3.75	3.00	4.05	3.38	2.70
5000억원	4.88	4.07	3.26	4.44	3.70	2.96	4.00	3.33	2.66

* 건축물 종별 난이도(제3종 +10%, 제2종 ±0%, 제1종 -10%)
도서의 수량에 의한 등급(상급 +20%, 중급 ±0%, 기본 -20%)

1) 사례조사에서 기본단계와 상급단계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단계별 3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설계단계의 계획·중간·실시설계의 3단계, 종류별 단순·보통·복잡의 3단계 그리고 3단계 등급화 등을 고려할 때 20%정도가 적당한 의견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 설계업무 중 리모델링설계업무, 인테리어 설계업무, 전통양식설계업무의 대가 산정은 건축설계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설계업무에서 앞의 내용 이외의 설계업무 대가는 실비정액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각각의 설계업무 특성에 의하여 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공사감리

가. 건축공사감리의 대가기준

건축공사감리는 건축법령상의 기본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의 공사감리업무 등은 건축공사감리 대가 기준 효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다. 건축공사감리는 건축설계업무에서의 도서의 양(기본·중급·상급)과 같이 건축공사감리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물 종류에 따른 난이도는 건축설계와 동일한 난이도를 적용한다.(제2종을 기준으로 제3종과 제1종을 ±1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축공사감리에 따른 효율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 건축공사감리 이외의 공사감리 대가기준

앞의 건축공사감리 이외의 공사감리 대가효율의 산정 방안은 별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해당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기간동안 수시 또는 필요할때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사후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되며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등을 건축주가 요구하여 건축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추가로 공사감리

건축공사감리의 대가효율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 요율에 의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인·월수에 의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별도업무

별도업무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대가적용방식 또한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별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사의 업무범위로 새로이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외의 타 법령의 규정을 따르거나 여러 외국의 대가적용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에 건축사 업무와 대가 기준에 적용하는 내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따르도록 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등 개발사안에 관해서는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며,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는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준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분야와 협동업무의 경우는 전체 용역대가에 대한 업무량의 비율 배분방식에 따르되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중요내용의 요점정리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요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사 업무범위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행하여 오던 전문업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이를 명문화 하였다.

둘째, 설계대가의 차등화를 기했다.

건축물의 종류별로 업무량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를 단순·보통·복잡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10%로씩 상·하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설계과정의 단계화로 협의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량이나 내용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비율배분을 하되 건축물의 종류와 업무내용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단계별 구분 발주하는 경우 전후단계의 파악을 위해 10%의 비율을 추가하였다.

넷째, 설계의 수준이나 정도(精度)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 중급, 상급의 등급화를 기하고 각 등급간에는 20%의 차등(option)을 두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획업무를 별도 대가업무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3%~8%범위에서 상호협의 결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건축사의 기본대가업무이외에 추가 요청하는 별도대가업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하여 요율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하도록 하고 관련분야의 협동업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정한 대가방식을 따르거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하여 협동분야에 업무배분방식이나 내용, 량 등에 따라 비율배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설계업무중 리모델링, 인테리어, 전통건축물 등 특수업무의 경우는 기본업무의 1.5배를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여덟째,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건축설계의 난이도와 마찬가지로 단순, 보통, 복잡의 3단계로 나누어 10%씩 차등화 하였으며, 관련법에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상주감리 등 현장인력이 별도 파견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법 등 상호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와 대가에 관한 부분은 상호계약에 의해 정해져야 하므로 이는 하나의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용역서비스에 적절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건축사업무에 따른 대가기준의 마련은 건축사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의 설정 및 범위의 확립,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설계 등에 있어서 구체적 인 산정방식의 표준이 확립되어, 현재 건축업무에 있어서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한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대가의 적정화는 단지 산정방법의 합리화나 기준화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업무 내용의 명확화, 적정화를 전제로 상호 정당한 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번 기준에 있어서는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검토하였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앞으로는 건축사 업무 중 기본적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에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논의·검증을 거쳐 건축사 업무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위한 발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내용과 업무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목적은 산정방법의 합리화, 적정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건축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량이나 수준 등을 투명화·차별화 하므로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헥사콘 영구배수공법

Water Distribution Methods of Hexa Tube Connector

이창남 / 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개발배경

필자가 영구배수공법을 구상하여 건축물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78년 서울 남대문에서 남산 방향에 위치한 대한화재빌딩에서였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앞서 역시 남대문 옆의 대경빌딩(지금 신한은행본점을 짓기 전에 설계했다가 무산된 건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에 반영시켰었다.

그 전에는 지하실 깊이가 깊어봐야 지하 3층에 불과하여 굳이 영구배수공법 같은 번거로운 공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었다. 지하 외벽과 바닥 내수판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2중 슬래브 사이 빈 공간에다 잡석이라도 채우면 지하수 부력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영구배수공법(De-watering)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건축기술자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으므로 최근에는 바다를 메워 조성한 대지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실 바닥 보다 바닷물 수위가 더 높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까지 성공적으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법을 세상에 처음 사용할 때는 의문도 많고 저항도 큰 법이다. 내가 무슨 이유로 처음 하는 일에 시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고 반대하고 나선다. 게다가 필자는 토질기술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토질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심의 회의를 열었다. 다행히 이론적으로는 틀리는 것이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첫째, 배수펌프를 작동시킬 전원이 차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하 3층보다 깊거나 영구배수공법을 도입할 만큼 규모가 큰 건물에는 비상 발전기가 필수적이며, 예비 저수조를 마련해 두면 단기간의 단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전 전기 사정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전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수시로 정전 사고가 있었으므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했었다.

둘째,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면?

— 배수펌프는 반드시 스페어(Back up)펌프를 준비하여 고장 수리하는 동안에도 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만약 배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계실 근무자가 태만으로 또는 무지로 인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의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

1984년 망원동 일대가 장마 비로 침수된 이유가 빗물 배수펌프장의 펌프 고장이 이유였다고 들었는데 펌프실 근무자가 여러 번 바뀌는 몇 해 동안에 걸쳐서 배수펌프가 한번도 작동하지 않자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정비하는 것을 게을리 했었다고 한다.

당시 한강 상류에는 댐 건설이 잘 되어 있어서 홍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나보다. 그러므로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만약 펌프가 고장으로 물이 넘치면 경보음을 발하면서 예비 저수조를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물이 지하실 바닥을 침수시켜 물바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구조 안전 상에는 도움이 된다.

고혈압 환자가 쓰러졌을 때 머리에 외상을 입어 피를 흘리면 오히려 내출혈을 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

이 같은 최후 사태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는 지하실 바닥에서 조금이나마 높은 레벨에다 설치하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로 유류파동이 나거나 6. 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전기도 끊기고 비상발전기를 돌릴 수도 없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런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필자는 초기부터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때마다 최하층 지하실 바닥 레벨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배수시키는 대신 그 구조물이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위까지는 물이 차 있어도 안전하도록 하고 지하수위가 그 레벨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만큼만 배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구조물이 자중만으로도 부력에 안전한 경계수위를 사전에 계산하여 적용함).

대부분의 건물 지반은 가뭄에 지하수위가 내려갔다가 장마 때만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또한 건물 설계용 지하수위란 그 건물이 불필요하여 철어버릴 때까지 즉 앞으로 50년, 100년 간 단 한번이라도 대홍수가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수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제시한 수위 조절형 영구배수공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현장이 별로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U자관 원리를 설명하여 수위를 조절하도록 종용하였으나 대부분 솟아나는 물을 전부 퍼버리는 간단한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영구배수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가 건축구조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토질기술자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U자관 이론이 지극히 간단한 유체의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려면 설비기술자나 배관공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요즘 들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대형 건물 지하실 외벽이 연속벽 공법으로 공사하

여 지하수를 차단하고 기초 바닥레벨이 경질지반이어서 건물 주변에서부터 지하실 바닥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스며 들어오는 물을 전부 퍼낸다 해도 별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씩만 스며 나오는 물이라 해도 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정전이 돼서 퍼내지 못하고 방치하면 언젠가는 지하실을 침수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특히 큰 홍수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잠시나마 퍼내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평상시에 물을 퍼내지 않거나 조금씩만 퍼도 되는 수위조절형 영구배수공법으로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별도로 구조기술자나 토질기술자 및 설비기술자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셋트식 영구배수공법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이 핵사튜브코넥터 배수공법이다.

— 현재 특허출원중이며 7월 중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넷째로 영구배수공법과 락앵커링공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보기로 한다.

— 물을 퍼도 퍼도 한없이 들어오는 특별한 땅이 있다. 개천을 메운 땅이거나 또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옛날 개천이었던 땅 즉 모래자갈 층이 있는 땅은 비록 조사 당시 지하수가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침수시킬 수 있는 땅이어서 영구배수공법보다 락앵커링공법이 적합하다.

그와는 반대로 임반 등 경질지반이거나, 진흙질 지반일 때는 단위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때는 영구배수공법이 경제적이다. 물론 모래자갈 층이라고 해도 그 층이 두껍지 않아 지하실 깊이의 일부분에만 걸쳐 있을 때는 지하실 외벽 하단을 불투수성 지반에 확실하게 묻어서 지하실 외부의 물이 외벽 하단을 돌아 지하실 바닥까지 스며드는 물의 양이 많지 않도록 하면 이 역시 영구배수공법을 채택하는데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즉 영구배수공법이나 락앵커링 공법의 선정 기준은 기술자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지반 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파동적인 것이다.

다섯째로 실제 영구배수를 위하여 펌프의 용량과 대수 및 배수관의 배열과 직경을 결정하기 위한 배수량을 사전에 계산하여야 한다.

— 토질기술자가 제시하는 투수계수대로라면 항상 과대한 배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국종합무역센터의 경우 마련하여야 하는 펌프의 대수가 무

려 235대라고 주장해서 애를 먹었으나 마침 터파기 공사 중 수십년만의 장마 비에도 펌프 몇 대만으로 배수한 것이 확인되어 별 탈 없이 공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영구배수시설을 위한 토질조사보고서에서도 하루 배수하여야 할 물이 무려 8,000톤이라고 했다. 만약 그 계산이 맞는다면 영구배수공법 적용을 포기하여야 하나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으로 영구배수공법을 강행한 결과 최근 돌리는 바에 의하면 하루 배수량이 400톤 정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토질 단면도만 검토해도 영구배수공법을 도입할 경우 펌프의 대수나 배관하여야 하는 관의 굵기와 간격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닥 배수의 번거로움 해결 방안

예로부터 지하실은 물이 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가 새지 않는다 해도 기계실, 지하주차장, 부엌 등에는 내부에서 흘리는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외벽을 따라 도랑(Trench)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도랑 밑바닥은 집수정(물웅덩이=Sump pit)을 향하여 물매가 있어야 하며, 흘리는 물을 도랑에까지 유도하기 위하여도 바닥 면 자체에도 별도의 물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근콘크리트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야 한다.

따라서 지하실 층고는 위 무근콘크리트 두께만큼 더 높여야 하며, 최하층 바닥이 아닐 때는 무근콘크리트의 두께만큼 하부 구조의 부담이 커져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도 감수하여야 한다.

지하실 층고가 높아지면 굴토공사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하실 외벽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은 물론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도 늘어나므로 설상가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바닥에 무근콘크리트를 추가하여 도랑을 마련하는 방법을 대신하여 헥사콘넥터 배수공법을 활용할 수 있다.

무근콘크리트의 균열하자 원인

무근콘크리트라고 하면 우선 구조재가 아니어서 강도 확보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 온도철근 배근이나 철망 배근공사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표면은 거칠고 균열 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구체 콘크리트에 도랑을 마련하는 방법

때로는 무근콘크리트를 생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벽에 면해서 보와 슬래브에 단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푸집과 철근 배근이 까다롭고 보나 슬래브의 구조내력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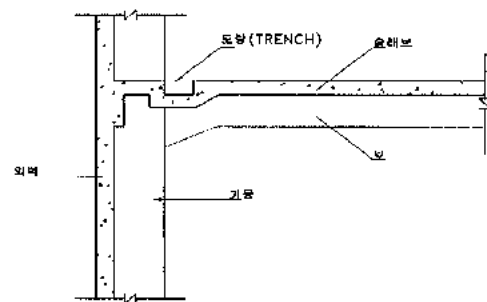


그림 1 구체에 마련한 도랑(TRENCH)

2중슬래브 사이공간을 지하수 저수조 또는 배수로 활용하는 방법

최하층 지하실 바닥구조를 2중 슬래브로 설계하려면 그 건물 기초 중에서 가장 큰 기둥 기초의 두께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로는 상하 2중 슬래브 안의 빈 공간에 일꾼이 들어가서 거푸집도 떼어내고 물탱크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설계도 있었다.

옛날에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지하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2중 슬래브로 설계하고 빈 공간을 배수로 활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으며, 한때 법적으로 민방위용수 저장탱크로 2중 슬래브 빈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가 유행했었다.

민방위용수란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어서 평상시 물을 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물이 썩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도 먼저 받아놓은 민방위용수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중 슬래브 내의 공간들을 민방위용 저수조로 사용할 때 물이 S자를 그리면서 돌아가도록 지중보 사이에 통수구와 공기구멍을 적절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매트기초의 유형

좁고 답답한 2중 슬래브 안에 들어가서 거꾸집을 뜯어내고 방수 공사를 할 작업원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기초를 아예 한 판(매트)으로 두껍게 시공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방식이다. 그러나 사실로 말하면 매트기초로 설계하는 것은 극히 연약한 지반을 제외하면 구조상 가장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하면 매트기초의 콘크리트 단면 중에서 기둥 주변에만 큰 전단응력이 작용하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금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도 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매트기초가 재료를 많이 낭비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면이 균일하여 땅파는 노력 등이 가장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인데, 그 밑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별도의 도랑을 마련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도 도랑 대신 매트기초 하면 전체에 걸쳐 잡석 깔기 등 전면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헥사튜브코넥터(Hexa tube connector) 영구 배수공법

매트기초가 콘크리트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구조방식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매트기초 단면 내에서 구조 응력 상 가장 여유 있는 부위가 단면의 중앙 부리는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파이프를 배관하여 배수로로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 착상 즉 “씨”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기초 밑에 구차한 도랑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땅 파는 일도 수월해진다.

그림 3은 헥사콘(헥사튜브코넥터)의 모양이며, 그림 4는 헥사콘을 이용하여 영구배수하는 공법을 설명한다.

헥사콘은 배수관을 동서남북 4방으로 배관하는 +자형 배관 부속품에 상하 방향으로도 배수관을 추가할 수 있는 6방향 배관 부속품이다. 아직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없다.

동서남북 4방향 배관은 지하실 바닥을 바닥 무늬처럼 구획하여 구석구석 배수관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하향 배관은 매트기초 콘크리트 밑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함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 방향 배관은 단부를 마개로 막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열어서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점검구 및 청소구 역할을 한다. 매트기초는 일정 두께를 갖고 있으므로 구태여 배관에 물매를 두지 않아도 물이 잘 흐른다.

영구배수공법을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의심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말이 옳은 것 같다. 지하실에서 가장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이다. 물은 바늘구멍으로도 스며들기 마련이며, 거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어디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지하수에 항상 잠겨있는 지하실이 오래도록 전혀 새지 않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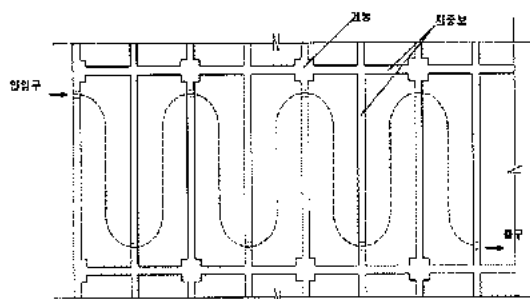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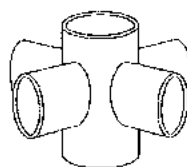


그림 2 8자형 말뚝들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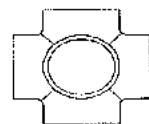
이렇게 작은 균열을 통해 새는 물은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한 저절로 막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영구배수를 위하여 바닥에 100mm 직경의 큰 구멍을 여기저기 뚫고 그것이 막힐까봐 토목섬유를 씌워서 보호하는데 그래도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엔지니어의 도리라 생각해서 점검구와 청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헥사콘과 배수관, 마개 등 모든 배관 자재는 합성수지제여서 접착제를 사용하여 배관하므로 녹이나 스케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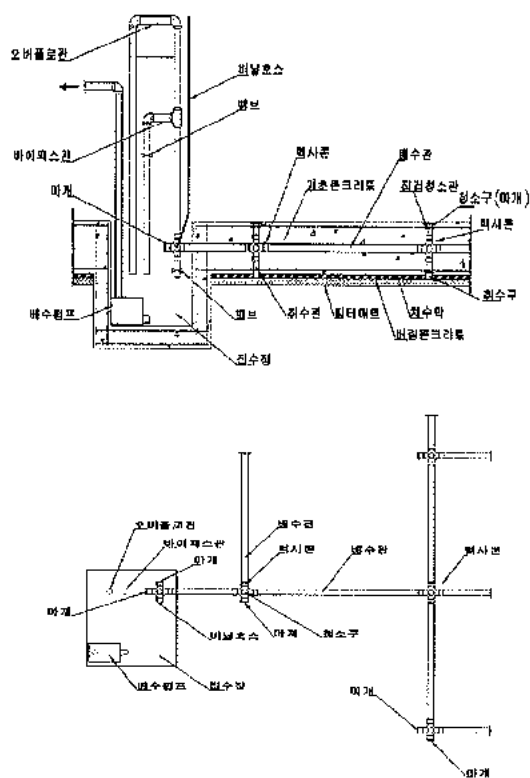


두시노



방만노

그림 3 헥사튜브코넥터(헥사콘)



역 U자관을 이용한 배수수위 조절

우물물이 분수처럼 지상으로 솟아올라 넘쳐 흐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우물은 고이는 물이 어느 레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물을 펴낸 만큼만 보충된다. 그러므로 가끔 우물을 청소할 때는 고여있던 물을 전부 펴내고 청소하는 동안 솟아나는 물까지 펴내야 하므로 매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만약 평상시 우물물의 상단 레벨이 바닥에서 5m 아래에 있고 잠마 때는 바닥에서 4m까지 올라온다면 그 차이는 1m에 불과하다.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물물의 레벨을 항상 바닥에서 5m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평상시는 일을 하지 않고 놀다가 잠마 때만 1m 만큼 레벨을 낮추는 수고를 하면 된다.

지하실을 설계할 당시 설계용 지하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아무도 그 정확한 값을 알려주지 않는다. 지반조사보고서에 적혀있는 보링 공대수위(보통 지하수위라고 잘못 기재하고 있음)는 보링 할 당시의 보링 구멍 안의 수위일 뿐이며, 토질 지반이 암반 이거나 진 질일 경우는 수위가 높게 표시된다는 것을 누누 이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설계용 지하수위를 인공으로 조작하여 그 건물을 철어버릴 때까지 지하수위가 어떤 경우라도 정해진 수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위조절형 영구배수공법이다.

초등학교 때 U자관 현상에 관하여 배웠다.
목수가 비닐호스에 물을 넣고 아리리리 끌고 다니면서 바닥
레벨을 확인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즉 지하수가 통하는
땅에다 파이프를 연결하면 파이프 속의 수위는 지하수위와
일치해지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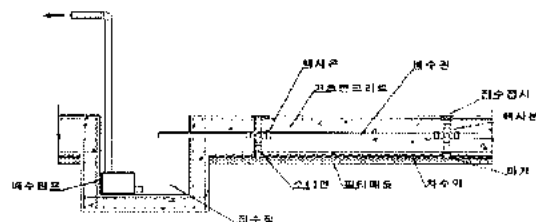
그러므로 건물 바닥 내수판이 부력을 받아 떠오르지도 않고 능히 견딜 수 있는 지하수위를 사전에 계산하여 배수관 끝애다 파이프를 연결하여 그 수위만큼 위로 올려놓으면 지하수위가 정해진 레벨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만 물이 넘치게 되어 넘치는 물만 펌프를 작동시켜 배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헨시튜브코넥터 바닥배수공법

그림 5에서 취수구를 마개로 막고 청소구에 집수접시를 붙여서 바닥에 흐르는 물을 받아 집수정으로 배수하는 방법이다. 보통 배수공법에서는 도랑 깊이가 깊거나 물매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고이게 된다.

그러나 배수관이 바닥에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물매가 없다 해도 그런 걱정이 없다. 또한 도랑에 두 켤을 덮는다 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청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배수관을 통해 흐르는 물은 설사 찌꺼기가 있다고 해도 오니관에 저장되어서 필요에 따라 청소하면 된다. 이는 일반 배수관로에서 활용하는 맨홀을 모방한 가이 맨홀에 해당된다.

만약 그림 4와 같은 영구배수공법에서 수위 조절을 포기한 채 나오는 물을 전부 퍼 버리기로 작정한다면 취수구에 막는 마개를 생략하고 청소구의 마개 대신 집수점시를 붙이는 것만으로 영구배수와 바닥배수를 겸할 수도 있다.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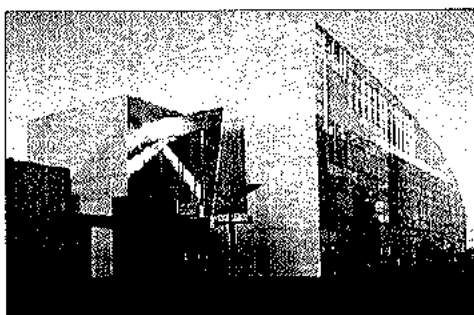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E)

김용승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Kim Yong-Seung

1. 대공간(Major Space)의 역할변화
2. 박물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공 서비스공간
3. 전시공간구성
4. 최근의 박물관건축 사례

이번 연재의 앞부분에서 공공박물관(Public Museum)이 되기 위한 건축적, 그리고 프로그램적 고려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한 고려사항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실현되고 있는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며 국내의 박물관건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필자 주)

키아즈마 (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elsinki)



키아즈마

건축 개요

건축가 : 스티븐 홀 (Steven Holl)

건립년도 : 1993년 설계경기 입상작, 1996 ~ 1998년 완공

총 면적(연면적) : 6,200m²

구조 : Steel Truss

건축주 : 교육부

건축개념

기본 개념은 건물의 매스와 도시 및 랜드스케이프의 기하학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건물 형태에 반영되고 있다. 함축적인 문화의 곡선은 미술관 건물과 핀란드인 홀을 이어주는 동시에 주변 랜드스케이프 및 툴루민까지 연장되는 자연의 선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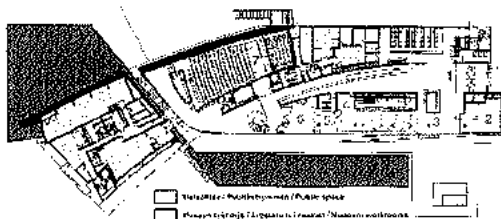
1) 키아즈마는 서쪽에 국회 의사당, 동쪽에 엘리엘 사리넨의 헬싱키 역사, 북쪽에 알바 알토의 핀란드아 홀이 있는 헬싱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구조상으로는 다양한 격자형 도시 평면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문화의 축과 (핀란드아 홀을 거쳐 대지가 관통하는 절대적인 문화의 축)과, 자연의 축(틀루만의 조경을 연결하는 자연의 축)의 Intertwining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매스로 설정하였고, 태양의 궤도(AM 11:00 ~ PM 11:00)를 계획대지와 핀란드아 홀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역전시킨 곡면 매스 디자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의 기하학에 부합하는 정형의 사각형 매스로서, 의미상으로는 핀란드아 홀을 비취주는 반사하는 연못(reflection pond)으로 설정되어 있다.

박물관 공간구성

1층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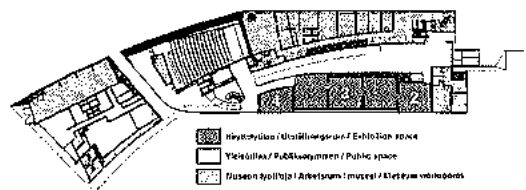
1. 진입 홀
2. 서점
3. 카페 (여름에는 카페의 테라스가 공원 쪽으로 열린다)
4. 열람실(예술관련 잡지, 정기간행물; 카페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다.)
5. 어린이 방 (카페와 연결되어 관람준비나 도서관)
6. 세미나실 (카페와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다)
7. 키아즈마 홀 (233석)
8. 사무실
9. 큐레이터 작업실
10. 기계실
11. 직원휴게실



너부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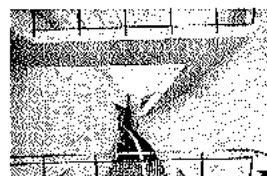
진입 홀에 들어서면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층으로 연결되는 램프이다. 곡면 형태를 지닌 이 램프는 그 형태상 매우 강한 인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1층의 모든 서비스공간을 경험한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와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홀의 왼쪽으로는 카페가 한눈에 보이며 카페와 연결되어 열람실, 어린이 방, 세미나실이 연속되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열람실, 어린이방, 세미나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카페와 연계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보여진다. 223석의 키아즈마홀은 뒤에서 연결되는 부출입구에서도 출입이 가능하여 단체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2층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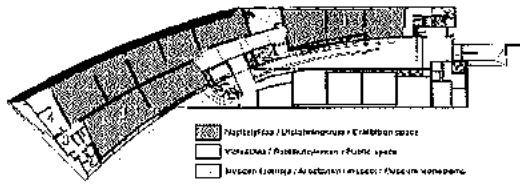
1. 박물관장 사무실
- 2, 3, 4. 전시실
5. 설비실
6. 도서관
7. 사무실



관람객의 이동 동선인 램프를 타고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유도되어 전시실로 진입한다. 4번 전시실은 비디오나 미디어예술을 위해 특별히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동선의 흐름상에 위치한 3번의 3개 전시실은 사진과 그래픽예술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 전시실들의 크기는 스티븐 홀이 연구와 실험에 의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9m x 9m x 4.5m의 입방체로 되어있다. 공간구성상 재미있는 점은 3번과 2번 전시실들의 오프닝들이 사선의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실을 나온 관람객은 출입구의 위에 위치한 일종의 다리를 지나 계단을 이용하여 3층의 전시실로 연결된다. 이때 다리를 지나면서 관람객은 1층의 진입홀과 램프

프 그리고 중앙의 아트리움을 전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전체공간을 파악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약간은 복잡하게 계속 아트리움 주변을 순환하면서 이루어지는 본 박물관의 공간구성상 관람객이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파악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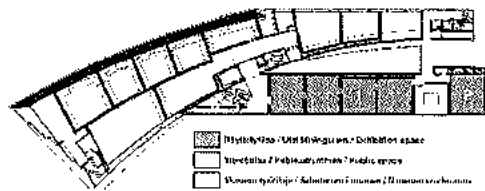
3층



1. 상설 전시실
2. 도서실/작업실
3. 정보자료실
4. 박물관 회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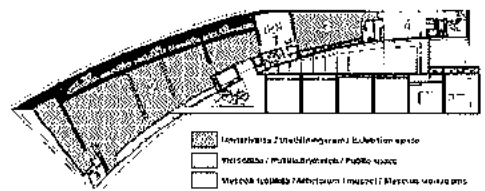
이곳은 주로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방들은 평면상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나 외부의 곡면형태로 인하여 각기 다른 크기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시실은 관람객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다.

4층



1. 상설전시실
2. 특별전시실

5층



1. 준비실(기획전시실을 위한)
2. 기획전시실
3. 예술가를 위한 작업실
4. 일반인을 위한 작업실

기획전시실은 본 박물관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파티션을 사용하여 더 작은 단위로 분리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전시공간에서는 공동 작업한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국제 여행전시회 등 해마다 4~5가지의 주요 전시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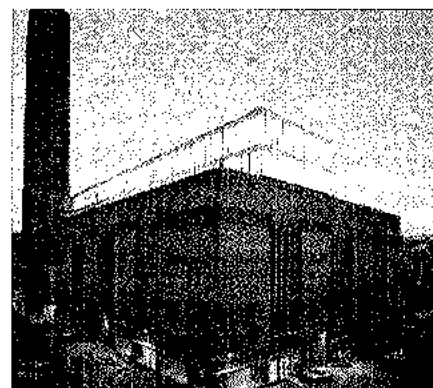
공간구성상의 특징



키아즈마는 박물관의 성격상 무대 이벤트, 공연, 춤, 세미나, 멀티미디어,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위한 열린

'아트 포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홀은 이러한 박물관의 성격을 1층에서부터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능적으로 정원과 로비를 향해 열려있는 카페를 진입홀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이 시낭송회나 '원탁'토론회와 같은 비공식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공간구성상으로는 중앙에 아트리움을 형성하여 진입에서부터 전체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관람객에게 전체공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각층에 있는 다리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테이트 모던 (Tate Modern, London)



건축개요

건축가 : Herzog & de Meuron (HDM)

연면적 : 34,500㎡

전시면적 : 12,402㎡

(갤러리 면적 : 7827㎡, 터빈홀 (155×35×25)면적 : 3300㎡, 3,4,5층의 전시에 사용될 수 있는 관객을 위한 공간: 1275㎡)

240석 규모의 강연장

7층의 카페 170 seat(+30 bar area)

2층의 카페 240 seat

Shop (1층 : 500㎡, 2층 : 300㎡, 4층 : 150㎡)

교육시설 면적 : 390㎡

회원전용실 : 150㎡

사무실 : 1350㎡

기타 서비스 공간 & 미술품 관리 공간 :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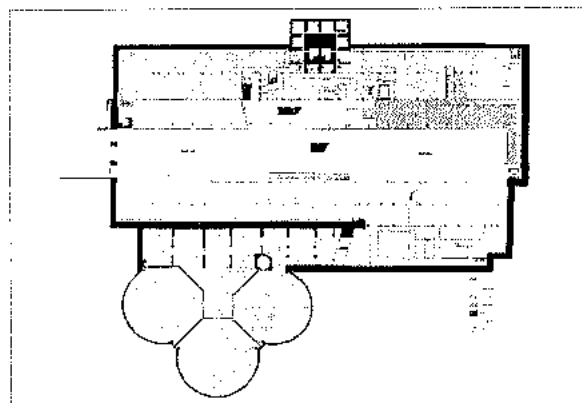
건축개념

테이트 모던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한 이례적인 사례로서 뉴욕의 모마, 프랑스의 종피두 센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술의 메카로서 영국의 위상을 높여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존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본 작품의 당선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방향에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공간과 전시품이 그 자체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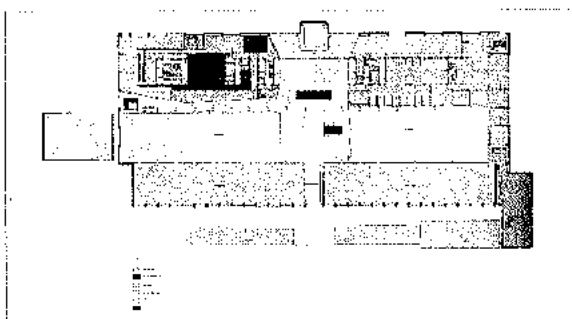
Level 1 : Shop, 강연장, 교육시설, 안내 공간, 회원전용 공간, 매표 및 안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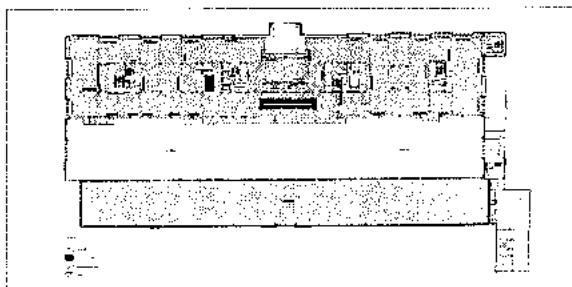
레벨 1 평면도

Level 2 : 카페, 강연장, 기념품판매점, 세미나실, 전시품 관리공간

Level 3 : 28개 전시실 (천정고 5.2m가 대부분), 휴게공간



레벨 2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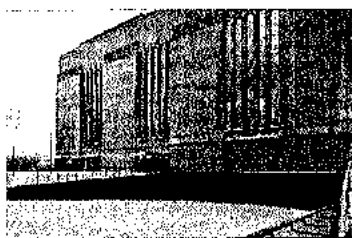
레벨 3 평면도 (전시실)

Level 4 : 26개 전시실 (천정고 4.9m), 커피숍, 상점, 테라스

Level 5 : 30개 전시실 (천정고 4.7m, 4.9m, 9.4m 등 세가지), 휴게공간

Level 6 : 회원전용실

Level 7 : 카페 &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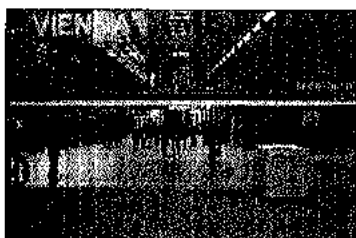
램프로 내려가는 주출입구

우선 건물로의 접근은 대부분 블랙프라이어스 다리를 건너 테임즈강길을 따라 걷다가 건물의 북동쪽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진다. (사실은 세인트

폴 성당과 테이트모던을 잇는 노만 포스터 디자인의 밀레니엄브릿지가 완공되었으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져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다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물 북측의 주출입구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동쪽 모서리를 보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모서리에 위치한 큰 규모의 박물관카페가 한눈에 들어온다. 카페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돌면 실제로 지하층인 레벨1로 내려가는 램프를 따라 진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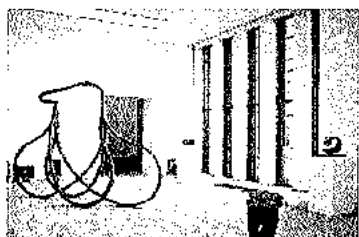
진입함과 동시에 관람객은 우선 중앙홀의



주출입구에서 본 대공간 전경

성격인 대공간의 규모에 놀라게 된다. 예전에 화력발전소의 터빈홀이었던 대공간의 거대규모는 관람객에게 강한 인상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관람객은 중앙홀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공간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공공서비스공간들을 이용하기 위해 바쁜 모습들은 마치 우리나라 장터의 분위기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놀라움을 가라앉히고 관람객은 서서히 전체 공간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오른쪽으로는 매표소, 인포메이션 데스크, 멀리서 보이는 기획전시실, 왼쪽으로는 서점, 기념품판매점, 2층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대공간 중앙에 떠있는 플랫폼 등이 우선 파악이 되고, 눈을 위로 올리면서 왼쪽에 주 전시실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중간중간 보이는 휴게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중앙의 대공간에서 전체공간에 대한 파악을 끝낸 관람객은 이제 박물관 경험을 어디부터 시작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서점에 들어가거나 정보를 구하거나 기획전시실로 향하게 된다. 물론 진입하면서 보았던 레벨2에 위치한 카페에 가는 생각도 마음 속에 갖고 있으면서.

레벨 2에서는 플랫폼과 같은 내부광장 성격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터빈홀의 대공간과 갤러리 측의 공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동선상에서도 북측출입구를 이용하여 레벨 2에서 진입한 관람객은 전시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하여 레벨 1로 내려와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즉 레벨 1의 공공서비스시설을 경험하고 난 후 자연스럽게 전시공간으로 유도되도록 하고 있다.



전시공간

레벨3, 4, 5의 전시공간은 매우 정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방과 방으로 이어져 구성되어진 전통적인 전시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층에는 중앙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공공공간이 구성되어 이 곳에서 대공간을 내려다보며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공간의 곳곳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대공간

방향으로는 대공간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행위들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북측의 테임즈강 방향으로 조망실의 성격을 띄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전시공간들을 경험하는 중간중간에 관람객으로 하여금 휴식도 취하고 동시에 전체공간에서의 자기 위치 파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대공간의 활발한 모습, 주변 강변의 좋은 전경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전시관람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전시영역의 휴게공간



레벨7의 전망 및 카페공간

최상층의 레벨 7에는 카페테리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카페와 연계되어 있는 긴 복도형태의 공간은 건물의 전체길이를 차지하며 모두 테임즈강으로 열려있어 강의 풍경과 세인트 폴 성당을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있다.

공간구성상 특징

우선 대공간의 역할과 의미가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테이트모던의 대공간의 역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정보제공, 쇼핑, 전시, 휴식 등 기존의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시공간에 들어서기 전에 재미있는 공간, 즉 앞에서 언급한 장터같은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람객 각자가 자신이 지금 문화적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공공박물관의 역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런 재미있는 경험은 전시공간 군데군데에 끼여져 있는 휴식공간들에서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레벨 7의 전망대성격의 공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대공간에 진입하면서 행해지는 전체공간구조에 대한 파악 또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의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공공공간과 대공간의 열려진 관계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음은 이 박물관이 미래의 공공박물관에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이 건물은 기존 화력발전소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박물관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건물이 제공하고 있는 박물관 공간의 특성이 박물관건축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파리에 위치한 오르세이박물관과 함께 이 박물관의 이러한 결과가 수많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박물관 기능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의 공공박물관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다.

현대박물관 (Modern Museum, Stockholm)



현대박물관 전경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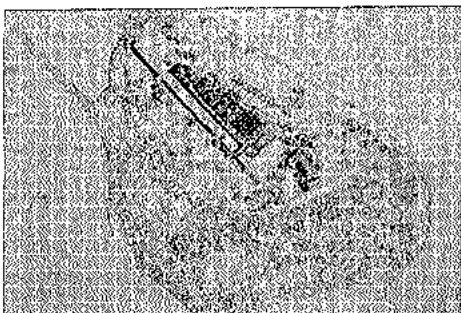
건축가 : Rafael Moneo

연면적 : 19,300m²

건립년도 : 1994. 8 - 1997. 12

건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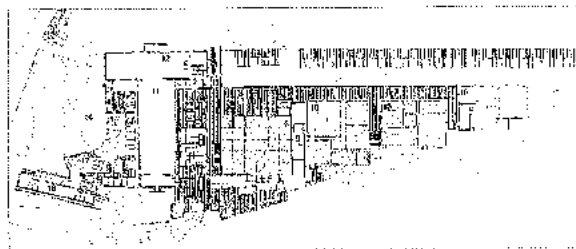
현실적인 컨텍스트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공간적인 역동성에서 출발한 라파엘 모네오는 그의 설계의 중요한 목표를 건물과 주위의 환경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박물관은 눈으로 보여지는 건축이 아니라 기존에 이웃해있는 건축물과 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파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네오는 건물의 전망을 바다와 운하 위의 도시를 향해 열어놓고 있다. 땅의 경사가 바다로 향하여 경사지게 펼쳐지기 때문에 환경조건이 유리했고 건축가가 정의하기를 이 대지는 "틈의 공간"으로서 매우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이 스스로 자리를 바꾸어 변화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치도

공간구성

1층



1층 평면도

1. 건축박물관과 현대박물관의 공용 출입구
2. 휴대품보관소
3. 안내소
4. 서점
5. 화장실
6. 레스토랑
7. 보이드
8. 현대박물관의 기획전시실
9. 준비실(기획전시를 위한)
10. 현대박물관의 상설전시실
11. 건축박물관의 상설전시실
12. 건축박물관의 기획전시실
13. 강당
14. 사무실
15. 카페테리아
16. 건축박물관의 들
17. 건축박물관의 도서관
18. 건축박물관의 학예연구실

주출입구를 거쳐 홀에 들어서면 우선 왼쪽으로 전시공간으로 이르는 길고 넓은 복도가 눈에 들어온다. 다음 오른쪽으로는 건축박물관의 입구가 보이고 가까이서 서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멀리 레스토랑이 보여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도중에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인지된다. 이 계단은 지하로 가는 일반적인 계단들과는 달리 규모가 커서 중요한 곳으로 유도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있다. 우선 레스토랑의 경우 부지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야외테라스도 있어서 관람객이 휴식을 취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곳이다. 특히 주출입구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축의 끝에 위치하여 처음부터 관람객의 시선을 끌기 쉬운 배치를 취한 것은 박물관에서 레스토랑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겠다.

전시공간으로 유도되는 복도를 향하면 우선 매표소가 키오스크처럼 되어 있고, 이를 지나면 가장 먼저



바다로 열린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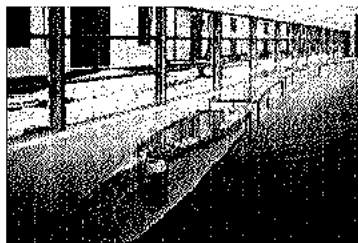


바다로 열린 레스토랑

융통성을 지닌 단순한 사각형 모양의 기획전시실이 보이고, 이 전시실은 가장 큰 규모의 공간으로 되어있다. 이를 지나면 상설전시실들이 세 개의 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그룹의 내부는 보다 작은 다양한 크기의 전시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 그룹의 전시공간으로 진입하면 관람객은 복잡한 동선을 따라 각기 크기가 다른 전시실들을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그 그룹을 빠져나오면 다른 그룹의 전시공간과 만나게 된다. 물론 이때 복도로 쉽게 연결되기도 하여 관람객은 원하면 복도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복도공간에는 때에 따라 전시가 행해지고 있어 주동선으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전시공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은 최근의 전시영역 복도가 대공간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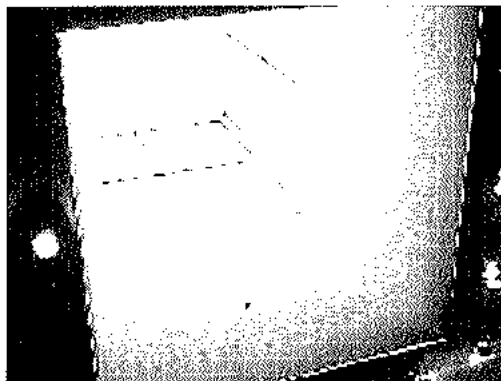


전시공간의 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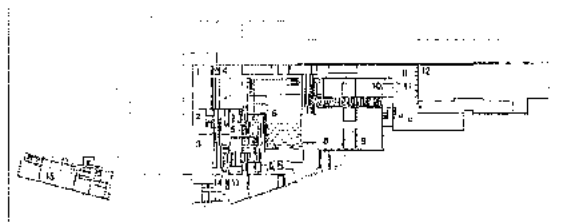
전시가 행해지고 있는 복도공간

전시공간내부를 살펴보면 각 전시실에는 천창으로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천창의 형태는 인근의 교회건물의 형태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 외부로 열려있는 창문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좋은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루할 수 있는 전시관람에 신선함을 제공해주는 장치가 되고 있다.



전시실의 천창

지하 1층



지하 1층 평면도

1. 사진전시실
2. 갤러리
3. 그래픽 전시실
4. 사진 도서실
5. 영상실
6. 강당
7. 문서복원실
8. 그림복원실
9. 조각복원실
10. 아카이브
11. 기술실
12. 수장고
13. 작업실
14. 사무실
15. 건축박물관의 아카이브

지하 1층은 남서방향인 바다 쪽에서 보면 지상층으로 되어있어 부출입구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직접 강당과 작업실, 사무실로의 진입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주동선상으로 살펴보면 주출입구에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면 사진전시실, 특별전시실, 사진도서실, 영상실, 강당, 각종 아카이브(archives), 작업실, 사무실 등이 있다. 이는 대부분 교육영역으로서 지상층과 대별되고 있다. 특히 작업실의 경우 아동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유럽의 많은 최근의 예들에서 아동들을 위한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박물관이 어릴 때부터 문화, 예술



도서실



작업실

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공박물관의 역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공간구성의 특징

스웨덴을 대표하는 현대박물관으로서 우선 그 규모가 아담한 것에 놀라게 된다. 규모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태도가 돋보이는 박물관이다. 지하1층에 구성되어있는 교육공간들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있으며, 작은 규모의 공간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간구성상으로는 지상층의 전시 및 휴식공간과 분리하여 지하층에 교육공간을 배치하고 독립된 출입구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한 계획은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박물관의 배려로 보여진다. 물론 대지의 특성상 레벨차를 이용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같은 레벨의 대지라도 이러한 배치계획은 대중을 위한 문화적 교육을 담당해야 할 현대 공공박물관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전시공간구성은 일종의 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복도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선택적으로 전시실을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는 복도형 대공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관한 세 개의 박물관을 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지면관계상 세 개만을 택하여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였으나 이 박물관들이 다른 박물관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며 많은 새로운 박물관들이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우선 밝히고 싶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박물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소개를 하기로 하고, 이 글은 이 세 박물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서 끝내고자 한다.

1. 전시공간의 구성은 매우 정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형적이라 함은 초기의 박물관들에서 보여지는 방과 방으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이처럼 예술품들을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학파순이나 연대순 등 어떤 순서를 정하여 보여주는 개념에 적절한 구성이 사각형의 방들이 연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다. 20세기 초기에 제안된 융통성 공간의 전시공간은 순서를 무시한 전시개

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일반대중에게는 매우 어려운 전시관람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융통성 전시공간은 앞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특별 또는 기획전시실에 이용되고 상설전시실을 위한 공간은 초기의 구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정형적인 전시공간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공간을 위한 영역은 매우 활발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정형적인 전시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관람객들은 일종의 문화적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축적 요소가 바로 대공간인 것이다. 그 대공간이 복도형이건 로터나형이건 이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람객은 마치 장터에 온 것처럼 쇼핑, 전시관람, 정보수집, 교육 등의 기능을 즐기면서 활기찬 박물관 방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진부하게 생각되는 박물관 방문을 전혀 다른 차원의 문화이벤트로 만들게 된다. 이후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전시를 통한 교육은 이러한 문화이벤트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공공박물관이 지녀야 할 자세라고 하겠다.

3. 교육공간의 내실화 : 국내 박물관의 경우 우리는 흔히 400-500석 규모의 강당들을 볼 수 있다. 그 강당을 앞에 붙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도나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박물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간으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듯하게 보인다. 박물관에 있는 강당이라면 박물관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세미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강당은 대규모가 필요 없다. 실제로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공간, 아동들이 마음대로 구경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소장품과 전시품에 관련된 모든 자료수집 및 제공, 관련 연구 등이 박물관이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2번째 연재에서도 밝혔듯이 건축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을 필요로 한다. 

건축계소식 / 83
현상설계경기 / 90
계획작품 / 98
해외잡지동향 / 102
세무안내 / 105
2002건축사자격시험시행공고 / 106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응모부문은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뉘며, 준공건축물부문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10월 11일 작품접수를 한다. 준공건축물부문은 2000년 8월이후 준공된 국내 건축물을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이라는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물을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대학(교) 및 대학원 건

축관련학과 재학생, 일반국민이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관전팀
02-581-5711/4 www.kira.or.kr

2002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발표

자격시험은 오는 9월 29일 실시

올 해 건축사예비시험 최종합격자 208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12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619명이 응시해 208명이 합격해 33.6%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득점자는 400점 만점에 350점을 얻은 윤정준(경희대졸, 32세)씨가 차지했으며, 여성합격자는 총 2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3%에 그쳐 작년(14.7%)에 비해 낮아졌다. 예비시험 합격자 명단은 우리협회(www.kira.or.kr)와 건교부(www.moc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29일(일) 치러질 예정이다. 자격시험의 장소는 오는 8월 27일(화)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된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송실대와 산학협동 조인

건축설계분야 국내 처음

국내 최대 규모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일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설계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산학협동을 조인했다. 이번 조인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에 기업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숭실대학교에서는 3학년 건축설계과목에 삼우스튜디오를 개설하였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설계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 다수를 설계진행에 따라 팀 티칭(Team teaching)의 형식으로 투입하여 교육을 전담하기로 하였다. 종래에는 개인 자격의 건축가가 설계 강사로 초빙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기업의 자격으로 설계교육에 산학협동 방식으로 참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승효상회원 AIA 명예회원 추대

故 김수근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회원이 미국건축가협회(AIA)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됐다. AIA회원 7만여명 가운데 2%뿐인 명예회원 자격을 받은 것은 고 김수근선생(1982년)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지난 5월 31일 동송동 이로재 사옥에서 김수근문화재단이 축하 행사를 마련하여 윤승중, 이광로, 황일인, 유홍준, 금누리씨 등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눴다.

서울건축학교 2002 가을 정기워크숍

9월 27일부터

서울건축학교 정기워크숍은 코디네이

터가 기획한 테마에 의해 8주를 기본단위로 연간 2회 진행되며, 진행방법 혹은 기간 등은 스튜디오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스튜디오 튜터와 참가자들은 스튜디오 작업 외에 세미나와 정기강좌를 수강하며 기행, 전시 등 서울건축학교 이벤트에 참가한다. 이러한 워크숍 활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지며, 이를 통하여 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워크숍의 결과는 평가회를 거쳐 전시회, sa저널로 출판된다.

-기간: 2002년 9월 27일~11월 22일(8주)

-참가대상: 국내외 건축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건축사사무소 경력자

-프로그램: 설계스튜디오, 강좌, 건축가세미나 등

-참가신청: 인터넷홈페이지(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http://www.saschool.or.kr>

한옥과의 만남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한옥문화원(원장 신영훈)은 전국에 있는 한옥의 배치, 구조와 지역환경과의 연관성을 조사 기록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여름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건축인들이 문화재 가옥에서 함께 숙식하며 한옥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올 해 행사는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옥에 담겨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오늘날의 집짓기에 적용시키기 위한 체득의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기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3박 4일)

-장소: 경남 함양군 자곡면 정여창선

생 고택

-주제: 한옥의 삶, 구조와 지역환경의 체험

-인원: 50명(건축, 문화재, 역사, 고미술 등 관련학과 학생 및 종사자)

-강사: 김대벽, 신영훈, 이호열, 정세훈, 정운상

-내용: 한옥의 기록(사진, 실측), 마을 공동주사, 일두고택의 배치 기능 특성, 한옥과 21세기 등을 주제로 조별 활동

-참가비: 학생-12만원, 일반-18만원

-문의: 한옥문화원(02-562-0303, www.hanok.org)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 모집

9월 4일 개강

한옥문화원이 제3기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인의 삶 터인 집에 대한 근본적 이해로 시작하여 한옥을 조영하는 법식과 기법을 통한 공술의 예술성, 한옥에 담긴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적인 접근으로 한옥 효용을 탐구하여 한옥의 의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식견을 갖춘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2년 4학기로 이루어지며, 법식과 기법은 한옥을 조영하는 도판수·소목장·도석수·단청화사·금속장들이, 역사나 양식론 등은 분야별 전공 교수 등 각 부분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수강일시: 2002년 9월 4일부터

-강의시간: 매주 수요일, 목요일 19:00~21:00

-신청기간: 2002년 8월 1일부터

-신청자격: 건축, 실내디자인, 문화재, 역사, 고미술 관련분야 학생 및 종사자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사진2매,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학생)

- 수강정원: 30명
- 프로그램
 - 1학기: 한옥의 개념과 유형, 역사 그리고 한옥의 기초지식 구축
 - 2학기: 한옥 조영을 위한 법식 탐구
 - 3학기: 건축의 실측을 통한 기록과 건축기법의 숙달을 통한 설계, 시공 능력 향상
 - 4학기: 건축의장과 건축 실례를 통한 기술, 설계, 시공인으로서 자질 함양
- 문의: 02-562-0303
hanok@hanok.org
www.hanok.org

제13회 대전시건축대전 제1회 대전시 건축사진전 대전시 건축상 작품공모

오는 9월 25일 작품접수

- ▷ 신청서교부: 2002년 7월 1일~9월 25일
(교부처: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시지회 042-532-9185, 대전시 건축과 042-600-2834)
- ▷ 작품접수: 2002년 9월 25일 12:00~16:00
(접수처: 대전시민회관 전시실)
- ▷ 전사: 2002년 9월 30일~10월 4일 대전시민회관 전시실
- ▷ 출품자격
 - 건축대전부문: 제한없음
 - 건축사진부문: 제한없음
 - 초대작가부문: 한국건축가협회 대전시지회 정회원으로서 초대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 건축상부문: 응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건축사) 및 시공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 주간사를 원칙으로 함)
- ▷ 응모대상작품
 - 건축대전부문: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축사진부문: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1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초대작가부문: 건축 및 도시에 관한 창작품으로 작품당 작가의 명의로는 1인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상작품은 초대작가전에 동시 출품 불가)
 - 건축상부문: 2001년 9월 13일 ~2002년 9월 25일까지 시공완료된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관내에 위치하고, 건축상에 응모한 적이 없어야 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또는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
-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대전광역시 지회(042-532-9185/524-9501)
대전광역시 건축과(042-600-2834)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사용승인건축물부문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계획작품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

- 경기도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도내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제7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문의: 경기도청 주택과031-249-4930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건축사회 031-247-6129)

응모부문 및 대상

- ▷ 사용승인건축물부문(2000. 1. 1.~2001. 12. 31. 사이 사용승인

- 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 주거부문(공동주택 포함): 경기도 건축사회 등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 비주거부문: 주거부문과 동일
- ▷ 계획작품
 - 도내 소재대학(대학원 전문대 포함) 건축전공 학생의 학교장 추천작품
 -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의 관계 건축사 추천작품
 - ※ 부문별 공히 본 행사 이외의 시·도 단위이상 기관 공모전에서 입선된 작품은 제외

응모방법

-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1차접수: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1부와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간이소개서, 건축물대상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2차접수: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패널(90cm×90cm)을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모형포함),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 ▷ 계획작품
 - 패널 1매(90cm×180cm)~2매(90cm×90cm) 및 모형 1점
 - 작품설명서(A4용지 23매) 및 추천서 1부 제출
 - ※ 작품을 공동으로 제출시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작품접수

- ▷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접수기간(1차): 2002. 7. 29.~8. 9.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관 5층
- ▷ 계획작품부문
 - 접수기간: 2002. 8. 26.~9. 6.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

사회관 5층(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031-247-6129)

※작품용모신청서는 경기넷 (<http://www.kg21.net>) 또는 접수 당일 현장에서 제공

2002년 제5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작품공모 및 전시회

8월 5일부터 원서접수



- 원서접수기간: 8월 5일~10월 5일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 접수비: 40,000원(온라인 계좌: 신한은행452-02-504543 예금주: 김정민)
- 작품접수: 11월 12일 13:00~18:00
- 전시기간 및 장소: 11월 14일~11월 19일 울산문화회관
- 출품자격: 시니어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학교 3학년 재학이상, 대학원생 및 일반(실무자포함), 1인 1작품), 주니어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학교 1,2학년 재학생 및 전문대학 재학생, 1인 1작품)

- 심사일정: 11월 19일 15:00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국 052-266-9004
www.ulsankia.or.kr

2002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7월 31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성남시,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와 함께 2002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에서 오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참가할 수 있고, 실내디자인에 관한 창작품을 내용으로 일인당 한 작품만 출품가능 하며, 동일작품의 작가명칭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작품은 1차로 소정의 작품설명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고, 1차 심사에서 통과된 입선작품에 한하여 2차로 패널 및 모형 혹은 입체조형적 전시물을 제출하면 된다.
원서는 <http://www.kosid.or.kr/사업>

소개/실내건축대전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 6. 1.~ 7. 31
- 작품접수: 2002. 9. 9.~9. 13.(1차), 2002. 10. 9.(2차)
- 접수장소: 협회사무국(등기우편-1차),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 1층(2차)
- 심사일정: 2002. 9. 16.(1차), 2002. 10. 10.(2차)
- 문의: 02-508-8037,8
www.kosid.or.kr

2002밀양동아시아 건축디자인캠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국립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특별설계교육 프로그램인 '건축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이번 건축디자인캠프는 국제대학간 학술교류 협력증진과 이를 통한 건축교육의 국제적 감각 및 학생상호간의 교류증대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의 범위를 한국과 일본(오이타대학교) 그리고 중국(동계대학교)의 대학으로 확대하여 <2002밀양동아시아 건축디자인 캠프(2002 East Asian Architectural Design Camp in Miryang)>로 개최된다. 7월 22일부터 5박6일간 경주 한화콘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동아시아건축의 공간과 정체성(Space and Identity in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밀양대학교를 비롯한 7개 대학의 대학생 50여명이 참가하며,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10명과 7명의 대학생이 참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지도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본과 중국의 대학교수와 국내대학의 교수 및 건축가 8명이 지도교

수로 참여한다. 행사일정으로는 디자인 워크숍, 전통건축물 답사, 특강, 건축설계교육에 관한 국제세미나, 전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밀양대학교 건축공학과

055-350-3542

www.mnu.ac.kr/~samlih/summer

2002부산하우징페어

10월 10일~10월 15일

- 전시기간: 2002년 10월 10일~10월 15일
- 전시장소: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신청마감: 2002년 9월 13일(접수순 마감)
- 출품대상: 건설·건축업, 건설장비 생산업체, 건축·건설용 공구 생산업체, DIY제품 생산업체, 설비·전기 공사업체, 인테리어, 부동산, 학계·관련연구소, 관공서·공공기관 및 단체, 기타 관련업체 종사자
- 주최: 경향신문사, e하우징, 부산시
- 후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 협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문의: 02-3701-1600, 02-732-2580 www.ehousingfair.com

건축분야별 공동 프로젝트관,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에서 선보여

건축의 각 분야별로 해당 기업 및 학계 / 종합건설사 / 설계사무소가 특정 주제를 목표로 함께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연구 / 개발 / 전시까지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올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에서 선보인다. 기존 국내에서 개최되어온 건축관련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단품업체들의 나열식 전시로 인해 방문객들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우선 외장부분 / 오피스인테리어부분(상업용) / 욕실내장부분(주거용) / 옥상조경의 4개 부문이 선정되어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학계와 해당업체들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경쟁력 있는 새로운 솔루션들은 올 12월 KIBEX 2002 국제건축박람회에서 공동전시를 통해 보여주게 된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관을 통해 각 분야의 업체들은 하나의 주제하에 개별제품을 공동으로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개별제품의 홍보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전시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제외한 인테리어 부분은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함으로써 전시 비용도 절감하게 되며, 각 분야별 업체간의 단절감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장을 가지게 된다. 이번 KIBEX2002 공동프로젝트는 한국 FM학회 리노베이션 위원회에서 기획 및 운영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Coordination은 공간종합건축사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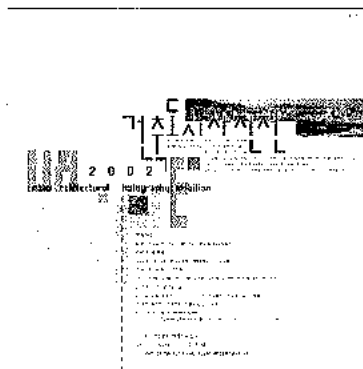
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 사무국은 관련 전문 건설/제조 업체들의 선전작업을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KIBEX 사무국

(전화: 02-708-4080)

제3회 건축·도시사진전

8월 16일~9월 27일 참가접수



부산의 문화개혁과 타 예술 분야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부산예술제2002」축제의 일환으로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에서는 세 번째 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한다. 현대인의 삶이 녹아있는 도시를 오브제로 하여 만들어지는 한 컷의 사진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 모습에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도시의 또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창조, 건축과 삶이 어우러진 도시 속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사진전에 일반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응모요강

- 참가접수 및 제출기한: 2002년 8월 16일~9월 27일(오후 5시까지)
- 출품자격: 제한없음
- 작품규격: 11"×14" (칼라 또는 흑

- 백) / 제출시 샘플(5"×7") 동봉
- 접수비: 10,000원 (1인 3작 이내)
 - 심사발표: 2002년 10월 2일
 - 응모방법: 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www.kiabb.org>)에서 다운 받아서 접수시 제출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9월 27일 소인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부산 동래구 안락동 448-6 4층 TEL 0502-555-4455 / FAX 051-521-0467
 - 전시장소: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 / 2F
 - 전시기간: 2002. 10. 7/월 ~ 2002. 10. 12/토

제18회 부산건축대전

9월 13~14일 응모

일반공모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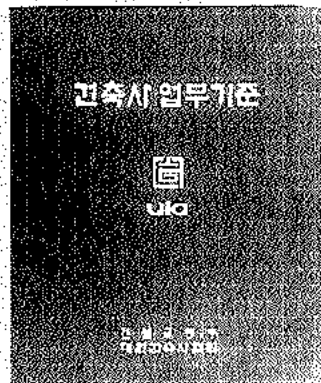
- 주 제: 장소와 의미(場所와 意味)
- 건축은 장소의 특성을 시각화한다 -
- 심사방법: 예산심사 및 공개심사
- 시 상: 본 상 - 10점 이내
- 작품접수처: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특 선 - 10점 이내
- 작품접수: TEL 0502-555-4455(협회사무국)
(특선이상 입상자 해외건축가행 참가 특전부여)
607-6153(대전시실)
- 입 선 - 다수
(출품자 전원 작품집 무료증정)
- 응모일자: 2002. 9. 13(금)~14(토)
단, 14일은 오후 1:00까지
- 작품제출: 2002년 11월 7일(목) 오후 10시~오후 5시
-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회

<http://www.kiabb.org>에 게재

- 응모방법: 응모원서는 E-mail(kiabb@hotmail.com) 및 FAX 접수 (051-521-0467)
- 기타 상세한 응모요강은 홈페이지 (<http://www.kiabb.org>) 참조
- 문의: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TEL: 0502-555-4455 FAX: 051-521-0467

건축사업무기준 책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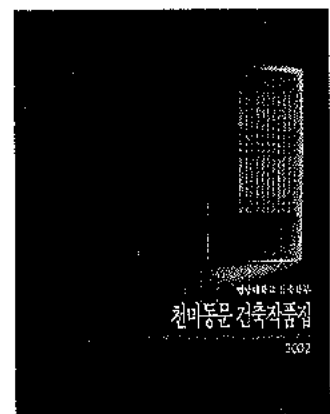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건축사 영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설계도서작성기준, 공사감리세부기준, 계약서 등을 한 권의 책자에 담아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신 간

◇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마동문 건축작품집 2002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태동기에 개설된 영남대학교 건축학부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각계 각종 건축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작품 110여 점을 모아 건축설계와 시공?기술의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재하고 있다. 게재 작품으로는 김인호 선생의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잠실야구장, 김현산(영남대 명예교수) 교수의 2.28민주학생 의거기념탑, 박재환(맥건축)의 은평구립도서관, 김영태(영남대) 교수의 영남대 사회관, 김우권(현대건축)의 예수성심수녀회 본원 수녀원, 서보광(동성건축)의 성모의 집, 윤영도(한국건축)의 대구전시컨벤션 센터, 이종우(계명대) 교수의 계명한학촌 계획안, 정현학(구간건축)의 대구은행 연수원 등 다양한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개설 50주년 기념사업회 역임/ 252쪽/5만원/도서출판 비운후퍼냄(051-464-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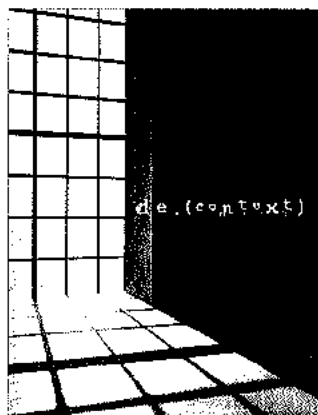
◇ de.(context)

"벤추리의 맥락적 사유의 재활성화를 통한 맥락적 설계기법들의 제안" 이 책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해에 걸쳐 개최한 건축설계 전시회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de.(context)"는 일상적 컨텍스트(context)의 피상적 읽기에 따른 접혀진 기능성의 세계를 다시 구체화시키는 건축, 공식성과 통시성에 바탕을 둔 컨텍스트의 새로운 읽기에 바탕을 둔 건축을 통칭하는 신조어를 말한다.

"오늘 이곳에 다시 복잡성(Complexity)와 애매모호성(Ambiguity)을 거론하는 것은 이것이 분석과 실증이라는 근대적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의 것들의 대표명사이며, 그것은 곧 근대적 삶이 잃어버린 삶의 한 부분이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단순명료하고 합리적이지만 못한 것은 근대성이란 이름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생활 일반에 엄연히 도사리고 있는 걸로 보기에는 관계없는 요소들의 갑작스런 병치(abrupt juxtapositions of seemingly unrelated particulars)와 피상적으로 유사한 것들 사이에 깔려있는 차이를 드러내는 아이러니(irony which reveals underlying difference things superficially similar)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들이 없는 매끄러운 도시와 건축이 또 그렇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삶이 확일과 몰개성과 어떻게 대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결(texture)과 질(quility)들을 잃어버린 우리삶과 그것에서 유리된 도시 건축을 재발견하고 그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 전혀 관계없는 경험의 영역들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통

합하는 은유(metaphor that integrates elements from disparate realms of experience) △ 단일한 표현에서 나오는 여러가지의 의미들 사이에서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애매모호성(ambiguity that creates surprising relation between various meanings of a single expression) △ 명백한 반대의 짝들을 화해시키는 역설(paradox which reconciles apparent oppositions) 등을 설정하고, "도시-건축의 맥락(context)이 가진 질과 결을 드러내어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고, 또 통합된 덩어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해체(de-construction)를 가로지르는 그 사잇점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설계이론연구실 엮음/94쪽/5천원/도서출판 비문후 펴냄(051-464-41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517-9071 · 강동구건축사회/488-7475
- 강북구건축사회/3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평택구건축사회/448-6244
- 구로구건축사회/864-6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8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6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8
- 마포구건축사회/333-5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83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8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9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5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무천지역건축사회/(032)664-5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지역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하남지역건축사회/(031)636-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9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9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6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6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68
- 공주시건축사회/(041)9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시건축사회/(041)65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652-379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진주지역건축사회/(051)365-8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8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6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원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3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해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6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LA CASA BLANCA 서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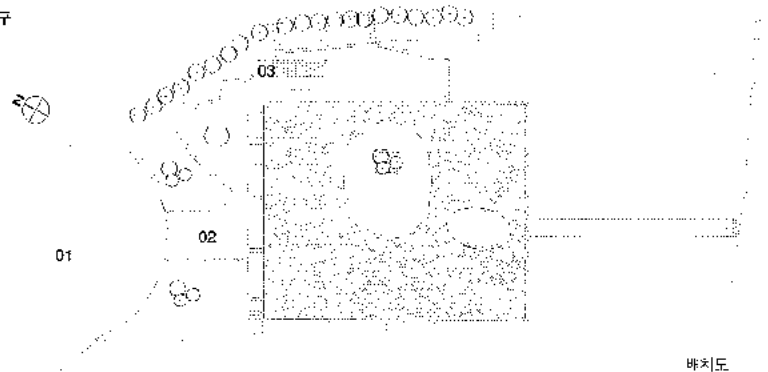
Seo-Baek-Dang

김희곤 / 흥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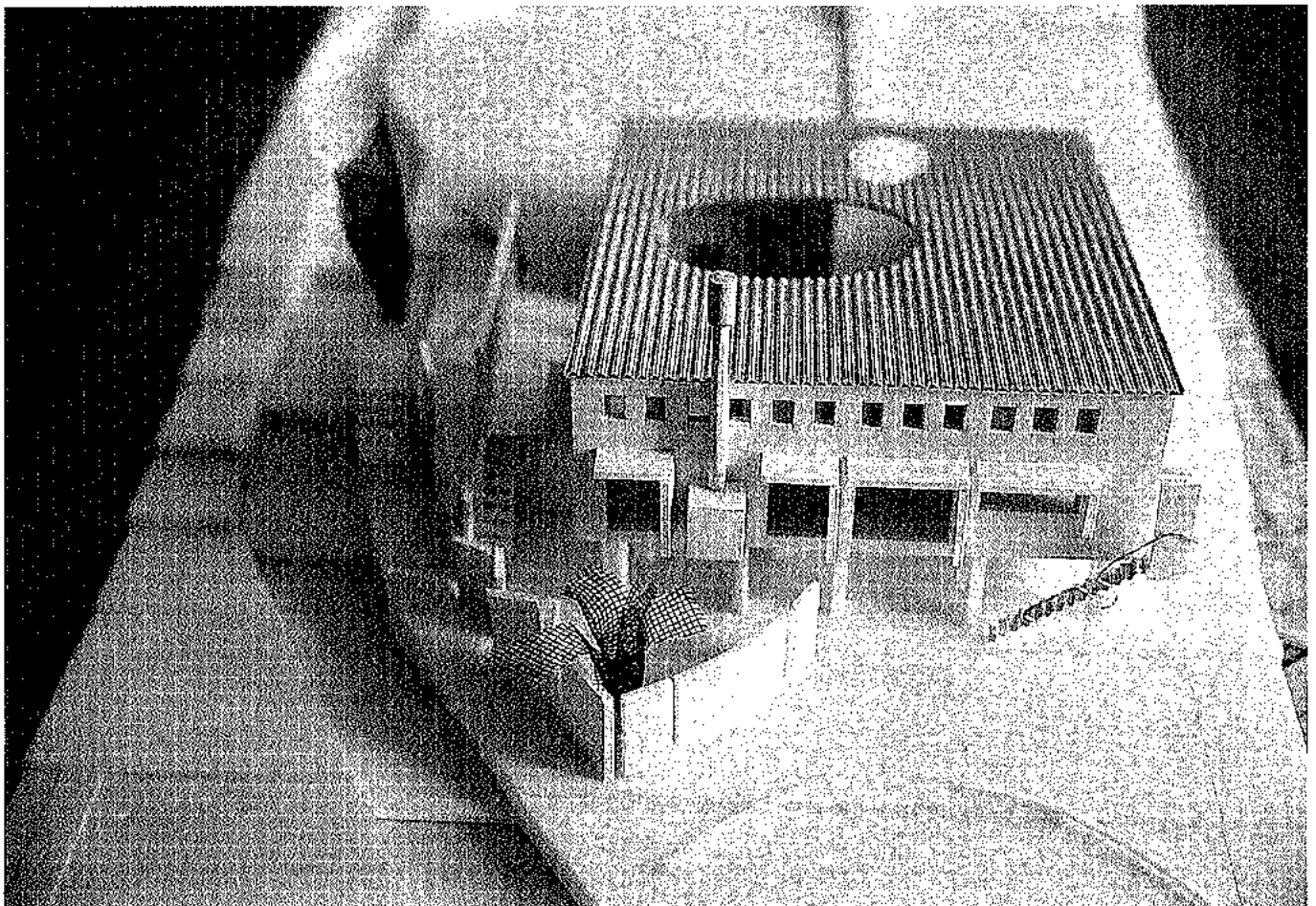
오늘날 사회 속의 인간을 위한 진정한 주거의 기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부유하듯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진정 안식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주거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불완전하고 정의되지 않고 모호하지만 사회와 인간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만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장선 속에서 변해 가는 현실 삶의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그 대안의 기반이 과거에서 나오든 현실의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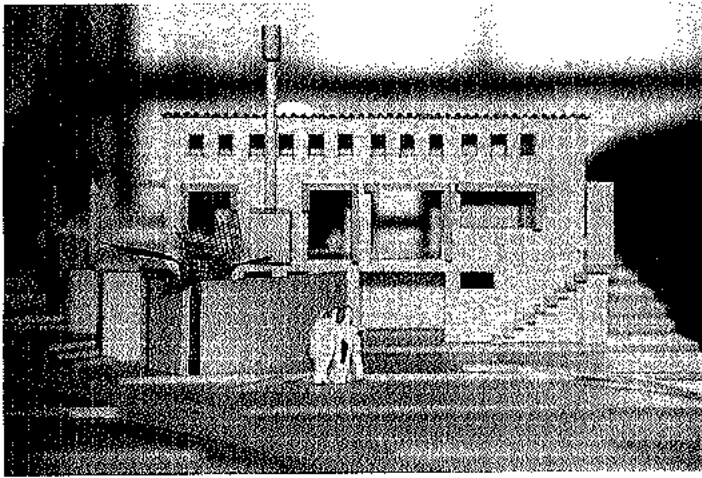
삶 속에서 나오든 우리가 찾은 대안이 인간적 진정한 삶의 위안이 되어야 한다. 건축 역시 치열하게 변해가는 피사체에 눈을 맞추고 이동하면서 피사체의 성질을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실감과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 인간의 진실한 본성을 찾아 나서는 건축주와 경제적 현실의 제약과 대지의 잠재력이 만나 생성되는 중심에 마당의 공간을 조정하게 되었다. 하늘을 담은 공간이 벽으로 구획된 방을 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담을

01_ 앞마당
02_ 진입로
03_ 주차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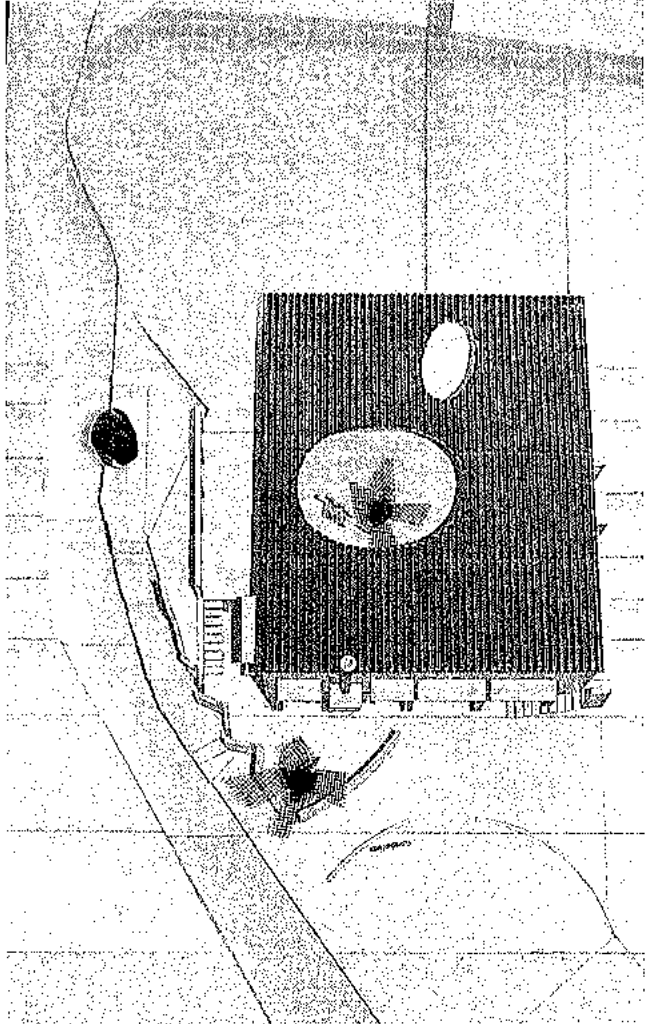
바치도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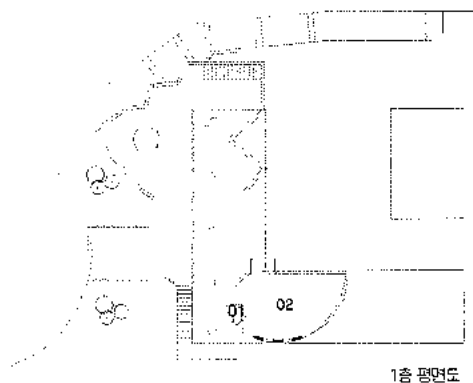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206-4번지
대지면적	66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63.71㎡
연면적	170.42㎡
건폐율	24.80%
발주	차이무원
용적률	22.0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설계팀	김희곤, 정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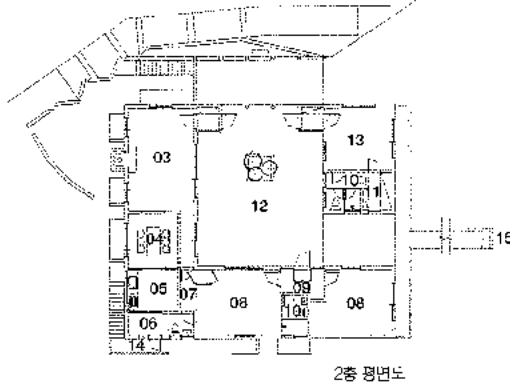
수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 조선시대 송순의 시조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나 한칸 달 한칸에 청풍 한칸 맞쳐 두고 강산은 들일 틈 없어 둘러두고 보리라.”가 은유하듯 한칸은 벽이 없고 한칸은 지붕이 없으니 자연에 대한 외경심의 일단을 볼 수 있다. 하늘을 담고 한쪽 벽을 띄우고 남는 벽

에 의지해 방을 두었다. 기능이 다른 방들을 오갈 때는 벽과 지붕이 없는 마당을 지나서 가게 되어있다. 하늘을 담은 마당이 벽으로 구획된 방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을 자연과 부모님과 가족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건축주의 마음을 한국전통주거의 표본 중의 하나인 양동의 서백당 “참을 인자를 백

번을 써내려 가면서 종손의 도리를 다하리라는 다짐”과 건축주의 정신을 이어보려 했다. 실개천을 따라서 진입부의 구조물은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형태로 퍼포먼스 해보았다. 건축물의 형태는 단순한 사각형상자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었다. 사각형은 인간의 진솔한 삶의 완성을 의미하고 하늘을 담은 두 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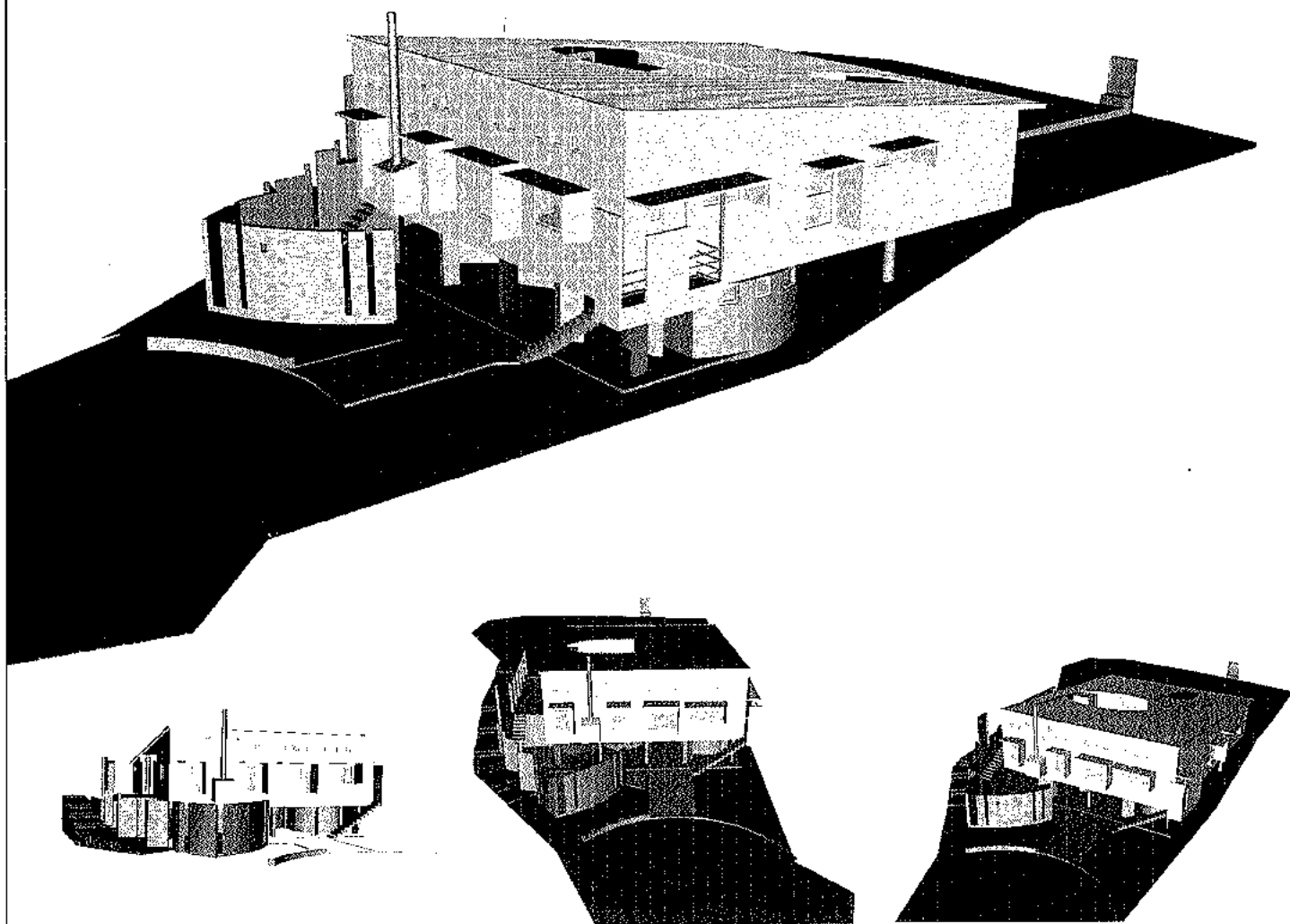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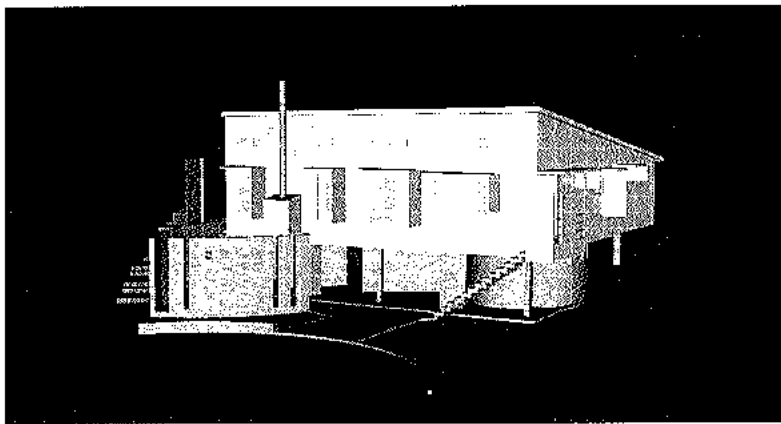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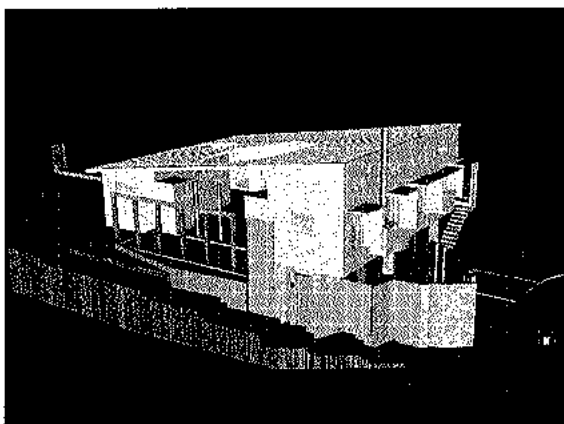
- 01. 참고
- 02. 기계실
- 03. 거실
- 04. 식당
- 05. 주방
- 06. 다용도실
- 07. 욕조
- 08. 방
- 09. 전실
- 10. 욕실
- 11. 강의실
- 12. 마당
- 13. 안방
- 14. 발코니
- 15. 영상의 공간



원형 구멍은 하늘을 뚫으려는 인간의 염원을
 실었다. 경사지의 자연적 제약을 마당의 장치
 에 의해서 두 겹의 평면이 대지의 새로운 질
 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막 콘크리트 물

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과제가 건축주와
 시공자의 마음을 모아서 마당에 담아야 한다.
 흐트러지고 있는 시공자의 마음을 모으는데
 너그러운 집주인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해되기보다는 느껴지기를
 서백당 마당에서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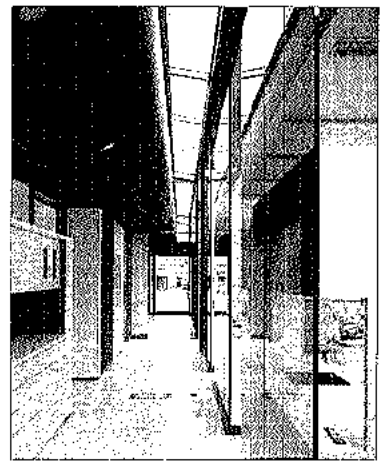
2002년 4월

이번 호의 특집은 '구조 누벨 버그(구조의 새로운 물결)'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로워진 구조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새로운 구조 디자인의 실험이 이루어진 작품과 이에 참여한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담을 통해 특집을 꾸미고 있다. 또한 구조가 5인의 좌담회가 열려 지난 10년간 구조계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미스 반데르로에의 현재적 해석에 대한 특집이 제2특집으로 꾸며졌다.



■ 특집: 구조 누벨 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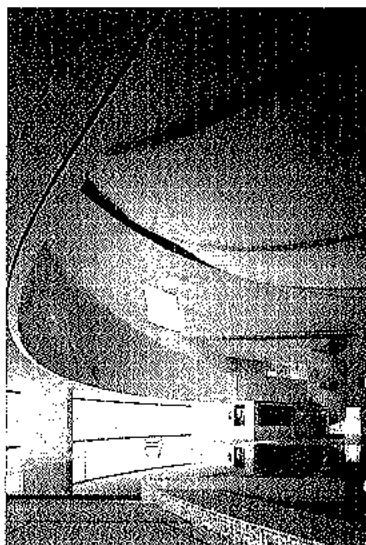
1990년대는 건축과 건축구조에 새로운 탐험의 물결이 일어난 시기이다. 이는 건축 디자인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화가 야기한 것으로, 이러한 건축공간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지난 10년간의 '구조에 있어서의 새 물결'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은 새로운 구조적 실험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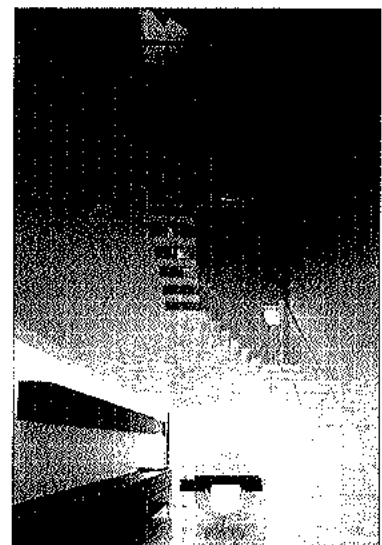
아베 히토시(건축가)와 알렌 버든(구조가)의 M치과의원

진 구체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당 작품의 건축가와 구조기술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실험을 일으킨 원동력과 건축가와 구조기술자간의 협력관계가 드러나게 된다. 또한 컴퓨터가 현대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담과 함께 소개된 작품은 아오키준(건축가)과 카네바코 요시하루(구조가)의 遊水館, 아베 히토시(건축가)와 알렌 버든(구조가)의 M치과의원, 오테다 아키라(건축가)와 이케다 마사히로(구조가)의 비버하우스(Beaver House), 소가베 마사시(건축가)와 구조설계공방 델타의 神樂坂의 주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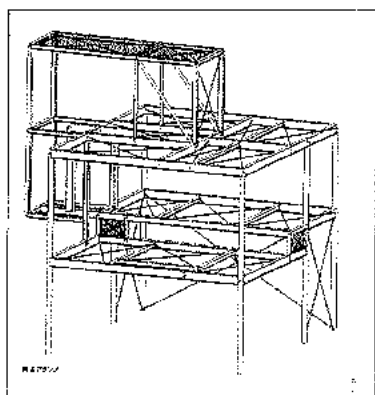
■ 좌담회 - 구조의 90년대, 그리고 현재: 구조가 5명이 90년대의 건축 구조



카네바코 요시하루(구조가)의 遊水館



이케다 마사히로(구조가)와 비버하우스(Beaver House)



구조설계공방 델리의 '階梯狀의 주택'

분야의 흐름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 보는 좌담회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구조가는 金箱溫春, 池田昌弘, 大賀成曲, 金田充弘, 알랜 버든 등이다. 金箱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먼저 지난 10년간 구조계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90년대 건축구조계의 변화

金箱은 60년대 셀구조와 텐션 구조의 활용 등 구조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7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고, 당시의 구조계는 내진구조에 힘쓰는 등 건축계와 구조계가 서로 다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다가 70년대 후반 나타난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 등의 영향으로 80년대 후반부터 구조가 다시 복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건축과 구조의 협력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리라는 기대 속에 맞이한 90년대에는 다양한 구조디자인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개성적, 개별적인 구조디자인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구조표현을 추구했던 60년대의 경향과는 대별된다고 지적하였다. 버든은 영국에서의 하이테크 건축의 발달 때문인지 자신은 70년대와 80년대의 구별을 느낄 수는 없으나, 90년대에는 컴퓨터의 보급에 의해 구조가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만히 이루어지면서 개성있는 구조의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하였다. 大賀도 컴퓨터 기술의 도입은 종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라 건축디자인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른 소극적인 태도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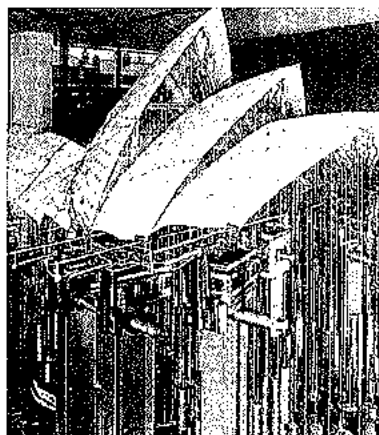
조해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했다고 버든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金田은 90년대에 들어서 구조와 건축이 어떤 주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池田은 건축가가 상상하는 이미지와 실현되는 건물간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평하였다.

▶구조가의 역할과 그 한계

다양화된 구조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최적화된 구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주었던 구조가들은 그 판단기준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합리적 구조란 경제적 구조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어느 가치기준을 가장 중요시 해야하는가를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다양하고 상대적인 평가기준들의 적용은 그 동안 가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최적해를 찾아왔던 구조가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석자간의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결론은 건축가, 시공자와의 협력관계 속에 프로젝트별로 가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컴퓨터는 건축을 바꿀 수 있는가?

화제는 컴퓨터 기술의 도입이 구조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로 돌려졌다. 金田과 버든은 1973년 6년간의 설계과정 끝에 완공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모형실험

예를 들면서 당시에는 구조해석의 한계 때문에 설계안을 여러차례 변경하고 모형실험까지 거쳐 설계안을 완성했으나, 오늘날의 기술이면 더 많은 가능성을 더 짧은 시간에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하고, 종래 구조해석 모델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조디자인의 가능성을 컴퓨터 기술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가와 협력작업

池田은 상대적으로 넓은 건축가의 영역에 비해 그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더욱 더 전문화되고 있다며, 넓고 얇은 영역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과 좁고 깊은 영역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코디네이터로서의 건축가의 역할에는 모두 동의하였으며, 디자이너로서의 구조가와 건축가의 협력관계로 논의가 이어졌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가와 50대 50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池田은 자신은 기술자라기 보다는 구조라는 언어를 가지고 건축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축가가 '구조재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 자신이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은 건축가와 구조가가 자신이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리 반문하여 확인해 두려는 절차일 뿐 서로의 주된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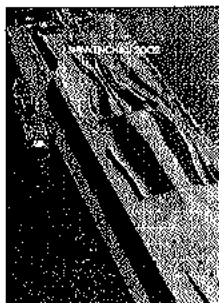
▶21세기의 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각자 꿈꾸고 있는 구조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버든은 움직일 수 있는 구조체에 대한 탐색을, 大賀는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펼쳐는 것을, 金田은 종래 구식의 구조방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을, 池田은 예술, 과학, 산업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건축을 원했으며, 金箱은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에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신건축

2002년 6월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는 금년 6월부터 부분사용이 시작되면서 거의 완공에 이른 요코하마 國際客船터미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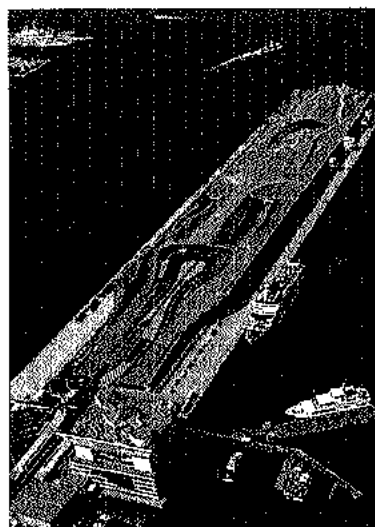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독특한 설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완성을 본 이 건물은 그 완공된 모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건물이다. 이밖에도 근대기 건물인 요코하마 적벽돌조 창고 1,2호관의 보존 개수와 立教大學 제1식당의 보존·개축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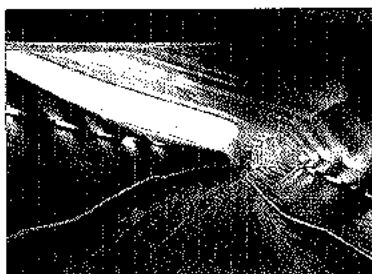
■ 작품소개

▶ 요코하마 국제객선 터미널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현상설계에 당선된 요코하마 국제객선 터미널은 당선안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젊은 건축가인 그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혁신적인 디자인의 실현 과정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의



요코하마 국제객선 터미널



요코하마 국제객선 터미널

현상설계안은 건물을 수직으로 3개의 레이어로 나누고 각 층의 바닥면을 자유로운 곡면으로 변형시켜 공간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기능에 따른 공간의 물리적 구획을 모호하게 한 것으로 컴퓨터 기술과 위상기하학적인 공간개념 및 형태의 차용 등 현대건축의 한 특색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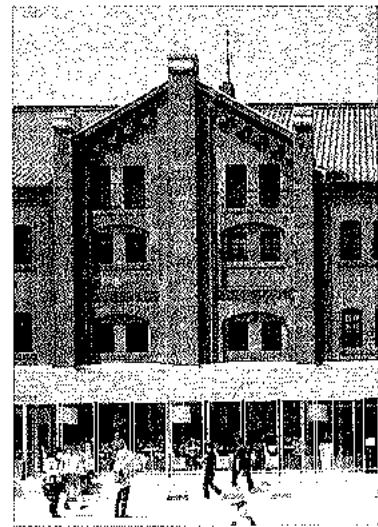
그러나 자유롭게 만족되는 거대한 3개의 면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현상설계 당시에는 카드보드 구조를 비교적 상세히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사실 젊은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에게 그만큼 구조 설계를 감당해낼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터미널의 실시설계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쏟아졌다. 실시설계를 위해 foa(foreign architect office)라는 설계조직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참여한 구조기술자들은 당장 새로운 구조의 설계에 들어갔다. 카드보드 구조는 허니컴 구조로 다시 카드보드 구조로, 여러차례 변형된 안들이 실험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절판구조로 결정을 보았다. 굴곡되는 면의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는 곡면에서 여러 방향의 응력을 소화해 내는 구조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절판구조가 되면서 원 현상설계안에서 보여졌던 부드러운 곡면(자유로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부드럽게 만족된)은 자취를 감췄다. 절판구조에서는 본질적으로 비교적 긴 직선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설계의 변경은 건물 형태에 전체적

인 변화를 가져왔다. 각 층을 이루는 곡면 슬래브의 두께도 두꺼워졌으며, 층고도 높아져 전체적으로 둔탁한 모습이 된 점은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향한 몸부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위의 설계 진행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Making Architecture' 외에도 일본의 건축가 아오키 준과 foa의 멤버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피슈드 무사비와의 대담 등을 통해 그 설계과정에 얹힌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 요코하마 적벽돌조 창고 1호관·2호관은 각각 1913년, 1911년에 준공된 일본의 근대건축물이다. 설계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대건축가인 藁木の 것이다. 이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보수는 기존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향상 및 새로운 시설에 맞는 내부의 변경이 주된 골자를 이루었다. 1호관은 문화시설로 변경되어 1층에는 상점, 2층에는 전시장, 3층에는 공연장이 들어섰고, 2호관은 임대된다. 立教大學의 제1식당 건물도 구조물의 보강과 새로이 붙은 증축건물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났다. 立教大學의 식당 건물은 1916년에 세워진 것으로, 내진 성능을 위해 보강된 구조물들이 기존의 천장구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번역/강상훈)



요코하마 적벽돌조 창고 1호관·2호관

2002. 7. 1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부가가치세법령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 종전에는 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 2002. 7.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

-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같은 세제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시 전자화폐 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화폐의 개념

- 전자적인 매체 (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 수단으로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

여신전문금융업법

- 위장가맹점 관련 법적 강화
 - 벌칙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강화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법적 신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자

-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종전에는 카드강 등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및 포상금 지급

〈고발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고발팀
- (우편번호 100-743, 전화번호 02-3788-0755)

· 고발시 포함할 내용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이용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여신금융협회가 국제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